

The Concept and Model of the Free Economic Zone
in Goyang Special City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 연구

- 전략산업과 공간계획 수립 기초연구

유진근
김리영
김용덕
김선배
주형준
이선행
김은지
김명준

The Concept and Model of the Free Economic Zone in Goyang Speical City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 연구

- 전략산업과 공간계획 수립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유진근(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초빙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리영(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용덕(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선배(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주형준(고양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팀, 팀장)

이선행(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정보팀, 팀장)

김은지(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김명준(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보조원)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저자 유진근, 김리영, 김용덕, 김선배, 주형준, 이선행, 김은지, 김명준

발행인 정원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98-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의 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 | |
|-----------------------------------|----|
| 요약 | i |
| 제1장 서론 | 1 |
| 제2장 대내외 여건 검토 | 9 |
| 제1절 국내외 여건 | 11 |
| 제2절 관련 정책 및 계획 | 31 |
| 제3절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및 과제 | 40 |
| 제3장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사례 검토 | 51 |
| 제1절 경제자유구역 현황 | 53 |
| 제2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 63 |
| 제3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 68 |
| 제4절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 | 73 |
| 제5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역 분석 | 77 |
| 제6절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분석 | 81 |
| 제7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향 시사점 | 85 |
| 제4장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 | 87 |
| 제1절 고양특례시 현황 검토 | 89 |
| 제2절 서울 및 경기도 인접 지역 산업 분석 | 96 |

| | |
|--------------------------------|-----|
| 제3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비전과 목표 | 105 |
| 제4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능배치 구상 | 109 |
| 제5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단계별 전략 | 131 |
| 제6절 추진체계와 사업방식 | 133 |

제5장 지구별 기본구상(A 지구) 139

| | |
|---|------------|
| 제1절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 141 |
|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 145 |
|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 153 |
|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계획 | 156 |
|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부분공개] | 160 |
|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부분공개] | 167 |

제5장 지구별 기본구상(B 지구) 175

| | |
|---|------------|
| 제1절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 177 |
|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 182 |
|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 190 |
|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계획 | 192 |
|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부분공개] | 195 |
|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부분공개] | 202 |

제5장 지구별 기본구상(C 지구) 209

| | |
|--------------------------|-----|
| 제1절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 211 |
|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 215 |

| | |
|----------------------------------|-----|
|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 222 |
|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계획 | 227 |
|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부분공개] | 231 |
|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부분공개] | 238 |
| | |
| 제6장 결론 | 243 |
| | |
| 참고문헌 | 255 |
| Abstract | 259 |

표 목차

| | |
|--|-----|
| [표 1-1] 고양특례시와 경기도 주요 도시 산업구조 | 6 |
| [표 2-1] FDI 유입(단위: 10억 달러) | 17 |
| [표 2-2] 한국의 FDI 흐름(단위: 10억 달러)/OECD | 17 |
| [표 2-3] 연도별 복귀기업 수 | 19 |
| [표 2-4] 복귀기업의 복귀지역 현황 | 19 |
| [표 2-5] 미래 GVC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 | 20 |
| [표 2-6] 업종별 향후 GVC의 전개 방향 | 21 |
| [표 2-7] 향후 5년간 업종별 value chain의 국경 이동 잠재력 추정치 | 23 |
| [표 2-8]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의 기능적 분류 | 26 |
| [표 2-9] 경제특구의 발전단계 | 27 |
| [표 2-10]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분야별 추진 내용 | 30 |
| [표 2-1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34 |
| [표 3-1]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 54 |
| [표 3-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조세 감면 | 55 |
| [표 3-3]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체 수(2020년) | 60 |
| [표 4-1] 고양특례시 의료·메디컬 산업 분야별 기업 수 및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 | 91 |
| [표 4-2] 2018년 고양특례시 미디어·콘텐츠 산업 분야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94 |
| [표 4-3] 고양특례시 인근 지역 상위 5개 업종(사업체 수 기준) | 98 |
| [표 4-4]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부가가치율 | 101 |
| [표 4-5]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총자산증가율 | 102 |
| [표 4-6]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매출액증가율 | 102 |
| [표 4-7]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매출액영업이익률 | 103 |
| [표 4-8]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이자보상비율 | 103 |
| [표 4-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중 경기지역 추진과제 | 110 |
| [표 4-1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경기지역 발전 방향(산업혁신/일자리공급, 남북평화) · | 111 |

| | |
|---|------------|
| [표 4-11]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혁신방안 | 113 |
| [표 4-12] 제2차 기본계획의 로드맵 | 113 |
| [표 4-13] 제2차 기본계획 4대 중점분야와 12개 세부과제 | 114 |
| [표 4-14] 경기경제자유구역 3대 목표 | 116 |
| [표 4-15] 경기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현황 | 116 |
| [표 4-16]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부문별 세부 내용 | 118 |
| [표 4-17] 민선8기 경제, 교육문화 분야 비전과 공약 | 119 |
| [표 4-18] 민선8기 시장의 10대 핵심과제 | 120 |
| [표 4-19] 일산테크노파크 산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 124 |
| [표 4-20] 지구별 배치 산업군 및 기능 | 127 |
| [표 4-21] 육성 산업군과 정책과의 연계성 | 130 |
| [표 4-22] 추가적인 기능과 정책과의 연계성 | 130 |
| [표 4-23]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실현 3단계 | 131 |
| [표 4-24] 사업 주체별 역할 | 136 |
| [표 5-1] 복합개발 정도 및 용지별 비중[비공개] | 149 |
| [표 5-2] 용도별 세부 도입기능 | 152 |
| [표 5-3] 맥킨지사의 반도체 시장 전망 | 155 |
| [표 5-4] 산업별 입주의향 확보 현황 | 155 |
| [표 5-5]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조성 계획(안) | 157 |
| [표 5-6]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비공개] | 162 |
| [표 5-7] 토지이용계획(안)[비공개] | 163 |
| [표 5-8] 총사업비 산정[비공개] | 167 |
| [표 5-9] 추진 사업별 조성원가[비공개] | 168 |
| [표 5-10] 편익 산정 기준[비공개] | 168 |
| [표 5-11] A 지구 편익 산출 결과[비공개] | 169 |
| [표 5-12] A 지구 경제성 분석 결과[비공개] | 169 |

| | |
|--|-----|
| [표 5-13] A 지구 조성 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비공개] | 172 |
| [표 5-14] B 지구 산업별 주요 인프라 현황 | 180 |
| [표 5-15] 용지별 면적 및 비중[비공개] | 186 |
| [표 5-16] 용도별 세부 도입가능 | 189 |
| [표 5-17]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비공개] | 197 |
| [표 5-18] 토지이용계획(안)[비공개] | 198 |
| [표 5-19] 추정 총사업비[비공개] | 202 |
| [표 5-20] 추진 사업별 조성원가 수준[비공개] | 203 |
| [표 5-21] 편익 산정 기준[비공개] | 203 |
| [표 5-22] B 지구 편익 산출 결과[비공개] | 204 |
| [표 5-23] B 지구 경제성 분석 결과[비공개] | 204 |
| [표 5-24] B 지구 조성 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비공개] | 206 |
| [표 5-25]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비공개] | 218 |
| [표 5-26] 용도별 세부 도입가능 | 221 |
| [표 5-27] 드론 활용 현황 | 225 |
| [표 5-28] 전 세계 UAM 시장 규모 전망과 주요 지역별 UAM 시장 전망 | 226 |
| [표 5-29]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비공개] | 233 |
| [표 5-30] C 지구 토지이용계획[비공개] | 234 |
| [표 5-31] 토지 조성원가 적정성[비공개] | 238 |
| [표 5-32] 추진 사업별 조성원가[비공개] | 239 |
| [표 5-33] 편익 산정 기준[비공개] | 239 |
| [표 5-34] C 지구 편익 산출 결과[비공개] | 240 |
| [표 5-35] C 지구 경제성 분석 결과[비공개] | 240 |
| [표 5-36] C 지구 조성 시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비공개] | 241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경기 남북부간 경제 격차 | 3 |
| [그림 1-2] 경기남부/경기남부 상위 5개 도시 대비 경기북부 GRDP 현황 | 4 |
| [그림 1-3] 고양특례시 중첩규제 현황 | 5 |
| [그림 2-1]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과 혁신생태계 강화 | 12 |
| [그림 2-2] 플랫폼 경제의 진화와 산업 가치사슬 구조 변화 | 14 |
| [그림 2-3] 혁신생태계 강화와 지역산업 육성 전략 | 16 |
| [그림 2-4] 10대 FDI 유입국가 | 18 |
| [그림 2-5] 10대 FDI 유출국가 | 18 |
| [그림 2-6]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운영 방향 | 35 |
| [그림 2-7]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 42 |
| [그림 2-8]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 | 43 |
| [그림 2-9] 지역산업 플랫폼 구조 | 47 |
| [그림 3-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요와 개발지역 | 65 |
| [그림 3-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요와 개발지역 | 70 |
| [그림 3-3] 경기경제자유구역 개요와 개발지역 | 75 |
| [그림 3-4]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 80 |
| [그림 4-1] 경기도 3대 특례시 제조업 추이(사업체 수 기준) | 99 |
| [그림 4-2] 경기도 3대 특례시 제조업 추이(종사자 수 기준) | 100 |
| [그림 4-3] 경기도 3대 특례시 제조업 추이(부가가치 기준) | 100 |
| [그림 4-4]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개요[비공개] | 106 |
| [그림 4-5] 프로젝트회사(SPC) 개략도 | 135 |
| [그림 4-6] SPC 설립 절차 | 135 |
| [그림 4-7] 단계별 조직운영계획 | 136 |
| [그림 5-1] A 지구 개요[비공개] | 143 |
| [그림 5-2] A 지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비공개] | 151 |

| | |
|--------------------------------------|-----|
| [그림 5-3] A 지구 종합구상도[비공개] | 164 |
| [그림 5-4] A 지구 외투기업, 복귀기업 전용용지[비공개] | 165 |
| [그림 5-5] A 지구 토지이용계획(안)[비공개] | 166 |
| [그림 5-6] B 지구 개요[비공개] | 179 |
| [그림 5-7] B 지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비공개] | 188 |
| [그림 5-8] B 지구 종합구상도[비공개] | 199 |
| [그림 5-9] B 지구 외투기업, 복귀기업 전용단지[비공개] | 200 |
| [그림 5-10] B 지구 토지이용계획(안)[비공개] | 201 |
| [그림 5-11] C 지구 비전과 목표 | 212 |
| [그림 5-12] C 지구 개요[비공개] | 213 |
| [그림 5-13] C 지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비공개] | 220 |
| [그림 5-14] 빅데이터 시장 규모 | 223 |
| [그림 5-15]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업종별 시장 규모와 전망 | 224 |
| [그림 5-16] C 지구 산·학·연·관 연계 혁신생태계 | 228 |
| [그림 5-17] C 지구 종합구상도[비공개] | 235 |
| [그림 5-18] C 지구 외투기업, 복귀기업 전용용지[비공개] | 236 |
| [그림 5-19] C 지구 토지이용계획(안)[비공개] | 237 |

요 약

1. 서론

- 고양특례시는 인구 108만 명의 경기 북부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로 인하여 경제발전이 저해되어 왔음
 - 고양특례시의 GRDP는 경기 남부 상위 5개 도시(화성, 성남, 수원, 평택, 용인)
의 GRDP 대비 절반 수준임
- 각종 입지규제로 인한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고양특례시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 시정 목표로 설정
-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대내외 여건 검토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산형/비대면 속성의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환경 및 산업 가치사슬 구조의 새로운 여건 변화 속에서 혁신생태계
의 중심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증대
- 한국은 FDI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순유출 국가이며 유입되는 FDI의 극히
일부만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고 있는 실정
 - 2022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의 5%가 경제자유구역에 유치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대 추세에 제동이 걸린 국제가치사슬(GVC)은 COVID-19, 디지털전환 가속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강조, 미·중 경제패권 경쟁,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의 요인으로 큰 변화가 예상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개입에 의한 GVC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저조한 FDI 유치실적, 정부 개입에 의한 GVC 이동 가능성 증대 등은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보다 정교한 전략과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
- UNCTAD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화와 국제생산의 감속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경제특구, 새로운 유형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
-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중국, UAE 등의 경제특구 사례는 첨단산업 유치, 혁신능력 제고, 서비스경제로의 이행 촉진 등의 정책 방향이 효과적임을 시사
 - 싱가포르: 혁신주도특구를 통하여 지식집약 클러스터 형성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하여 투자자유화, 서비스업 및 금융업 개방 추진
 - UAE: 테크놀로지, 전자상거래, 미디어, 헬스케어 등에 특화된 Free Zone 설치
- 정부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화 도모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별 특성화 및 차별화 방안 등을 모색
- 제2차 기본계획(2018)에서는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운영 방향 전환
 - 국내기업 역차별 시정,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산업육성 중심 등

- 제3차 기본계획(2023년 발표 예정)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글로벌 경제환경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갖는 플랫폼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비전과 전략을 검토
 - 비전: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3.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사례 검토

- 국내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K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함(경제자유구역법 제2조 제1호)
 -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형식을 취하며, 15~20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2년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개 지역에 조성되어 운영 중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경영활동 지원, 각종 규제 완화,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에 지급되는 현금지원의 일정 비율 부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3차 개발계획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현재 중점 유치 업종은 관광·레저, 의료, 유통물류, 첨단 산업, 금융 분야 등임

- 특히 인천 송도 지구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을 유치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2008년 지정된 경기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평택(포승, 현덕)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실시되었고 2020년부터 시흥(배곧) 지구 개발계획이 시행 중
 - 2021년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사업체 수는 3개로 인천 206개, 부산·진해 168개 등에 비해 매우 저조(2021년도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표)
- 경제자유구역 사례 검토 결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향과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국가 단위의 산업·지역 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명확한 컨셉의 개발방향 설정, 집중된 형태의 구역 설정,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개발계획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에 대한 사전 대비 등

4.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

- 고양특례시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유사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이 낮아(31.01%) 자족 기능이 미흡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소비 도시 패턴
- 경기도 소재 3대 특례시의 제조업 비교 결과 고양특례시의 사업체 수는 수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수원과 용인보다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데이터 분석 결과 고양특례시 기업의 성장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열악한 편임
-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의 새로운 거점'을 설정
 - 4대 전략으로 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 ② 문화상품 수출기지 조성, ③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 조성, ④ 지능형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제시
- 경제자유구역 각 지구별 산업 및 기능 배치는 중앙정부·경기도·고양특례시 정책, 고양특례시 산업입지 현황, 고양특례시 민선8기 공약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상
 - A 지구: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시스템반도체
 - B 지구: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K-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4차산업혁명 기반 R&D 허브, ICT 융복합단지
 - C 지구: 스마트 모빌리티(UAM, 드론 포함), 빅데이터·AI, 지능형로봇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3개 지구 가운데 여건이 가장 우수한 A 지구부터 추진하고 B, C 지구는 A 지구 개발상황과 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과 개발 추진
 - 각 지구 내 산업 및 기능 배치도 기존 정책, 산업현황, 민선8기 공약 등과의 연관성이 높아 기업유치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추진

- 추진체계는 민관 융합형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 제거
-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등에 의해 조달
 - 민간자본 공모를 통해 SPC를 구성하여 사업참여자 확보 및 자금조달 도모

5. 지구별 기본구상 (A 지구)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A 지구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A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개발컨셉: Future Innovation Core Technology Zone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K-컬처,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
 - 입지 여건: 사업대상지의 53.99%가 미개발지이며, 미개발지 대부분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개발이 용이
- A 지구의 비전으로 ‘미래혁신 핵심기술의 선도 지구’를 설정하고 4대 목표로
 - ①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② 신한류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③ 미래 IP 콘텐츠 집적지역 조성, ④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제시
 - 고양특례시 내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과 바이오·의료 기업을 연계 육성하여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 지구 내에 조성 중인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와 같은 인프라와 연계하여 신한류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치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2025년 조성 예정)를 중심으로 고양특례시를 IP 콘텐츠 분야의 중심지로 육성
-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스템 반도체 연구 및 생산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에 기여(K-반도체 벨트의 확대)

5. 지구별 기본구상 (B 지구)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B 지구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B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개발컨셉: Global Cooperation Lab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K-컬처 인프라를 활용한 K-웰니스 바이오 헬스메디컬타운 조성
- 입지 여건: 사업대상지의 75.6%가 자연녹지지역이며 74.81%가 개발제한구역

○ B 지구의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을 설정하고 4대 목표로 ①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조성, ②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조성, ③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벨트 조성, ④ ICT 융복합 단지 조성 등을 제시

- 우수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내 최대 전시장인 KINTEX와 연계하여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조성
- 고양특례시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K-컬처 인프라를 활용한 K-웰니스 바이오 헬스메디컬타운을 조성
- 일산테크노밸리, 상암DMC, 마곡지구로 연결되는 4차산업혁명 기반 R&D 집적 지역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기업과 융복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시설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

5. 지구별 기본구상 (C 지구)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C 지구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C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개발컨셉: Test-Bed for Intelligent Systems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UAM, 드론 등의 모빌리티 산업분야
 - 입지 여건: 사업대상지의 92.77%가 자연녹지지역이며 92.33%가 개발제한구역
- C 지구의 비전으로 '지능형 시스템 테스트베드'를 설정하고 3대 목표로 ① 경기 북부 신성장 전략거점, ② 산업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③ 혁신생태계 신모델 정립 등을 제시
 - 파주, 김포, 양주, 의정부 등 인근 지역과 동반성장의 시너지를 위한 지역 전략 거점 조성
 - 관내 대학·연구기관과 인재 육성·지원·협업-기업성장의 선순환 산업 생태환경 조성
 - 플랫폼 기반의 첨단 AI·모빌리티·빅데이터·로봇산업의 지구 내 집적 환경 조성

6. 후속연구 방향

-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연구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계획 수립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성공여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달려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고양특례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과 대학 신증설이 제한되어 타 지역 대비 혁신역량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양특례시 산·학·연 생태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고양특례시의 혁신생태계 수준은 바이오·의료 분야에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취약한 편이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고양특례시 인접 지역에 형성된 혁신거점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국제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은 복합도시 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023년에 진행될 ‘고양특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2040’ 연구에서 도출될 고양특례시 미래상을 후속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특화산업 및 공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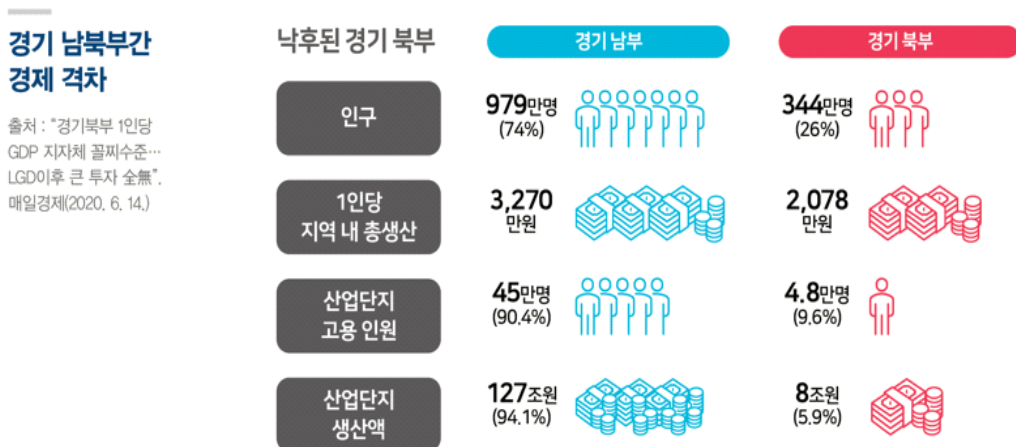
제 1 장 서론

1. 고양특례시 지역 경제 현황

1) 경기 남부 대비 열악한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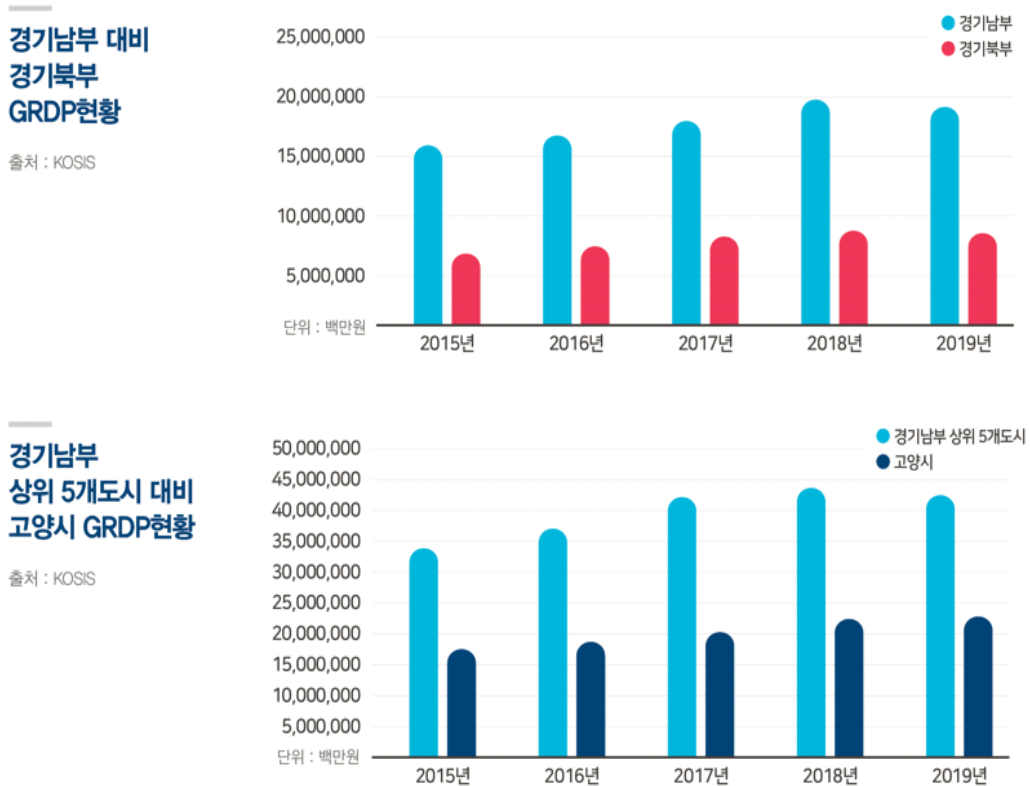
- 2014년 인구 100만 초과, 2022년 특례시로 승격
 - 고양특례시는 경기 북부 최대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임
- 고양특례시의 열악한 경제 지표
 - 고양특례시의 GRDP는 경기 남부 상위 5개 도시(화성, 성남, 수원, 평택, 용인)의 GRDP 대비 절반 수준임(2019년 기준)
 - 고양특례시의 1인당 GRDP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임(2019년 기준)
 - 고양특례시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32.8%로 남부 상위 5개 도시의 평균인 53.4%와 큰 격차를 보임
 - 경기북부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에 해당함(2019년 기준)

[그림 1-1] 경기 남북부간 경제 격차



*2019년 말 기준(지역 내 총생산은 2016년 기준), 괄호 안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림 1-2] 경기남부/경기남부 상위 5개도시 대비 경기북부 GRD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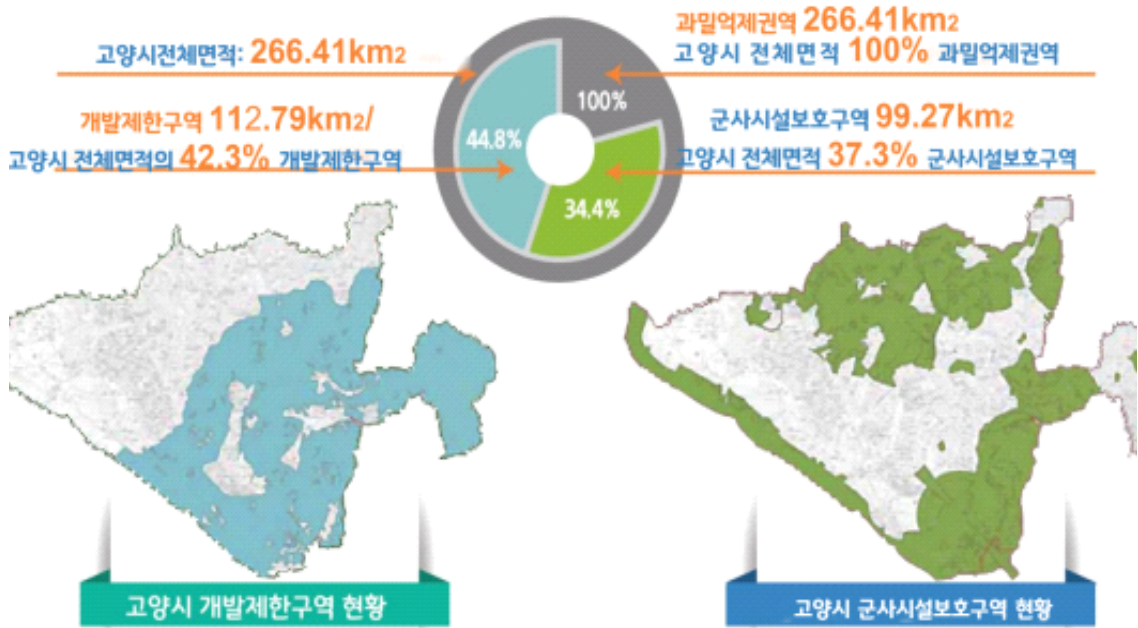


2)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및 경제 성장 저해

○ 고양특례시 내 중첩규제 현황

- 고양특례시 행정구역($266.41km^2$) 대비 규제지역($478.48km^2$)의 비율은 179.6%로 규제지역이 다수 중첩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과밀억제권역 100%($266.41km^2$), 개발제한구역 42.3%($112.8km^2$), 군사시설보호구역 37.3%($99.3km^2$), 농업진흥구역 12.6%($33.5km^2$)

[그림 1-3] 고양특례시 중첩규제 현황



○ 취약한 산업구조

-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공업 물량 0.166km²로 용도지역 0.04%에 불과해 자족기능 미흡
- 고양특례시 인구는 108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지만, 유사 규모 지자체에 비해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이 31.0% 수준으로 낮아 자족 기능이 매우 미흡함
 - 수원(37.1%), 용인(32.6%), 성남(50.2%), 화성(55.5%), 부천(36.9%)
- 도소매업과 개인사업자 비중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낮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산업구조를 가짐

[표 1-1] 고양특례시와 경기도 주요 도시 산업구조

| 구 분 | 수 원 | 고 양 | 용 인 | 성 남 | 화 성 |
|--------|---------------|---------------|---------------|---------------|---------------|
| 합 계 | 438,591 | 334,751 | 351,012 | 467,627 | 492,031 |
| 제조업 | 38,044(8.7) | 32,526(9.7) | 59,389(16.9) | 40,323(8.6) | 242,389(49.3) |
| 건설업 | 25,568(5.8) | 20,535(6.1) | 18,480(5.3) | 28,303(6.1) | 22,508(4.6) |
| 도·소매업 | 57,653(13.1) | 64,562(19.3%) | 49,690(14.2) | 69,543(14.9) | 43,356(8.8) |
| 운수·창고업 | 18,099(4.1) | 19,277(5.8) | 20,984(6.0) | 15,609(3.3) | 18,676(3.8) |
| 기 타 | 249,828(57.0) | 160,387(47.9) | 168,095(47.9) | 272,349(58.2) | 133,679(27.2) |

2.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 각종 입지규제로 인한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 시정 목표로 설정
 - 민선 8기 고양특례시장 취임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공식 출범
-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인적자원 및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기존의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고양특례시 연계 인구는 총 452만 명임
 - 고양특례시(108만 명), 파주시(50만 명), 김포시(50만 명), 양주시(25만 명), 의정부시(47만 명), 은평구(47만 명), 마포구(37만 명), 강서구(57만 명), 서대문구(31만 명)
-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경기북부 지역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고양특례시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인근 지역과 동반성장 시너지 효과 기대

3.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 연구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내용

-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 검토
 - 관련 법령 및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동향 검토
 - 해외 경제특구 동향 및 사례 검토
- 국내 사례 검토, 기존 지정 지역 및 주요 추진 지역 분석
 - 인천, 경기도(평택: 포승, 현덕, 시흥: 배곧) 등 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기타 비수도권 사례
 - 지정 추진 중인 경기도 내 안산, 광명, 시흥, 양주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별 전략산업과 적절한 유치업종 검토
 - 고양특례시 관내 대상지의 산업과 인접 지자체 산업, 고양특례시 산업생태계 여건 분석
 -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적절한 유치업종 검토
 - 고양특례시 환경분석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상지별 컨셉(안) 제안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별 환경분석
 -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상지별 컨셉(안) 제안

3) 연구방법론

-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 법령 등 문헌 조사
- 고양특례시와 주요 사례지역 현장 조사
- 통계분석
 - 주요 산업별 통계, 고양특례시와 주변 지역 산업 통계 분석
 - 고양특례시 소재 기업데이터 분석
- 분야별 전문가 자문
 - 경제자유구역 연구 유경험자 및 관련 전문가
 - 산업입지 및 공간계획
- 유치대상 업종 관련 전문가

제 2 장 대내외 여건검토

제1절 국내외 여건

제2절 관련 정책 및 계획 등

제3절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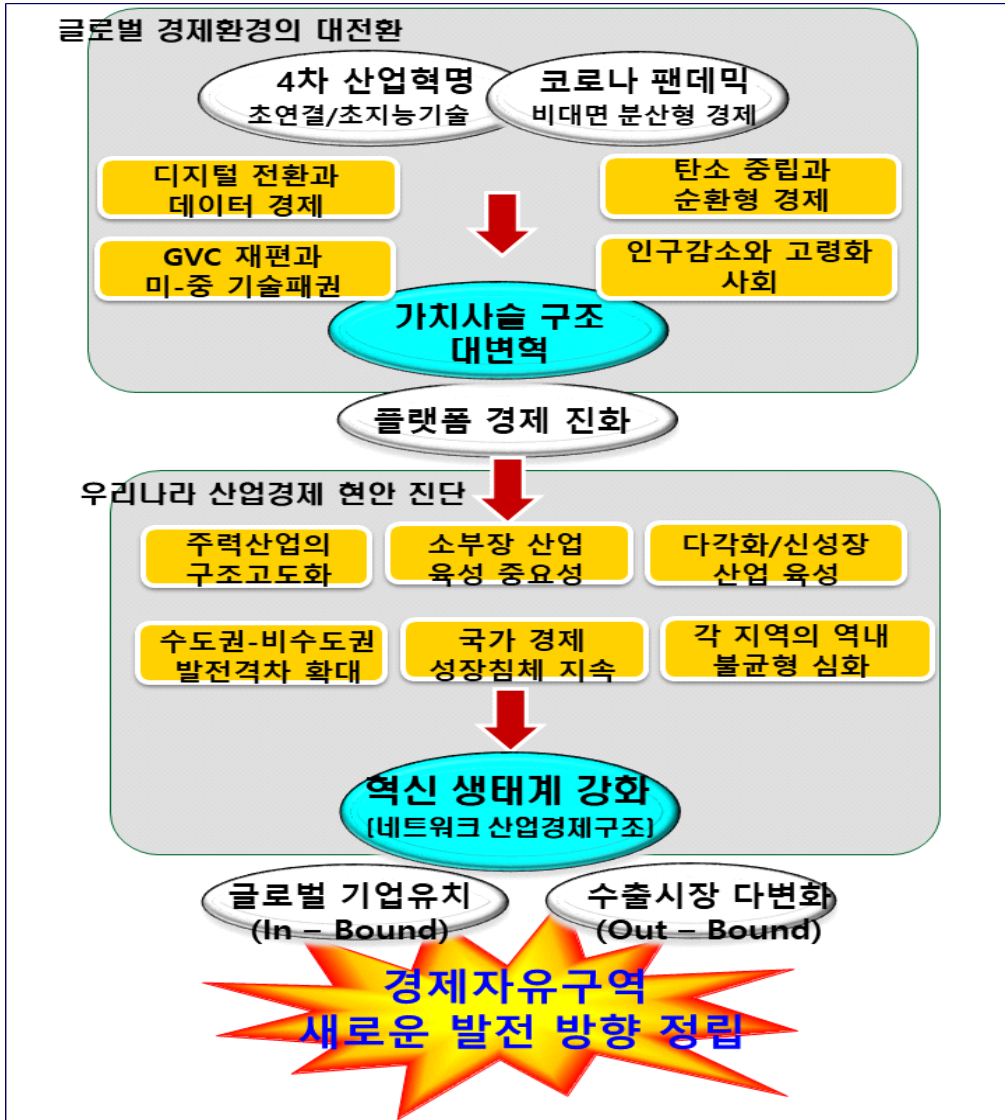
제절 국내외 여건

1.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여건

1)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과 가치사슬 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산형/비대면 속성의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초연결-초지능 핵심기술을 활용한 분산 및 비대면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
 - 이와 더불어 COVID-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경제충격에 대비한 산업경제의 잉여 축적 및 회복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분산형/비대면 산업경제구조 형성 부각
-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위기/기회), 탄소중립과 순환형 경제(당면과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제약요인) 등 국내외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경제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긴요함.
 - 가치사슬 구조의 대변혁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수평적 네트워크 산업경제구조 형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가 시급
- 따라서 글로벌 경제환경 및 산업 가치사슬 구조의 새로운 여건 변화 속에서 혁신생태계 강화와 국제 교류기능(글로벌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다변화)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발전 전략과 과제 모색이 필요함

[그림 2-1]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과 혁신생태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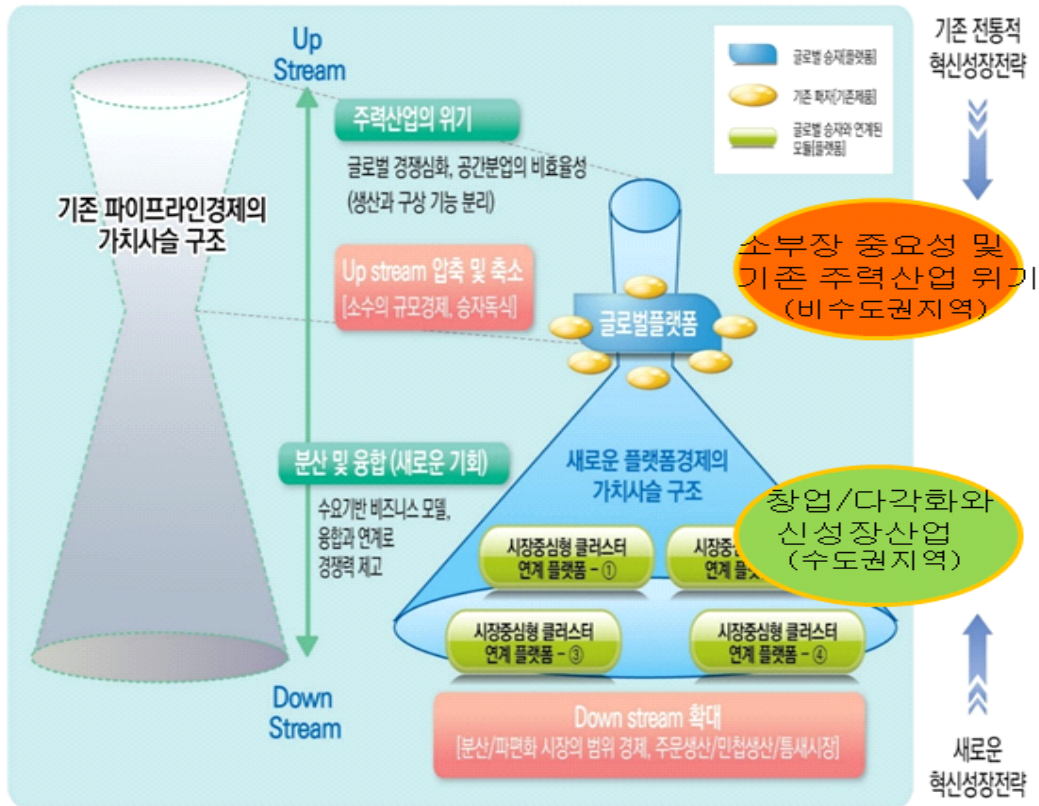
자료: 김선배(2017),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을 토대로 다시 작성

2) 플랫폼 경제와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 중요성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지역산업경제의 경쟁력 강화전략으로서 혁신생태계의 구축 및 강화가 요구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상류부문(Up Stream)과 제품, 서비스의 융복합 및 창업/다각화가 이루어지는 하류부문(Down Stream)에 차별적으로 발생함
 - 기존의 산업 가치사슬 구조는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상호 연결되는 계층적 산업생산 구조로 이루어지는 파이프라인 경제의 특성 시현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소부장 및 제조업)과 하류부문(제조업 및 서비스 융합)의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는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
- 플랫폼 경제는 각 산업 부문에 따라 편차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상류부문은 축소·압축되고 하류부문은 급격히 확장되는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주력 제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으로 상류부문의 경쟁 심화 및 위기 발생이 빈번해지고, 하류부문은 확대 및 융합으로 신성장산업의 성장 기회 포착을 위한 창업 및 다각화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
-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에서는 지역경제(하류 부문) 중심의 혁신-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음
 - 기존 파이프라인 경제에서 구상-실행 기능의 공간적 분리에 의한 분공장 경제(공간분업)에 기반한 지역산업경제 발전과는 차별화된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 발전이 새로운 지역산업 성장전략에 해당

- 혁신생태계는 기존의 수직계열형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혁신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 형성과 임계규모 확보가 가능한 지역경제의 공간단위 설정이 요구됨
 - 혁신생태계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상호 조화를 통해 혁신생태계의 성장동력 확보와 영향력(규모)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육성 가능
 - 혁신생태계의 구심력은 선도적 발전 역량으로서의 플랫폼 기능 강화이며, 원심력은 산업 및 공간 범위 측면에서 세력권(영향력) 확대와 관련

[그림 2-2] 플랫폼 경제의 진화와 산업 가치사슬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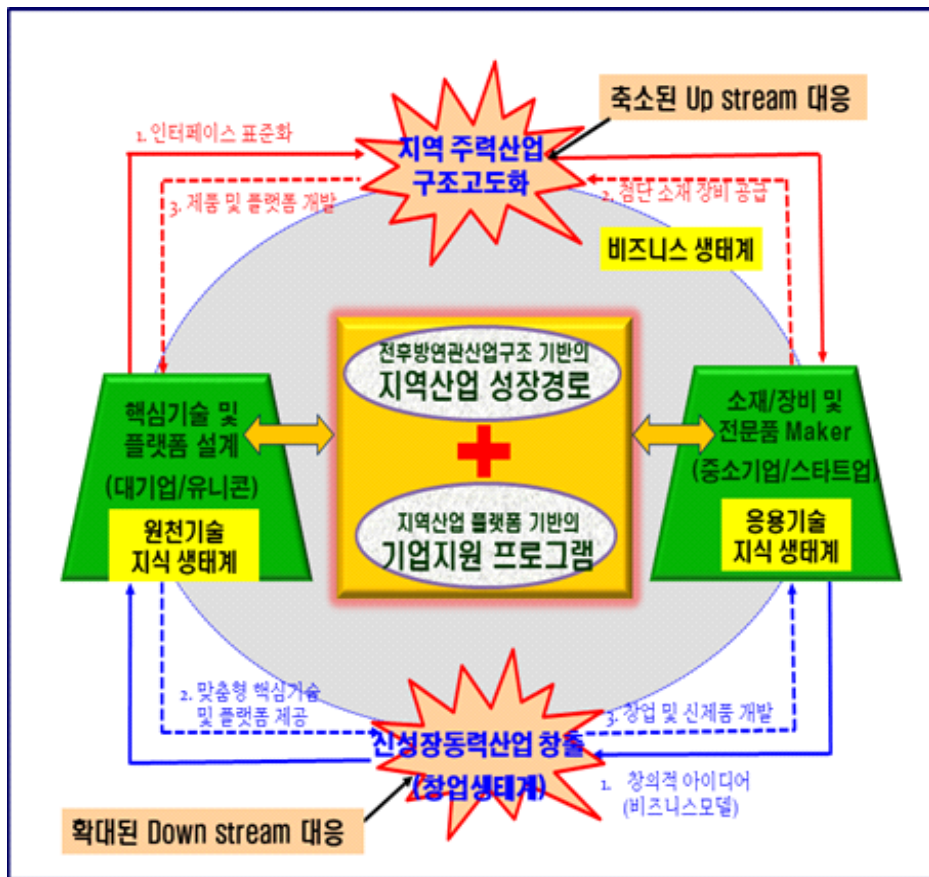
자료 : 김선배(2017),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 산업연구원 ISSUE PAPER

3) 혁신생태계 구심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 증대

- 플랫폼 경제 진화로 인해 산업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소부장 및 제조업)과 하류 부문(제조업 및 서비스 융합)의 혁명적 변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중심의 ‘혁신-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중요함
 - (주력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조화) 가치사슬 상류부문은 주력 제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으로 경쟁 심화 및 위기 발생이 빈번해지는 추세, 반면 하류부문은 확대 및 융합으로 신성장산업의 성장 기회 포착을 위한 창업 및 다각화 중요
 - (초광역 경제권 단위의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 형성) 플랫폼 경제에서는 지역경제 (하류 부문) 중심의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혁신-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
 - 즉, 플랫폼 경제 환경에서는 구상-실행 기능의 공간적 분리에 의한 기존 분공장 경제(공간분업)와 차별화된 지역산업 성장전략으로서 혁신생태계 구축이 긴요함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생태계는 산학, 기업, 산업의 3대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 강화가 중요함
 - (산학) 수요 시장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즈니스 생태계와 지식생태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 (기업) 혁신생태계의 강건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협력 강화
 - (산업)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산업의 조화를 위한 융합 혁신생태계 구축
- 대기업은 제품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통해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첨단소재 장비와 연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및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상생협력이 요구됨(김선배, 2017)

- 소재 장비 및 전문품 메이커인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를 개발하고 핵심기술 및 플랫폼 대기업(유니콘)은 맞춤형 핵심기술 및 플랫폼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창업 및 신제품 개발이 필요함¹⁾

[그림 2-3] 혁신생태계 강화와 지역산업 육성 전략



자료 : 김선배(2017),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을 토대로 재작성

¹⁾ 김선배(2017),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

2. FDI 동향 및 GVC 변화

1) FDI 동향

- 2021년 전세계 FDI는 1,58조 달러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유독 낮았던 2020년보다 64% 증가(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 활발한 M&A, 주요국의 유동성 확대, 다국적 기업들의 유보이익 투자 등이 배경
- 2022년에는 주요국의 급격한 유동성 회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장기화 등으로 식량, 에너지, 재정 위험이 전 세계에 만연해있는 상황으로 FDI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그린필드 투자의 위축도 낮은 FDI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표 2-1] FDI 유입(단위: 10억 달러)

| | World | Korea |
|------|-------|-------|
| 2015 | 2,131 | 3.1 |
| 2016 | 2,047 | 7.4 |
| 2017 | 1,691 | 12.7 |
| 2018 | 1,499 | 13.3 |
| 2019 | 1,514 | 12.5 |
| 2020 | 1,133 | 8.8 |
| 2021 | 1,779 | 1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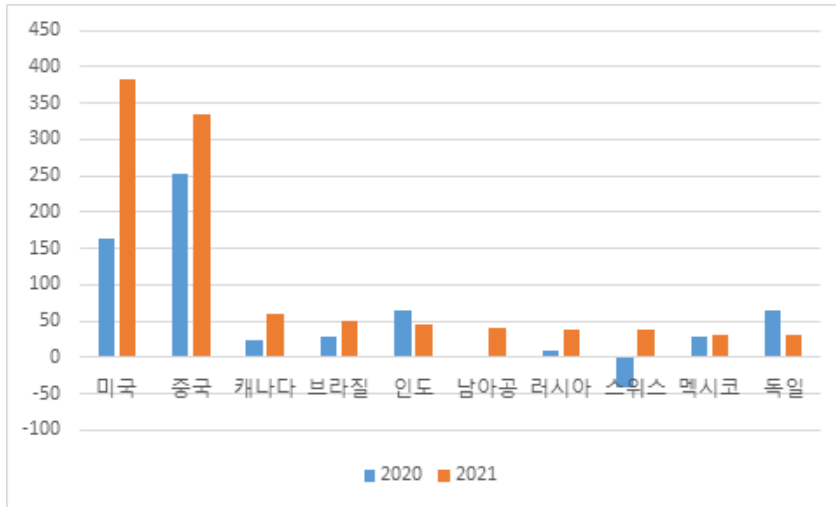
자료: OECD, FDI in Figures, April 2022

[표 2-2] 한국의 FDI 흐름(단위: 10억 달러)/OECD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Outward | 18.5 | 30.5 | 51.0 | 45.2 | 51.0 | 34.8 | 60.8 |
| Inward | 3.1 | 7.4 | 12.7 | 13.3 | 12.5 | 8.8 | 16.8 |

- 전세계 FDI 유입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2021년)
 - 한국은 전세계 FDI 유출국 중 9번째 순위 차지(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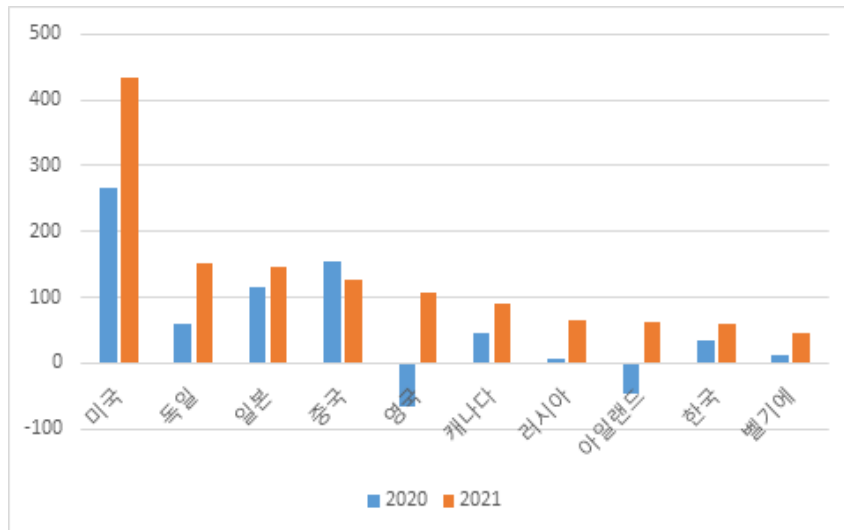
[그림 2-4] 10대 FDI 유입국가



자료: OECD, FDI in Figures, April 2022

단위: 10억 달러

[그림 2-5] 10대 FDI 유출국가



자료: OECD, FDI in Figures, April 2022

단위: 10억 달러

(1)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110.9억 달러(전년동기비 -15.6%), 도착기준 69.7억 달러(-21.1%)를 기록
 - 러·우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 FDI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반영
 - 수도권 비중(신고기준): 67.5%, 비수도권: 17.9%
- 2022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신고 5.6억 달러(전년동기비 +164%), 도착 3.2억 달러(+111%)
- (신고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3.07억 달러(자동차부품 2.32, 금속 0.57 등), 서비스업 2.52억 달러(운수·창고 1.33,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도매 및 소매업 0.22 등)
 - (인천 및 경기도) 인천: 9,660만 달러, 경기도: 400만 달러

(2)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현황

- 20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26개 사로 2014년 이후 누적 108개 사 기록

[표 2-3] 연도별 복귀기업 수

| 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계 |
|-----|-----|-----|-----|-----|-----|-----|-----|-----|-----|
| 기업수 | 17 | 2 | 11 | 4 | 8 | 16 | 24 | 26 | 108 |

[표 2-4] 복귀기업의 복귀지역 현황

| 전북 | 경남 | 경북 | 충남 | 부산 | 경기 | 인천 | 대구 | 세종 | 충북 | 울산 | 광주 | 강원 | 전남 | 계 |
|----|----|----|----|----|----|----|----|----|----|----|----|----|----|-----|
| 17 | 14 | 14 | 14 | 12 | 11 | 6 | 5 | 4 | 3 | 3 | 2 | 2 | 1 | 108 |

- 인천 및 경기도 복귀기업 업종
 - 경기도: 금속(3), 전자(4), 기타(4)
 - 인천: 자동차(2), 전자(3), 주얼리(1)

2) GVC 재편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대 추세에 제동이 걸린 GVC는 COVID-19, 디지털전환 가속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강조, 미·중 경제패권 경쟁,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의 요인으로 큰 변화가 예상
- 기존 GVC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는 <표 2-5>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2-5] 미래 GVC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

| 분야 | 내용 |
|---------------|--|
| 4차 산업혁명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로봇 및 AI -サプライ체인인의 디지털화 - 적층가공(3D printing) |
| 정책 및 경제적 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에서의 개입주의 확대 - 무역 및 투자 분야의 보호주의 확대 - 지역 내·양자 간 경제협력 확대 추세, ad hoc 경제협력 확대 |
| 지속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및 규제 - 시장 주도의 제품 및 프로세스 변화 - 물리적인サプライ체인 영향 |

자료: J. Zhan et al, "Global value chain transformation to 2030: Overall dir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VOX, CEPR Policy Portal, 2020.8.13

- Zhan et al.(2020)은 향후 업종별 특성에 따라 GVC는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
 - reshoring: GVC의 동선과 단축되고 생산분절이 덜해지면서 부가가치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
 - diversification(다변화): 경제활동이 더 넓게 확대
 - regionalization(지역화): GVC의 물리적 동선은 짧아지나 생산분절 정도는 종 전 상태를 유지
 - replication(복제화): 생산단계를 결합시키면서 물리적 동선은 짧아지나 지역적 분포가 확대

[표 2-6] 업종별 향후 GVC의 전개 방향

| | | 리쇼어링 | 다변화 | 지역화 | 복제화 |
|--------------|----------------------------|------|-----|-----|-----|
| 1차산업 | 광업, 농업기반 | ☐ | ☐ | ● | ○ |
| 제조업 | | | | | |
| GVC-집약 산업 | Hi-tech 집약(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 ● | ☐ | ☐ | ☐ |
| | Medium-low tech 집약(섬유, 의류) | ☐ | ● | ☐ | ☐ |
| 지역적 분포 산업 | 지역 가공(음식료, 화학) | ☐ | ☐ | ● | ☐ |
| | Global hub and spokes(제약) | ☐ | ☐ | ☐ | ● |
| 서비스업 | | | | | |
| 분포된 저부가가치 산업 | 도소매, 교통, 물류 | ● | ☐ | ☐ | ○ |
| 집중된 고부가가치 산업 | 금융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 ☐ | ● | ☐ | ○ |

자료: J. Zhan et al. "Global value chain transformation to 2030: Overall dir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VOX, CEPR Policy Portal, 2020.8.13. (주: ○: 무관련, ●: 매우 높은 관련성)

- 향후 GVC의 전개 방향을 정리해보면
 - GVC 물리적 동선 단축과 생산분절 정도의 완화
 - 부가가치의 지역적 집중화 심화
 - 플랫폼 기반의 민첩한(가벼운) 통치구조 확대
 - global에서 regional 또는 sub-regional value chain으로의 이동
 - 서비스 value chain의 성장과 분절화
 - 회복력과 국가안보 고려 차원의 GVC 다변화 등
-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세계 총수출액의 16~26%가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
 - 여기서 이전이란 기존 GVC상의 입지로부터 reshoring, nearshoring,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offshoring 등을 모두 포함
- global innovation 범주에 속하는 value chain들(반도체, 통신장비,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장비)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
 - 이 가운데 제약 분야는 향후 5년간 GVC의 이동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
 - 반도체 GVC는 진입장벽과 대규모 투자비용 등 경제적 요인이 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충돌과 무역분쟁에 대응한 정부 개입에 의한 GVC 이동 가능성은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추정 (9~19%)

[표 2-7] 향후 5년간 업종별 value chain의 국경 이동 잠재력 추정치

| Value chain | | 지역 이동 가능성 | | 이동가능 수출액(연간) | | 총수출액 (2018, 10억달러) |
|-------------|------------|-----------|------------|---------------|-----------------------|--------------------------|
| | | 경제적 요인 | 비경제적 요인 | 범위 (10억달러) |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 |
| 글로벌혁신 | 화학 | ○ | ◐ | 86-172 | 5-11 | 1,584 |
| | 제약 | ◐ | ● | 236-377 | 38-60 | 626 |
| | 항공우주 | ◐ | ◐ | 82-110 | 25-33 | 333 |
| | 자동차 | ◐ | ◐ | 261-349 | 15-20 | 1,730 |
| | 운송장비 | ● | ◐ | 60-89 | 29-43 | 209 |
| | 전기장비 | ● | ◐ | 213-319 | 23-34 | 928 |
| | 기계장비 | ◐ | ◐ | 271-362 | 19-25 | 1,455 |
| | 컴퓨터·전자 | ● | ◐ | 165-247 | 23-35 | 708 |
| | 통신장비 | ◐ | ● | 227-363 | 34-54 | 673 |
| | 반도체 및 부품 | ○ | ● | 92-184 | 9-19 | 995 |
| | 의료기기 | ◐ | ● | 100-120 | 37-45 | 268 |
| 노동 집약 | 가구 | ● | ○ | 37-74 | 22-45 | 164 |
| | 섬유 | ● | ○ | 67-134 | 23-45 | 297 |
| | 의류 | ● | ◐ | 246-393 | 36-57 | 688 |
| 지역 가공 | 조립금속제품 | ● | ◐ | 94-141 | 21-32 | 440 |
| | 고무·플라스틱 | ● | ◐ | 97-145 | 20-30 | 488 |
| | 음식료 | ◐ | ○ | 63-125 | 5-11 | 1,149 |
| | 유리·시멘트·세라믹 | ◐ | ○ | 22-45 | 11-21 | 209 |
| 자원 집약 | 농업 | ◐ | ◐ | 112-149 | 20-26 | 568 |
| | 목제품 | ○ | ◐ | 8-17 | 5-11 | 155 |
| | 기초금속 | ○ | ◐ | 77-153 | 6-12 | 1,250 |
| | 석유제품 | ○ | ◐ | 212-423 | 9-18 | 2,414 |
| | 광업 | ◐ | ○ | 29-57 | 6-13 | 452 |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August 2020

주: 비경제적 요인은 필수상품 또는 국가안보나 국가경쟁력 측면의 정책적 고려 대상 상품

3. 해외 경제특구 현황

1) UNCTAD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의 정의와 동향

- UNCTAD는 경제특구를 “정부가 재정 및 규제 인센티브,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산업활동을 촉진하는 지역적으로 구분된 지역”으로 정의
 -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분리된 관세자유지역인 자유구역 (free zone)임
- UNCTAD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147개의 국가에 5,400여 개의 경제 특구가 존재함
 - 항구, 공항 또는 국경 지역에 조성되는 현대적 자유구역은 1960년대에 출현
 - 1980년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이 확산되며 다국적 기업들이 역외 생산(offshore production)을 증가시키면서 자유구역도 대폭 증가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들어 국제생산이 가속화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특구 급증
 - 최근 세계화와 국제생산의 감속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산업활동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경제특구, 새로운 유형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
 - UNCTAD에 따르면 5,400여 개의 경제특구 가운데 1,000개 이상은 2014년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분석
- UNCTAD 보고서는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전략적 초점(strategic focus), 규제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등을 지적
 - 경제특구는 투자유치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산업, 경제활동 또는 가치사슬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 국내법의 적용 배제를 수반하는 경제특구는 필연적으로 공공에 의하여 추진되지만, 특구의 발전, 소유권, 경영 등은 공공, 민간 또는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의 형태로 추진
 - 투자자를 위한 가치제안은 특구 투자자에 대한 혜택 패키지를 말하며, 여기에는 관세 및 조세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외에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인력, 공급기반, 비즈니스 편의,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등의 가용성 등을 포함
-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는 정책당국자들은 이상의 특구 성공요소들 외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과제들에 직면
-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제4차 산업혁명 확산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국제생산패턴의 변화 등

2) UNCTAD의 경제특구 유형

- UNCTAD보고서는 경제활동의 특화 정도, 설계 및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경제특구를 [표 2-8]과 같이 분류
- 물류 hub: 무역, 창고, 물류서비스 기능 중심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제특구가 여기에 해당
 - 복합활동 경제특구: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경제특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형
 - 산업특화 경제특구는 특정 섹터, 산업, GVC 활동에 특화된 특구로 발전된 신흥국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
 - 혁신 주도 특구: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특구로 첨단산업특구, 바이오특구, 생태특구 등이 있으며 아시아의 발전된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²⁾

- UNCTAD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경제특구의 유형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표 2-8]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의 기능적 분류

| 분류 기준 | 유형 | 내용 |
|----------|----------------|---|
| 특화 수준 | 물류 hub(FTZ) | - 상업, 창고 및 물류 서비스 - 환적, 재수출을 위한 무역촉진 서비스 - 산업지구 인접 또는 내부에 입지 |
| | 복합활동 경제특구 | - 일반적 산업발전(비특화) |
| | 특화 경제특구 | - 섹터에 초점(예: 서비스, 자원, 농업기반) - 산업에 초점(예: 자동차, 전자, 의류) - GVC활동에 초점(예: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call centers, R&D센터) |
| | 혁신 주도 경제특구 | -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에 초점(예: high-tech 지구, 바이오텍 지구, 생태지구) |
| 설계와 거버넌스 | 광범위한 구역 | - 대규모(시도수준), 통합 지구 또는 이보다 작은 면적의 군구단위(거주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 대규모 지구의 본래 목적은 경제개혁의 선도역할 |
| | OFDI/ODA 주도 구역 | - 자본수출경제와 저소득경제의 파트너십 하에 설립 |
| | 국경초월/지역개발 구역 | - 지역경제협력을 조장하고 규모의 경제이점 활용 |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2019 / 주: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science park는 별도의 규제체제(distinct regulatory regime)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UNCTAD보고서는 특구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표 2-9] 경제특구의 발전단계

| | 구역정책 목표 | 일반적인 구역 유형 |
|---------|---|--|
| 고소득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을 초월하는 복잡한 공급망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 제공 - 경제의 왜곡 회피에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hub 자유구역(산업 자유구역 배제) -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비하지 못한 science park 또는 구역과 연계되지 않는 인센티브를 통한 혁신 및 신산업혁명 목표 추구 |
| 중상위소득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경제로의 이행 촉진 - 새로운 high-tech 산업 유치 - 혁신능력 제고에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반 구역(예: R&D, high-tech, biotech) - 고부가가치산업 또는 고부가가치 사슬 분야 특화 구역 - 서비스구역(예: 금융서비스) |
| 중소득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고도화 촉진 - GVC 통합 및 고도화 촉진 - 기술확산 및 파급에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VC 집약산업 특화 구역 (예: 자동차, 전자) - 서비스구역(예: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call centers) |
| 저소득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 및 다각화 촉진 - 투자환경의 약점 상쇄 - 제한된 구역에서의 비즈니스 개혁 이행 및 선도 - 제한된 구역에서의 인프라 투자 집중 - 직접 고용 및 수출 지원에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활동 구역 - 가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원 기반 구역 |

자료: UNCTAD(2019),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수출지향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구를 조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와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방향으로 다각화하고 있다고 분석
 - 한국은 2000년 초반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시설 외에 거주지역, 고급 의료서비스, 여가 기회, 교육기관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를 실시
 - 싱가포르는 1960년대 복합활동 경제특구, 1970년대에는 석유정제활동 등에 특화된 형태의 경제특구를 도입하였고 2000년대에는 R&D 기능과 고부가가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혁신주도특구’를 통하여 지식집약 클러스터(knowledge-intensive clusters) 형성으로 정책 전환
 - 초기 물류기지로써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발전전략 추진
 - 이후 금융 Hub, 교육 Hub, 금융 및 IT Hub 등으로 유치전략 변화
- 중국은 1980년 초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2019년 현재 2,500여 개 이상의 경제특구가 존재(UNCTAD)
 - 최초의 경제특구는 1980년 지정된 동남연해 지역인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토우, 그리고 복건성의 하문 등 4개 도시들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
 - 경제특구 정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면서 1984년에는 연해지역 14개 거점 도시로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내륙지역으로 경제특구를 확대
 - 2010년 이후 최초 4개 특구의 범위를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경제특구인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s) 도입
 -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실시 중인 개방·혁신 시범 조치는 정부기능 전환, 투자 개방,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 금융, 지역개발 등 대략 6개 분야

- 2010년 이후의 특구 정책은 전통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정책을 포함하는 경제자유화에 초점(예: 외국인 투자 대상업종과 관련 negative list 접근방식 채택)
-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들은 핵심 산업의 전략적 변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UAE가 대표적인 국가
 - 최초의 자유지구(Free Zone)는 1985년 Jebel Ali Port에 설립되었는데, 인구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항만지역에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물류 Hub 조성 목표
 - Jebel Ali Port 자유지구의 성공 이후 많은 자유지구에 UAE에 설치되었으며 대부분 재수출(re-export) Hub 기능
 - 2000년에는 테크놀로지, 전자상거래, 미디어에 특화된 최초의 비무역 자유지구(non-trade free zone)가 설치되어 IT 관련 서비스 분야의 투자유치를 목표
 - 이후 다른 분야에 특화된 free zone들이 연이어 설치: Dubai Internet City, Dubai Media City, Knowledge Village, 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 Dubai Health Care City 등

[표 2-10]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분야별 추진 내용

| 분야 | 실시 내용 | 시험구별 적용 |
|---------|--|----------------------------|
| 정부기능 전환 | 행정 간소화, 분권화, 감독 절차 효율화, 행정 전산화 및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 등 | 상하이 조치를 다른 시험구에 적용 |
| 투자 개방 |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실시 - 네거티브 리스트 | 중앙에서 개방리스트 일괄 공포, 시험구 별 실시 |
| 무역자유화 | 보세가공무역 실시, 무역제도 개선 - 무역창구 단일화, 안전관리 제고, 전산화, 편리화 등의 무역 편리화와 제도 국제화 조치 선도 실시 | 관세 혜택 일괄 적용, 기타 조치 개별 실시 |
| 서비스무역 | 서비스업 개방, 서비스무역 육성 - 서비스 개방: 금융, 관광, 교육, 위생 등 개방 확대 - 서비스무역 육성: 무역투자 개방 및 편리화, FTZ 개발에 수반되는 서비스무역 발굴 및 육성 • 서비스무역 플랫폼,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기구, 서비스 아웃소싱, 보세전시센터, 문화상품 (예술품) 교역시장 등 | 일률적 개방 추진, 개발은 지역특화 추진 |
| 금융 | 금융업 개방, 창투기금 운용, 지불서비스, 본외폐 통합구조관리 방안 모색, 외환 시장화, 외환송금, 금융임대업 육성, 지역성 금융서비스센터 설치, 결산 편리화 모델 모색 등 다양한 금융 개방 및 혁신 방안 모색추진 | 개방화시장화 확대는 공동, 세부 조치는 다양 |
| 지역개발 | 입지 고려한 시험구-지역개발 연계 발전 추진 - 예: 상하이(일대일로), 광둥자유무역시험구(주장 삼각주) 등 | 각 시험구 입지를 감안, 지역 특화형 추진 |

자료: KOTRA,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 Global Market Report, 2019

제2절 관련정책 및 계획 등

1.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법률상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비전·목표 및 발전 방향, 개발·외국인 투자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근거한 차별화 방안 등을 포함
 - 2013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 기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경제자유구역 2.0 등의 과제를 추진
- 경제자유구역은 물리적 공간의 조성 및 외자 유치, 혁신생태계 기반의 거점화,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0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최초 지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물리적 공간조성, 외자 유치에 중점
 -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지역경제와의 산업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중점
 -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GVC 재편, 탄소중립 이행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환경 대전환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은 개별 특구의 성과 창출을 뛰어 넘어 특구 간 연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의 혁신성장

공간조성을 목표로 설정

-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변화는 정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2013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법령 개정 및 외국인 투자의 전진 기지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함
- 2017년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활성화방안 및 경제자유구역 2.0 등의 세부 계획을 제시함
 - 경제자유구역의 작동 체계는 혁신생태계이며,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지역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의 완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며, 지역산업 육성을 토대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개별 경제자유구역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

1.1) 추진 배경

- 경제자유구역 도입 10년을 맞아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내외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을 재정립함
 - 체계적·효율적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 가능하도록 자원 배분 및 정책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역별 차별화 도모
-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역주민 등 정책수요자에게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 가능성과 투자유치 정책의 방향 제시
- 그동안 발전 비전의 부재, 구역별 차별화 미흡, 일부 구역의 개발 지연,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을 제시

1.2) 비전과 전략

- (운영방향)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발전방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 등을 지향함
- (비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함
 -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특구로서 미래 성장의 전초기지 및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
 - 글로벌 시장에서 제고된 한국경제의 위상을 활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시
 -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이라는 당초 비전을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의 개발 및 성장산업 확보 욕구도 충족
- (목표) 2022년까지 명실상부한 최상위 경제특구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육성함
 - (개발사업 진행률) 2022년까지 모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완료
 - (외국인투자 유치) 2013~2022년간 총 200억 달러 달성(신고기준)

[표 2-1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구 분 | 2003~2012 | 2013 | 2016 | 2019 | 2022 | 소계 (2013~ 2022) | 누계 |
|------|-----------|------|-------|-------|-------|-----------------------|--------|
| 합계 | 67.9 | 30.7 | 20.68 | 19.98 | 28.03 | 200.42 | 268.52 |
| 인천 | 40 | 20 | 7.3 | 7.3 | 12 | 74 | 114 |
| 부산진해 | 12 | 2.5 | 3.4 | 3.4 | 4.5 | 36.5 | 48.5 |
| 광양만 | 8.5 | 2.5 | 3.0 | 1.5 | 1.5 | 16.5 | 25 |
| 대구경북 | 1.0 | 1.3 | 1 | 1 | 1.4 | 9.9 | 10.9 |
| 황해 | - | 0.2 | 0.2 | 0.2 | 0.3 | 2.1 | 2.2 |
| 새만금 | 6.2 | 1.8 | 2.8 | 2.8 | 3.2 | 26.1 | 32.3 |
| 동해안 | - | 0.2 | 0.5 | 1.0 | 2.0 | 8.9 | 8.9 |
| 충북 | - | 2.2 | 2.48 | 2.78 | 3.13 | 26.42 | 26.42 |

* '13~'22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 예상 (자료: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

1.3) 주요 추진 과제

-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개발지구 최적화, 개발 규제 혁신 및 절차 간소화, 개발지원 확대 및 자원 다원화
-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외투기업 경영 여건 개선, 외국인투자유치 규제 완화
-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인센티브 개선 및 탄력적 운영, 외국인투자 유치역량 제고, 전략적인 외투 유치 활동 강화
-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관련 특구와의 연계 강화, 경자구역별 차별화,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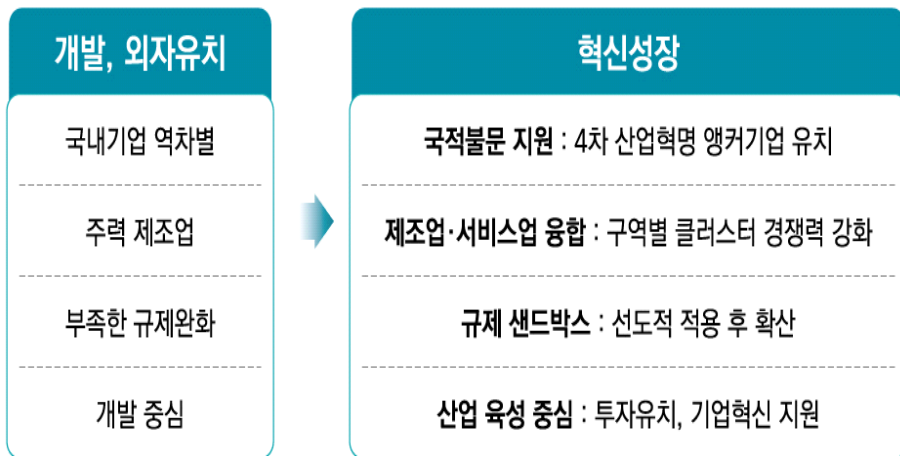
2)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

2.1) 추진 배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목표 및 발전방향, 개발·외국인 투자유치·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근거한 차별화 방안이 필요
- 국적불문 투자 지원, 신산업·서비스 규제혁신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경제자유구역 비전 및 목표 전환 필요
-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법령상 근거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2.2) 비전과 전략

[그림 2-6]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운영 방향



- (운영방향)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
-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개념 재정립
 - 해외 각국이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국내외 혁신형기업 비즈니스 거점’
 - 기존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취지를 복원하여 우수 인재가 모이는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 그간 경쟁력을 갖춰온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추진체계 등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목표) 2027년까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 국내기업 투자: (‘13-’17) 19.7조 원 → (‘18-’27) 64조 원
 - 외국인투자 유치: (‘13-’17) 92.4억 달러 → (‘18-’27) 152억 달러
 - 지역 일자리 창출: (‘17) 13만 개 → (‘27) 27만 개

2.3) 주요 추진 과제

-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중점유치업종 재편, 규제특례 활성화, 신산업 투자지원 강화
- (혁신생태계 구축) 교육·연구기관 등 혁신 인프라 강화, 산학연 협력 강화,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 (글로벌 특구로서 경쟁력 강화) 총량관리제 도입,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해외특구 협력 강화

- (추진체계 선진화) 경자구역 거버넌스 강화, 행정체계 기능 전환, 성과평가 제도 개선

3)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2023)

- 세계 경제의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 강화 등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의 거점으로 서 작동하는 완성체 구현 필요성 제기
- (비전)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플랫폼 기반의 혁신성장 도모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국내외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

3.1) 주요 추진 과제

- (핵심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 및 기술협력 촉진, 교육연구기관 및 서비스산업 육성 인프라 강화, 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협력 지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 (미래형 스마트그린 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개발(Living Lab), 스마트그린화에 부합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 확대, 정주 및 산업을 위한 스마트그린 경제자유구역 조성, 기업-에너지-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혁신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신산업정책 활용 투자유치, 산업정책 연계 스마트쇼어링 플랫폼, 투자자 맞춤형 규제 개선
- (협력 거버넌스 강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역할과 기능 강화, 경자청 자율성 강화 (개발, 유치, 육성 권한 이양), 경제자유구역 행정 시스템 효율성 개선, 경자청 인력 전문성 강화

4) 종합 및 향후 전망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모델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음.
-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화 도모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별 특성화 및 차별화 방안 등을 모색함.
 - 특히, 기존 지역발전전략 및 특화도 등을 감안하여 구역별 3개 이내의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구역별 차별화 및 산업클러스터 특성화를 계획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대외환경 변화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혁신, 규제 개혁의 활성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 환경의 변화로는 산업의 혁신성장 추진,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구조 혁신 가속화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함.
 - 경제자유구역의 복합적 기능을 활용한 혁신성장 역량의 선순환 생태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전략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글로벌 경제환경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갖는 플랫폼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비전과 전략을 검토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강화, 국내외 기업 및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
- 그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연관 계획과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과 개발, 혁신생태계 기반의 신산업 육성 등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업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선정 등 경제자유구역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

- 지속가능한 성장,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이행, GVC 재편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자유구역은 대내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개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지역산업과 협력하고 광역적 연계(혁신 거점 간 네트워크의 확장과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혁신생태계 구축이 요구됨.

제3절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 및 과제

1.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비전

“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와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창출 선도 ”

- 플랫폼 경제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
 - 지역혁신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여 초광역경제권 기반의 수요+공급+혁신 선순환체계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강력한 뿌리내림 도모
 -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기능(Global Gateway)을 통해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선도거점으로 자리매김(In & Out Bound 글로벌 네트워크)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청, 거점 및 공유대학이 연계하여 FEZ 혁신성장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경제자유구역 발전의 총괄 컨트롤 타워)

2.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

1) 전략 1: 혁신생태계 허브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 핵심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성장 창업, 스마트시티, 혁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생태계 허브로 발전시키고 초광역 지역경제권과의 긴밀한 연계 강화

2.2) 전략 2: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Global Gateway)

- 혁신생태계 글로벌 교류협력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미래산업 육성 규제 완화와 테스트베드 확충, 글로벌 투자 유치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추진

2.3) 전략 3: 경제자유구역(FEZ)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거점(공유) 대학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추진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획, 사업발굴 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 에너지 순환경제, 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기반의 핵심전략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2.4) 전략 4: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발전기반 정비

- 경제자유구역 지구개발 활성화, 구역 지정 확대 및 조정, 자율적 사업기획·발굴 시스템 구축, 시장 연계형 기업지원 등을 통해 지구 개발 활성화 및 효율적 거버넌스 정비

[그림 2-7]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 김선배 외, 2022, <경제자유구역 미래 발전 전략과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용역과제

[그림 2-8]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

“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와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창출 선도 ”



자료: 김선배 외, 2022, <경제자유구역 미래 발전 전략과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운영과제

3.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강화 전략

1) 핵심전략산업 선정

-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와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산업발전성, 지역특화 기여도, 발전역량 강화 가능성, 지역특화산업 여부를 고려해 선정
 - 정량적 분석을 통한 핵심전략산업 후보군을 도출 및 정성적 검토
 - 산업군 구분, 산업코드 선별·추가 후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생태계 연계구조 바탕의 성장경로를 확인·반영하는 컨설팅 방식의 사전검토 실시

2)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산학융합 지구’ 지정 및 ‘산학융합 플라자’ 건립

- 혁신생태계와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유치 및 해외 시장 개발의 거점 시설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있는 입지,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산업간 상호 연계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생태계 거점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신산업 육성 및 혁신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경자구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 중에서 주변 지역 대학 및 혁신기관의 참여를 이끌기에 유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 지정 필요성 검토
- 산업부 ‘산학융합지구사업’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가칭 ‘글로벌 산학융합 플라자(공용장비, 인력양성, R&D, 시장정보, 네트워크 교류 협력 기능)’ 건립

3)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주거, 산단 인프라 확충

- 국내외 청년들이 모이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청년창업공간 조성
- 스마트 기술과 그린 인프라를 결합한 매력있는 정주·생산 여건으로서 스마트 시티 건설
- 융복합과 협력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4.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전략

1) 해외 연계형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육성

- 그간 미미했던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육성 기능의 확대를 위해 대규모 부지를 규제 샌드박스 활용 거점으로 특성화 발전 필요
-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수요시장 연계 및 시장 창출 성과의 미흡한 부분을 극복해야 할 정책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대응
- 해외 사례 벤치마크를 통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 해외 연계형 사업 발굴(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규제개선 완료과제(132건)*를 대상으로 해외 연계형 사업 발굴)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해외진출 지원

2) 물류신산업 육성 플랫폼 조성

- 물류산업의 융복합, 지능형, 무인화 등 스마트 물류로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세계 시장 변화에 대응할 필요

- 수출입 물류 및 단순 서비스 중심 물류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 물류산업 혁신센터 구축 : 운송, 포장, 보관, 하역 등의 스마트화·첨단화를 위한 현장 적용형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필요
- 스마트물류 관련 신기술·시제품 실증 지원을 위한 물류 신사업 통합 테스트베드 기능 구축
- 물류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3) 글로벌 팩토리 대학 경제자유구역

- 글로벌 창업 플랫폼 ‘팩토리 대학 경제자유구역’ 구축 및 운영
 - 경제자유구역에서 글로벌 앵커기업이 국내외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 및 공간적 분업에 기반하여 다양한 플랫폼 스타트업 운영 지원(독일의 머크社)

4) ODA 러닝 팩토리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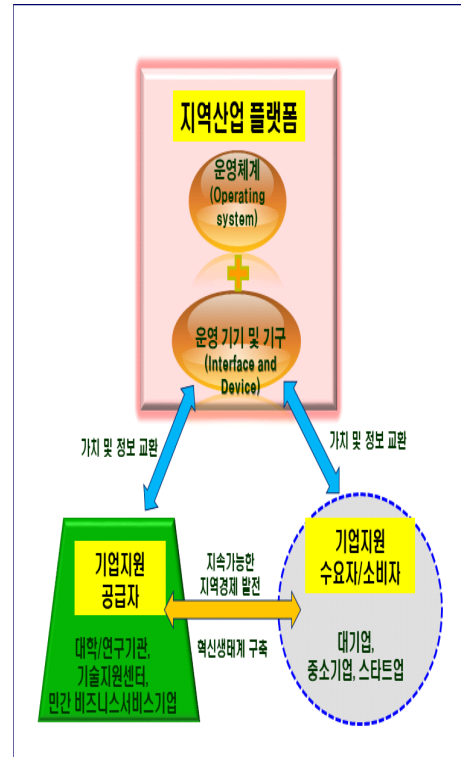
- 국내 유입되는 개도국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고급 인력 양성
-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위해 차별화된 혁신 교육 추진 체계 및 공간 마련
- ODA 사업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개도국 대학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교육훈련체계 구축
 - 개도국의 고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도국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ODA 수원국의 직업기술 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강화

5. FEZ 혁신성장 플랫폼 전략

1) FEZ 혁신성장 플랫폼 이란

- 플랫폼이란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제도, 시설, 조직 등의 결합체를 의미
- 지역산업 플랫폼의 일반적 구조
 - 플랫폼(운영체제, 운영기기 및 기구), 기업지원 공급자, 기업지원 수요자
 - 플랫폼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법, 제도, 지원 프로그램 설계, 평가 모니터링)

[그림 2-9] 지역산업 플랫폼 구조



2) 대학 연계 경제자유구역의 특허박스 및 스케일박스 지정

- 대학 연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등의 지식 재산들의 사업화 이후 발생한 소득들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특허박스' 운영
- 규제샌드박스의 연장선으로, 핀테크 기업이 금융 규제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박스 제도 도입(영국 금융감독청)

3) 경제자유구역 혁신환경 지표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주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환경을 IMD와 WB doing business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혁신
 - 창업(Starting a Business) 항목의 평가가 다른 항목보다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어 이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에서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
 -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지표 개선 : 건축 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비용 및 행정시스템 효율성 등 평가하는 지표

4) 혁신지수 상향을 통한 기업 유치 확대

- Bloomberg가 매년 발표하는 Innovation Index의 구성요인을 분석, 낮게 평가 받은 요소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강화
- 경제자유구역은 블룸버그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요소를 혁신의 원동력으로 적극적 활용해야하며, 이런 요소를 잘 갖춘 국내 지역과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5) 경제자유구역 산업박람회(FEZ EXPO) 개최 기획

-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생태계 기반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 필요
- 국제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정기적인 교류 협력의 장 활성화가 선결 요건에 해당
- 국내외 경제자유구역의 교류 협력과 시장 확대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산업 박람회 개최를 기획
 - 국내에서 해외로 단계별 확대

- 경제자유구역 주도의 Summit Conference 개최
 - 동 Conference는 FEZ 주관 산업박람회기간에 개최하고 특정 산업 분야의 글로벌 CEO를 초청, FEZ가 동 산업에 대표적 지식 허브임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육성전략 등을 선언하는 FEZ 국제세미나 개최

6) 글로벌 Gateway로서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 다변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Gateway 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
 - 글로벌 Gateway 기능은 해외 투자 유치(In-Bound형)와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Out-Bound형)로 구분
-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Out-Bound형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이 시급
- 특정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해외 대륙단위 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정보 기능 강화(KOTRA와 연계하여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의 In & Out bound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6.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발전 기반 정비

1) EDP 기반의 자율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구성원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상시적·자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 유럽의 스마트 특성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적 발견 프로세스(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 EDP) 도입을 통해 상시적·자율적 산학연관 사업기획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EDP 협의체 운영 및 사전 사업평가제 도입이 필요
- 중앙과 지역 EDP 플랫폼의 파트너십 운영
- EDP 평가보고서, 예비 사업타당성 평가 및 사업선정 기준 마련

2)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장 연계형 기업지원 (지원방안)

- 기업 중심의 혁신주체 협업 통한 선순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 연계형 기업지원 체계 필요
 - 네트워크 허브 기능 중심의 수요맞춤형 사업추진 및 전략기획
 - 중개 기관의 에이전시 역할 수행 및 신기술기업 육성
 - 경제자유구역 내 차별화·맞춤형 통합플랫폼 구축

3) 경제자유구역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체계 도입

- 경제자유구역의 Out-Bound 중심 글로벌화 지원 제도 필요
 -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단위 GVC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의 패키지화 추진

4)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 초광역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역할 극대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제 3 장 경제자유구역 및 사례 검토

제1절 경제자유구역 현황

제2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제3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제4절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

제5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역 분석

제6절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분석

제7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향 시사점

제1절 경제자유구역 현황

1. 지정현황

1) 경제자유구역 개념

- 국내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K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의미함(경제자유구역법 제2조 제1호)
-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형식을 취하며, 15~20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 2022년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인천(IFEZ)을 시작으로 부산·진해(BJFEZ), 광양만권(GFEZ), 경기(GGFEZ), 대구·경북(DGFEZ), 충북(CBFEZ), 동해안권(EFEZ), 광주(GJFEZ), 울산(UFEZ)을 포함하여 총 9개 지역을 운영 중임
-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에 지정되었다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새만금·군산은 2008년에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새만금관리청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해제되었음

【표 3-1】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 구분 | 개청일 | 위치 | 면적 | 공항·항만 | 지도상 위치 |
|------|------------|--------------------------|----------------------|----------------|--------|
| 인천 | 2003.08.11 | 연수구·중구·서구 | 122.4km ² | 인천공항 인천항 | |
| 부산진해 | 2003.10.30 |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 59.80km ² | 김해공항 부산신항 | |
| 광양만권 | 2003.10.30 | 전남(여수·순천·광양), 경남(하동군) | 69.57km ² | 광양항 여수공항 | |
| 대구경북 | 2008.05.06 | 대구, 경북 (경산·영천·포항) | 18.45km ² | 대구공항 포항영일만항 | |
| 경기 | 2008.07.22 | 경기(평택) | 5.24km ² | 평택항 당진항 | |
| 동해안권 | 2013.02.14 | 강원(강릉·동해) | 4.42km ² | 양양국제공항 동해항 | |
| 충북 | 2013.02.14 | 충북(청주) | 4.96km ² | 청주국제공항 | |
| 울산 | 2021.01.14 | 울산(남구·북구·울주구) | 4.7km ² | 울산공항 울산항 | |
| 광주 | 2021.01.27 | 광주(남구·북구·광산구) | 4.37km ² | 광주공항 | |

〈자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vez.go.kr)

2. 운영현황

1) 사업절차

- 경제자유구역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지정 및 고시하고, 지구 개발과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외국 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 유치를 진행함
 - 여기서 지구개발 절차는 사업진행자 선정, 실시계획 수립, 보상 및 착공으로 이루어짐

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인센티브

2.1) 조세감면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표 3-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조세 감면

| 구분 | | 감면내용 | 감면요건 |
|-----------------|-----|----------------------------------|--|
| 1)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 | | | |
| 국세 | 관세 | 5년간 100% 면제 | 수입자본재에 한함 |
| 지방세 |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 |
| |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 |
| 2) 개발사업 시행자 | | | |
| 국세 | 관세 | 5년간 100% 면제 | 수입자본재에 한함 |
| 지방세 |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
| |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

<자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fez.go.kr)

2.2) 경영활동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입지활동을 지원함

(1) 현금지원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현금지원이 가능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센터 등 투자 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 내 자금 지원

(2) 기반시설 지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 국비 5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3) 외국교육 연구기관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을 지원
 - 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4) 임대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5)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50~100% 감면

2.3) 각종규제 완화

-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함.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자유롭게 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1) 노동규제 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 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 기간 연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배제

(3) 외환거래 자유

- 2만 달러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이 가능함

2.4) 행정절차지원

(1)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는 때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 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 각종 계획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2) 각종 인가·허가 등의 의제

-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 관리법,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2.5) 원스톱서비스

-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정착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음
 -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파트너 물색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음

(1) 비즈니스 컨설팅

- 투자 기회 발굴 지원, 유망 투자 파트너 탐색 지원, 투자 입지 평가

(2) 정보 제공 및 자문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활용방안 자문, 법률, 회계 세무 상담, 경제자유구역 관련 투자정보 제공

(3) 행정지원 서비스

- 고충 상시 지원, 관련 행정 당국 및 기관과의 업무 조율, 외국인 투자 민원업무 대행

2.6) 생활환경

(1) 세계 우수 대학 분교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 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기업인과 기업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의 분교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여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2)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수준의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호텔, 콘도, 온천 등이 결합된 외국의료기관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주거지역과 인접한 중소형 병원과 약국이 곳곳에 있고, 외국인 진료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없는 종합병원이 전국에 존재.

(3) 첨단 업무시설,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

-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대규모 테마파크, 해양관광시설, 대형 쇼핑몰 및 골프장 등 각종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고 있음

(4) 교육, 의료 등 생활 여건 개선 지원

- 교육: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 제공
- 의료: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기타: 외국인 전용(5억 달러 이상) 카지노업 가능, 유선방송의 외국 방송 채널 확대 구성·운용

3) 입주 기업 현황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체 수는 2020년 통계청 집계 총 6,778개 사로 나타남

[표 3-3]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체 수(2020년)

| 인천 | 부산진해 | 광양만권 | 대구경북 | 경기 | 동해안권 | 충북 | 울산 | 광주 |
|-------|----------|------|------|----|------|----|-----|----|
| 3,365 | 1,619 | 703 | 761 | 12 | 3 | 89 | 144 | 82 |
| 전체 | 6,778개 사 | |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2020년), 울산, 광주는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업체 수.

3. 경제자유구역 구역별 혁신성장사업 추진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 계획)에서 제시한 개발 중심 → 혁신성장으로 정책 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구역별로 혁신성장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2019년 1월)¹⁾

1) 인천경제자유구역

-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을 골자로 함
 -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신청한 마크로젠(주)을 중심으로 예측용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 경기경제자유구역

- 초소형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
 - 전기자동차·전기버스 제조, R&D센터 조성, 평택시와 공조하여 자동차 전후방산(제조, 개조, 수리 등) 통합 유치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
 - 4차산업 육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¹⁾ 산업통상자원부, 7개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사업 추진방안 발표, 2019.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탄소자원화 실증단지 구축을 목표
 - 광양만권에서 대량 발생하는 고순도 탄소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위한 단지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

5) 충북경제자유구역

- 오송 바이오밸리 구축을 목표
 - 오송 바이오폴리스 및 바이오메디컬지구 내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및 비즈니스 활동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계획

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 옥계지구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
 - 해외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가공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 유치
 - 국내 연관기업 입주 등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

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글로벌 첨단 물류 단지 조성을 목표
 - 두동지구 및 서측배후부지에 고부가가치 스마트물류와 연계한 기업 유치

제2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및 경쟁력

1) 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2003년 개청한 이래로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3차까지 시행하였으며, 2022년 현재 중점 유치 업종은 관광·레저, 의료, 유통물류, 첨단산업, 금융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음
 - IFEZ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끼고 있으며 전 세계 물류·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IFEZ는 2030년까지 계획에서 계획인구 약 54만 명과 총사업비 약 81조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면적은 약 122km²으로 여의도의 4배 규모에 해당
 - IFEZ의 개발 방향은 송도는 비즈니스, IT·BT이며, 영종은 물류, 관광, 청라는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
 - 대표입주기업은 셀트리온헬스케어(한국; 바이오의약품 제조, 연구), 한국지엠(주)(미국; CTT 및 R&D), 엠코테크놀러지(주)(미국;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생산 시설 및 R&D), CJ Systems(주)(한국; 글로벌 R&D센터)임

○ 각 지구별 특성과 개발 추진 방향

- 송도지구(53.36km²)

- 사업비 21조 5,442억 원, 사업기간 2003년~2030년, 계획인구 265,611명
- 바이오산업: 국제병원, 바이오산업·연구시설이 집적된 Bio Front 조성
- 교육·연구: 세계명문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이 집적되어 융합기술형 산업혁신 클러스터 기반 마련
- 문화·관광: 아트센터, Rock 및 대중음악 공연장과 수변레저시설 조성으로 고품격 관광단지 조성
- MICE 산업: 컨벤시아 2단계 구축, MICE 복합지구 조성 및 국제지구와 연계한 특화된 글로벌 컨벤션 육성

- 영종도시(51.26km²)

- 사업비 12조 3,898억 원, 사업기간 2003년~2027년, 계획인구 183,762명
- 복합관광: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한국형 복합리조트 및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 레저 등 복합관광단지 개발
- 항공물류: 인천공항을 국제화물의 허브 공항이 되도록 집중지원
- 항공산업: 항공 관련 교육기관 및 제조·연구시설이 집적된 항공산업 클러스터

- 청라지구(17.81km²)

- 사업비 6조5,965억 원, 사업기간 2003년~2021년, 계획인구 98,060명
- 국제업무: 금융보험 등 테마 산업 선정, 관련 업무시설유치(여의도와의 광역 금융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역할 분담(Back Office 기능))
- 로봇산업: 로봇 R&D 산업, 연구단지, 로봇테마파크 조성
- 제조부품: IHP, 한국GM 부지 등을 중심으로 제조부품 연구·생산단지 조성
- 관광유통: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쇼핑유통관광단지 조성

[그림 3-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요와 개발지역



<자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fez.go.kr)

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쟁력

- IFEZ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교통의 중심 지이며,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음

(1) 국제기구와 세계적 기업이 선택한 비즈니스 허브

- IFEZ 내에 세계은행, GCF(녹색기후기금),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13개 국제기구가 있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잉, BMW, GM 등 15개국 75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2) 물류·교통의 중심지

- IFEZ 인근에는 10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에 선정된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 공항이 존재하며, 1만 2,000TEU 급 초대형 화물선 입항 가능한 최첨단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추가로 1시간 내 대한민국 서울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

(3)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도시

- IFEZ는 항공편으로 4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인천공항 인근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147개 도시를 비행기로 3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음

(4) 삶의 가치를 높이는 최적의 생활환경

- IFEZ는 환경과의 공존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유비쿼터스 도시 (U-city)임
- 미국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 등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구역 내에 갖춘.
- 다양한 문화축제와 관광레저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2.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음²⁾
- 투자유치·혁신성장 등에서 IFEZ가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우리나라 FEZ를 선도
- IFEZ는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음
 -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
 - 청라국제도시: 수소·로봇과 미래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영종국제도시: 항공·물류,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략산업 육성
- 특히 인천 송도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을 유치
-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인 다나허(싸이티바), 머크, 싸토리우스 등의 기업 들을 유치
 - 단일도시 기준 세계 1위 의약 생산시설 및 안정적 공급망 확충이라는 성과를 달성
 -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이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삼성바이오에피스(신사옥 입주), 동아 ST바이오 의약연구소를 유치
 - 신산업 기반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

²⁾ 산업통상자원부(2020), 7개 경제자유구역,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제3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운영현황 및 경쟁력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현황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은 2003년 개청한 이래로 2023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3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위치는 부산(강서구)과 경남(창원시)
- 2022년 현재 BJFEZ 중점 유치 업종: 첨단부품소재제조업(자동차, 해양플랜트부품, 산업기계·부품 등), 항만물류, 정보통신, R&D, 관광레저, 문화교육
- BJFEZ는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을 끼고 있으며 전 세계 물류·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BJFEZ는 신항만지구, 명지지역, 지사지역, 웅동지역 및 두동지역으로 구성
2030년까지 계획에서 계획인구 약 20만 명과 총사업비 약 17조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면적은 59.80km²임
- BJFEZ의 지구별 개발 방향
 - 신항만지구: 물류
 - 명지지역: 국제업무지역
 - 웅동지역: 복합레저 및 배후 물류단지
 - 지사지역: 자동차 등 중공업
 - 두동지역: 연구개발
 - 대표입주기업은 월로펌프(독일; 산업용펌프), 한국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주)

(일본; 자동차엔진 부품제조), (주)회가내스(스웨덴; 혼합용 금속분말 제조), LS메탈(한국; 강관제조), LG CNS DataCenter(한국; 정보서비스업)

○ 각 지구별 특성과 개발 추진 방향

- 신항만지구(11.11km²)

- 사업비 53,126억 원 규모, 사업기간 2000년~2025년, 계획인구 약 1만 9천 명
- 동북아중심항만(Mega Hub Port)과 물류거점항만 건설
- 항만기능 지원 첨단복합 물류기지 및 배후도시 건설
- 선진 해양 도시로 도약을 위한 항만 물류산업 육성

- 명지지역(12.79km²)

- 사업비 50,977억 원 규모, 사업기간 1993년~2023년, 수용인구 약 11만명
- 국제업무거점 공간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글로벌 수준의 주거, 교육 등 정주환경 제공 등 주공간 확보
- 대규모 중앙공원, 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웅동지역(9.77km²)

- 사업비 23,600억 원 규모, 사업기간 1988년~2023년, 계획인구 약 1만 8천명
-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으로 고급 여가·휴양 서비스 제공
- 신항 배후물류단지 조성으로 물류 유통지구 구축
-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 지사지역(13.06km²)

- 사업비 40,911억 원 규모, 사업기간 1991년~2022년, 계획인구 약 3만 명
- 자동차부품, 기계, 조선기자재 및 첨단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 독일프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유체역학연구소, 미음 R&D연구특구 등 첨단 연구시설의 중심
- 두동지역(4.34km²)
 - 사업비 7,055억 원 규모, 사업기간 1988년~2023년, 계획인구 약 2만 2천 명
 - 산학협력 확대 및 R&D 기능 강화
 - 주거단지 개발로 단지 내 종사자 편의 도모
 - 도심형 레저공간 조성

[그림 3-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요와 개발지역



<자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feze.go.kr)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경쟁력

- BJFEZ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규모
- 부산항은 환적화물 세계 2위 규모로서 국내 화물 물동량의 75%를 담당
-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이 집중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이면서, 전기차·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산업의 핵심 지역

□ 글로벌 물류 허브

- 부산진해지역의 항만은 주당 미주 124회, 유럽 32회, 일본 84회, 중국 78회, 동남아 148회 등 전 세계 모든 주요 항만과 연결되는 최적의 물류 중심
 -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Sea & Air (복합물류) 체계를 기 구축
 - 세계 최대 2만 4천 TEU 급 선박 하역과 365일 이용가능한 항만 운영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1위 조선산업의 약 90%가 소재
- 완성차 업체인 르노삼성과 현대자동차·GM 부품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세계 7위 자동차 산업의 메카
- 코렌스EM을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벨류체인 구축과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집적 등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

□ 자연경관과 휴양·레저 시설이 완비된 도시

- 한-아세안 정상회의, 국제반부패회의, 한-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와 이벤트의 중심지

- 부산국제영화제·바다축제·불꽃축제·국제모터쇼·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 등 연중 개최
- 요트·서핑·패들보드·윈드서핑·카약 등 수상레포츠 인프라 기 구축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성과³⁾

- BJFEZ는 2019년과 2021년에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을 정도로 경제자유구역 2대 평가 부문인 전략평가와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역임⁴⁾
 -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핵심전략산업 집적단지 육성을 위한 앵커 기업, R&D 센터 유치 등 특화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2021년 외국인 투자유치 2억 9,200만 달러 성과 달성
- 경제자유구역의 체질 개선과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
 -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술자문, 교육지원 등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기반을 구축
 - 업종 특례지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앵커기업 유치 및 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 글로벌 신산업을 육성·선도하고자 추진한 경자청의 다양한 정책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음
- 개발사업 분야에서 사업 지연지구에 대한 전년대비 개발사업 진척도 개선
 - 국제산업 물류지구와 옹동지구에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

³⁾ 경남데일리, 부산진해경제자청, '21년 경자구역평가 전국 최우수', 2022.7.27.

⁴⁾ 산업통상자원부(2020), 7개 경제자유구역,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제4절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

1. 경기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및 경쟁력

1) 경기경제자유구역 현황

-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은 2008년 개칭한 이래로 서해안경제벨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평택(포승, 현덕),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시흥(배곧) 개발 계획을 시행 중임
- 2022년 현재 중점 유치 업종은 첨단산업(자동차, IT, 기계, 화학, 물류)과 서비스산업(관광, 유통, 상업, 호텔)임
 - 평택 포승(BIX)지구: 첨단산업·물류·유통산업에 주력
 - 평택 현덕지구: 유통, 상업, 주거에 주력
 -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주력
- GGFEZ는 2027년까지 계획인구 약3만 명과 총사업비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면적은 약 5.24km²임
- 각 지구별 개발 추진 방향
 - 평택 포승(BIX)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첨단 클러스터 조성
 - 평택 현덕지구: 수소경제·스마트물류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의료·바이오 거점 조성
- GGFEZ의 대표입주기업은 삼성전자(전자, 반도체), LG 이노텍(소재부품), SONY (일본; 전기·전자), ENC Inc(미국; 물류), 미쓰비시모터스(일본; 자동차)

○ 각 지구별 특성과 개발 추진 방향

- 평택 포승 BIX(2,04km²)

- 사업비 7,702억 원 규모, 사업기간 2008년~2020년, 계획인구 3,482명
- 소재, 부품, 장비 및 연관산업 유치로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 전기차 관련 벤더기업 집중 유치 계획

- 현덕지구(2.23km²)

- 사업비 7,500억 원 규모, 사업기간 2008년~2021년, 수용인구 25,314명
- 국내 스마트물류 및 수소경제 중심지로 육성방안 기획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국내최대 자동차 수출입항인 평택항, LNG거점 등)

- 시흥배곧지구(0,88km²)

- 사업비 1조 6,681억 원 규모, 사업기간 2020년~2027년
-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의료·바이오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자율주행, 인공지능, 센서, 제어기술, 운영프로그램, 통신

[그림 3-3] 경기경제자유구역 개요와 개발지역



<자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fez.go.kr)

2) 경기경제자유구역 경쟁력

- GGFEZ는 국제 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대중국수출입 전진기지, 한중 비즈니스 밸리 조성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투자환경이 주요한 경쟁력

□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3M, Siemens, Sony, Bosch 등 약 3,35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음
- IT,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등 국내 지식기반 제조업의 40%가 입주

□ 대중국수출입 전진기지

- 중국의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해있고, 동남아, 중국 등의 주요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평택항(62선석)이 근거리에 있으며, 2030년까지 73선석으로 확대할 예정
- 자동차, 철강 등 전용부두 및 컨테이너선, 국제여객선을 수시 운항 중임

□ 한중 비즈니스 밸리 조성

- 중국자본 투자를 통한 상업, 관광, 의료, 주거 등 정주환경 조성으로 대중국 교류거점 역할을 수행
- 국제 비즈니스와 휴양·문화 복합시설을 제공

□ 우수한 접근성과 투자환경

- 고속도로와 고속철도(KTX)의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구축
- 동북아 주요 도시 2시간 내 접근가능한 인천국제공항 인접
- 수도권외 거대한 배후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

제5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역 분석

1.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 광명시 3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경기도 광명시 민선8기는 80대 시정과제⁵⁾의 일환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강소기업 유치(시정과제 75번)를 선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제시함
- 광명시 기업지원과와 신도시조성과의 주관하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및 3기 신도시 K-컨텐츠, 미래차 등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

2) 3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전략

- 광명시는 3기 신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 자족용지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광명시흥 신도시개발전략 수립
 - 글로벌 선도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 K컨텐츠·미래차 선도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연구개발 특구 등 추진
- 자율주행과 미래 자동차 거점으로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3기 신도시 글로벌 선도사업 조성, 3기 신도시에 10만 개 일자리 창출, 광명시를 서해안산업벨트의 신혁신성장 거점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⁵⁾ 광명시 민선8기 시정혁신기획단, 민선8기까지 8.0 광명시 지방정부 시정과제, 2022.

-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자율주행·미래차 기술선도 앵커기업 유치
- 기업유치홍보물(유치종목, 비전, 기업지원 등) 작성을 통한 국내외 기업유치 기초자료 활용
- 광명시가 국토부, LH, SH에 업종 선택과 자족용지 비율 제시
- 3기 신도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자족용지 20% 확보
- 미래차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2. 대전시·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 대전시·세종시 협업 경제공동체 형성

- 대전시와 세종시는 2021년 9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함⁶⁾
- 2022년 새로운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세종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임
 - 인접한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 전략
 - 대전에 입지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를 세종시 소재 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⁶⁾ 중도일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연기 왜?, 2022.01.04.

2)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기획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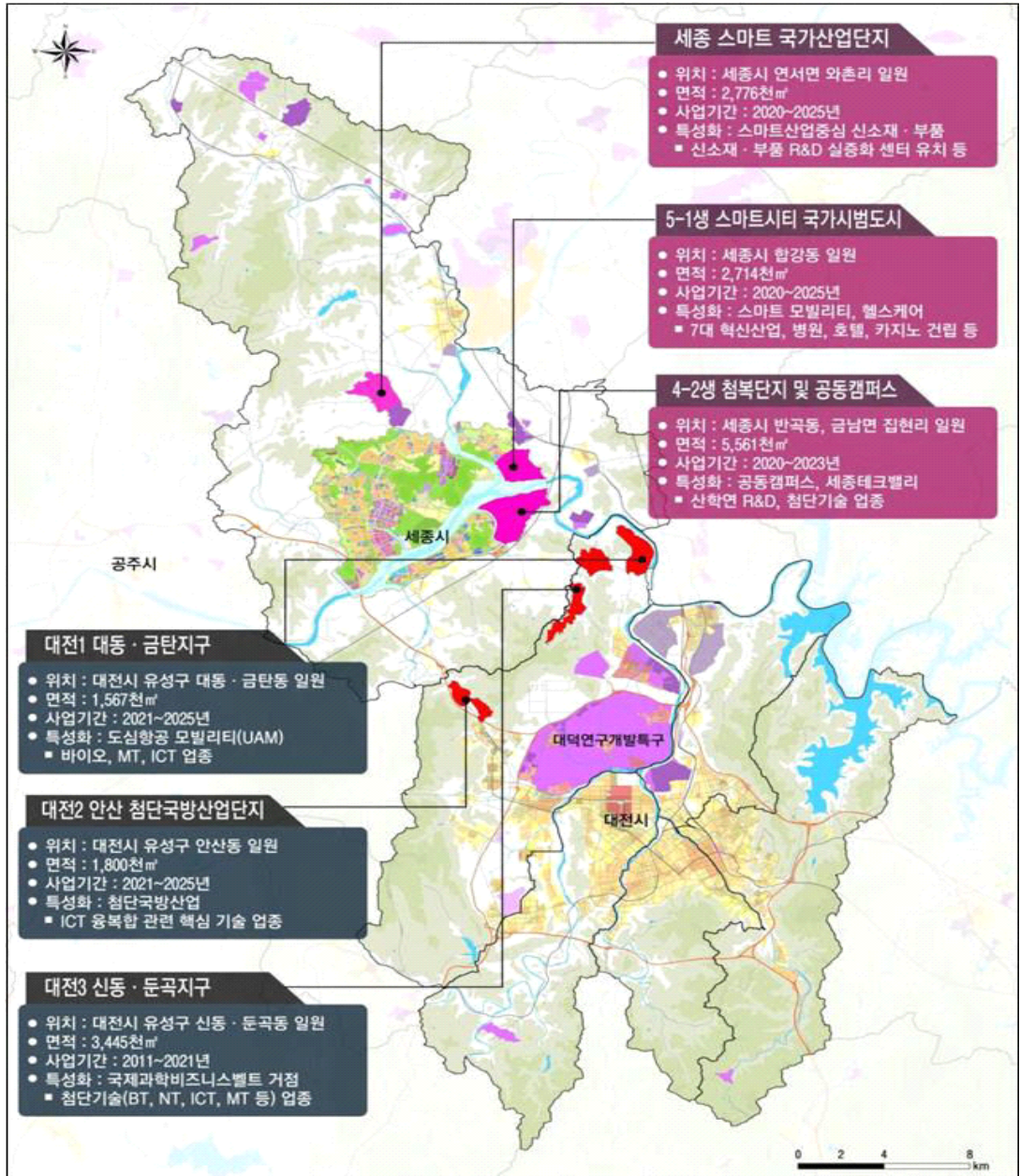
- 2022년 2월 열린 지역현안 해결 산학연관 토론회에서 공유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필요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⁷⁾
 - 경제생활 공동체: 대전과 세종은 교통, 문화,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합의 및 추진에 따라 광역권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
 - 경제·산업적 장점: 대덕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행정수도입지, 신산업육성의 연계성이 높음
 - 기업·산업간 긴밀한 가치사슬관계 형성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 기대

3)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기획 방향

- 대전·세종 공동 경제자유구역 위치는 대전 대동·금탄지구,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전 신동·둔곡지구, 세종시 연서면의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세종시 합강동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시 반곡동과 금남면의 첨복단지 및 공동캠퍼스 일대임

⁷⁾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2022.2.18.

[그림 3-4]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자료> 충청투데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2021.09.08.

제6절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 분석⁸⁾

1.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2019년) 개요

1) 개발 목표

-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주요 컨셉은 해양 혁신 도시
- 사업비 1조 3,092억 원 규모의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의 3대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시화호 중심의 해양 문화 관광 벨트 개발
 - 신재생 미래 에너지플랫폼(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
 - 6차 농업복합도시

2) 발전 방향 및 전략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 및 전략은 산업·문화·해양이 어우러진 인간중심의 도시이며, 각각 첨단산업 기반도시, 문화복지 중심도시, 녹색청정 해양 도시로 구체화
 - 첨단산업 기반도시: 경기테크노파크-시화 멀티테크노밸리-산학연관 협력 개념
 - 문화복지 중심도시: 국제마을 및 특수교육원 설립, 다문화 공동체와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연계, 의료 복지환경 조성
 - 녹색청정해양도시: 대기·수질·폐기물 하천 개선, 대중교통·자전거 도로 정비, 공원, 녹지, 친수공간 조성

⁸⁾ 경기연구원,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원인 진단 및 보완 방향 연구, 2021-89.

3) 주요 도입기능

- 상기 3대 발전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 대부지구에 다음과 같은 주요 도입 기능 계획을 구상
 - 해양문화산업지구 조성: 시화호 해양관광·레저 개발,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강화, 해양테마파크 및 문화쇼핑센터 건설
 -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연료전지 생산·연구, 로봇 제조기업 및 연구소
 -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개발: 태양광, 해수열에너지, 해양바이오, 풍력에너지
 - 신산업클러스터: 소재·부품, 장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배후지원기능 구축, 외국인 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 R&D: 도심에서 먼 교외형 R&D 기업단지 조성(기존 조성된 국내 R&D 기업 단지는 대부분 도심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 교외 형으로 추진)

4) 경제적 타당성 및 자금조달 계획

- 안산 대부지구 추정 사업비는 1조 3,039억 원이며, 이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자본에서 조달할 계획을 수립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2조 2,65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5,969억 원, 취업유발효과 14,331명으로 추정

2.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 분석

1) 기업입주수요 측면

- 안산 대부지구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해양문화·관광지구, 신산업지구 면적은 4.1km²로 2020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의 4.7배 규모지만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수도권 주요 지역 접근성 취약 및 도서지역으로서 교통인프라 미흡,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가능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고, 이를 해결할 정책 개발 미흡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미흡했으며, 기존의 안산 개발계획과 입지 여건 상 농업 및 관광분야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짐

2) 부지 및 기반시설 측면

- 안산 대부지구 대상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구역계와 상당 부분 중첩되었으나, 이를 해결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안산 대부지구 매립사업 준공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부지확보에 걸림돌이 됨
 - 부지확보 과정에서 영농법인 사용 부지에 대한 사전협의 및 지역 농민과 상생 정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하였음
 - 기반시설 측면에서도 고압 송전탑 철거 및 송전선 지중화 민원을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

3) 기본계획 부합성 측면

- 안산 대부지구가 제시한 발전전략 측면에서의 미선정 원인 분석
 - 대부지구의 중점 유치업종으로 계획하였던 드론, 연료전지, 로봇 등은 안산의 특화도가 높지 않았고, 해당 업종의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혁신 자원 보유도 역시 낮았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전후방 업종의 연계발전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작용
 - 추가로 해양문화산업 발전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원인
- 안산 대부지구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의 미선정 원인 분석
- 대부지구가 제시한 주요 기능의 공간 배치, 수공간·녹지·도로 네트워크 체계가 미흡
 - 해양문화·관광지구와 신산업지구가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기능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함
 - 도로망 계획에서 도로 간 위계가 불분명하였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지구는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서로 다른 수요가 대립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 기존에 토지를 이용하고 있던 영농법인 및 지역 농민과 상생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 그 외 미선정 원인분석
- 안산 대부지구 개발 자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 부족
 - 혁신성장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전략 제시 미흡
 - 핵심 도입기능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계획 미흡
 - 혁신 인프라로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부재
 - 각각의 도입기능별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체계 미흡

제7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향 시사점

1.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

- 국가 단위의 산업·지역 개발 정책과 반드시 부합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20년 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021년 6월)에 따른 산업 분야별 경제자유구역 주요 추진 전략에 부합해야 함

2. 명확한 컨셉의 개발 방향 설정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의 개발 컨셉이 분명해야 함
 - 여러 지역을 다양한 주제로 개발하려는 컨셉은 지양하고, 국가 산업 발전 방향과 고양특례시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을 주제로 잡아야 함

3. 구역 설정 시 집중된 형태로 추진

- 경기도에서 이미 지정된 구역을 보면 모두 위치적으로 집중된 형태
 - 평택은 2개 지구(포승, 현덕), 시흥 1개 지구(배곧)로 이는 기업투자 수요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
 - 기업투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되더라도 소규모 지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⁹⁾

⁹⁾ 고양신문, 개발지역 모두 경자구역 지정하겠다는 고양특례시, 산자부 의도와 반대로, 2022.09.23.

4.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 개발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각 전략별 실행 방안, 자본조달 방안, 기업투자 수요 확보 등의 계획이 명확해야 함
 - 또한 각 개발 계획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사업을 추진할 체계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함

5. 개발 계획 추진 상 걸림돌 제거

- 부지확보, 개발에 따른 환경적 이슈, 지역 주민의 민원 등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발생 가능한 다양한 난관들과 민원들을 미리 예상하여 이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제 4 장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

제1절 고양특례시 현황 검토

제2절 서울 및 경기도 인접 지역

산업 분석

제3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비전과 목표

제4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능배치 구상

제5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단계별 전략

제절 고양특례시 현황 검토

1. 고양특례시 산업 전반

- 2019년 기준 고양특례시의 사업체 수는 69,687개, 종사자 수는 334,751명임
 - 사업체 수는 수원시(74,015개) 다음으로 경기도 내 2번째 순위
 - 종사자 수는 화성, 성남, 수원, 용인 다음으로 5번째 순위
- 고양특례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소비도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사업체 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26.4%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1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6%), 운수 및 창고업(10.1%), 제조업(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19.3%로 가장 높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1%), 숙박 및 음식점업(11.2%), 제조업(9.7%), 교육서비스업(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특례시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유사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이 낮아(31.01%) 자족기능이 미흡한 편임
 - 인구대비 종사자 비율: 용인(32.58%), 부천(36.92%), 수원(37.05%), 성남(50.23%), 화성(55.47%)
 - 다만, 백병원, 차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종합병원과 많은 의료시설이 입지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큰 편임

2. 고양특례시 바이오·메디컬 산업 현황

- 고양특례시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중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분야 및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의 분야에 강점 보유
 - 고양특례시는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일산백병원, 명지의료재단, 일산차병원, 국민건강보험병원 등 종합병원이 위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종합병원의 경우 사업체 수는 5개이지만 5개 종합병원의 종사자 수가 고양특례시 전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종합병원이 고양특례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주류를 형성
 - 주요 종합병원은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임상시험, 의료분야 연구개발, 의료기업 육성 등 산·학·연 활동을 수행
- 고양특례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사업체 수는 총 2,614개로 고양특례시 전체 기업체 수의 3.8%의 비중을 차지
 - 세세분류별 기업 수는 의원(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수가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고양특례시 의료 및 바이오산업의 종사자 수는 총 26,732명으로, 고양특례시 전체 종사자 수의 8.0%의 비중을 차지
 - 세세분류별 종사자 수는 종합병원 및 의원(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

[표 4-1] 고양특례시 의료·메디컬 산업 분야별 기업 수 및 종사자 현황(2018년 기준)

| 대분류 | 세분류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 개 | 비중 | 명 | 비중 |
| 의약품 산업 |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의약품 도매 및 소매업 | 490 | 19.0% | 1,992 | 7.5% |
| 의료기기 산업 | 의료기기 제조업 | 124 | 4.8 | 1,621 | 6.1% |
| | 의료기기 도매 및 소매업 | 529 | 20.6 | 1,569 | 6.0% |
| 의료 서비스 산업 | 종합병원 | 5 | 0.2% | 7,392 | 27.9% |
| | 일반병원 | 24 | 0.9% | 2,401 | 9.1% |
| | 치과병원 | 7 | 0.3% | 259 | 1.0% |
| 의료 서비스 산업 | 한방병원 | 1 | 0.0% | 65 | 0.2% |
| |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1,096 | 42.5% | 6,450 | 24.4% |
| |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 7 | 0.3% | 129 | 0.5% |
| | 공중 보건 의료업 | 6 | 0.2% | 291 | 1.1% |
| | 앰블런스, 유사의료, 기타 보건업 | 90 | 3.5% | 418 | 1.6% |
| |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양로시설 | 196 | 7.7% | 3,890 | 14.6% |
| 총계 | | 2,575 | 100% | 26,477 | 100% |

출처: 고양특례시, 2019 고양특례시 사업체조사보고서(2020.03)

(단위: 개, 명, %)

* (의료기기 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의료서비스산업) 종합병원 분야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경우 결과값이 바이오 분야와 일부 중복됨

- 고양특례시 바이오·의료 산업구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유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
 - (의약품 산업)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기업 및 종사자는 전무한 실정이며, 의약품에 대한 유통(도·소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
 - (의료기기 산업) 의료기기 제조업에 대한 기업 및 종사자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도·소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형성
 - (의료서비스 산업) 고양특례시 의료산업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수 기준으로는 의원 및 노인 요양 복지시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형성

- 고양특례시의 바이오·의료 산업 중 의료를 제외한 타 분야에 대한 기반은 취약하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기반이 형성
 - 식품바이오, 화학바이오 분야에 대한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 및 종사자가 존재
 - 고양특례시의 바이오 기업수는 58개, 종업원수는 7,817명이며,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종합병원이 큰 비중을 차지
 - 고양특례시 바이오산업 분야별 분석 결과, 기업 수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는 종합병원과 같은 보건업 분야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

3. 고양특례시 미디어·콘텐츠¹⁾ 산업 현황

- 고양특례시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MBC, EBS, JTBC 등 대형 방송사 제작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형성
 - 고양특례시는 MBC, SBS, JTBC의 제작센터, EBS의 본사가 위치해 미디어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강점 보유
 - 미디어 산업에서 콘텐츠 제작은 핵심적인 부문으로써 다양한 기업 및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부문
 - 특히 아쿠아특수촬영 스튜디오가 입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 하지만 스튜디오 시설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상암 DMC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중심성,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¹⁾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① 방송/영상/미디어 산업, ② MICE 산업, ③VR/AR 산업, ④ ICT 서비스 산업 등을 포함.

- 미디어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일산뉴콘텐츠센터, 경기문화창조허브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고양특례시에 입지하고 있음
 - 고양영상미디어센터(고양산업진흥원): 미디어 교육 및 도서관, 미디어 제작 장비·시설 대여
 - 아쿠아 특수촬영스튜디오(고양산업진흥원) : 수중촬영 인프라,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작스튜디오, 중계시설 및 장비, 송출시설, 편집실, 카메라 등 방송영상장비 대여
 - 일산 뉴콘텐츠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 인큐베이팅, 뉴콘텐츠 생산 및 유통
 -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제작 및 유통지원, 뉴미디어 콘텐츠 교육 등
- (총 기업체 수) 고양특례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사업체 수는 총 1,467개로 고양특례시 전체 기업체 수의 2.1%의 비중을 차지
 - 세세분류별 기업체 수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134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2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112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111개) 등 ICT 서비스 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
 - (총 종사자 수) 고양특례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종사자 수는 총 26,732명으로, 고양특례시 전체 종사자 수의 2.6%의 비중을 차지
 - 지상파 방송업(735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636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601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545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21명) 등 방송업과 MICE 산업, ICT 서비스 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

[표 4-2] 2018년 고양특례시 미디어·콘텐츠 산업별 분야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대분류 | 세세분류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 개 | % | 개 | % |
| C. 제조업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12 | 0.8% | 54 | 0.6% |
|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2 | 0.1% | 10 | 0.1% |
| |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4 | 0.3% | 12 | 0.1%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7 | 1.8% | 115 | 1.4% |
| |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 5 | 0.3% | 71 | 0.8% |
| G. 도매 및 소매업 |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103 | 7.0% | 482 | 5.7% |
| | 46522.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82 | 5.6% | 489 | 5.8% |
| | 46595.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134 | 9.1% | 545 | 6.4% |
| |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 19 | 1.3% | 147 | 1.7% |
| J. 정보통신업 |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 | 0.5% | 22 | 0.3% |
| |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 | 0.6% | 27 | 0.3% |
| |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 | 0.5% | 15 | 0.2% |
| | 5821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12 | 7.6% | 521 | 6.1%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1 | 6.2% | 636 | 7.5% |
|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39 | 2.7% | 318 | 3.7% |
|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10 | 0.7% | 56 | 0.7% |
| |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45 | 3.1% | 150 | 1.8% |
| |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30 | 2.0% | 267 | 3.1% |
| |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30 | 2.0% | 97 | 1.1% |
| |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2 | 0.1% | 6 | 0.1% |
| | 59141. 영화관 운영업 | 9 | 0.6% | 356 | 4.2% |
| |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13 | 0.9% | 31 | 0.4% |
| |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20 | 1.4% | 48 | 0.6% |
| |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 16 | 1.1% | 38 | 0.4% |
| | 60100. 라디오 방송업 | - | - | - | - |
| | 60210. 지상파 방송업 | 2 | 0.1% | 735 | 8.7% |
| |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 3 | 0.2% | 296 | 3.5% |
| | 60222. 유선 방송업 | 2 | 0.1% | 56 | 0.7% |
| |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6 | 0.4% | 23 | 0.3% |

| 대분류 | 세세분류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 개 | % | 개 | % |
| | 61210. 유선 통신업 | 18 | 1.2% | 384 | 4.5% |
| |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4 | 0.3% | 94 | 1.1% |
| | 61291. 통신 재판매업 | 2 | 0.1% | 8 | 0.1% |
| |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3 | 0.2% | 9 | 0.1%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111 | 7.6% | 451 | 5.3% |
|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25 | 1.7% | 90 | 1.1% |
| |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 8 | 0.5% | 56 | 0.7% |
|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21 | 1.4% | 111 | 1.3% |
| | 63111. 자료 처리업 | 6 | 0.4% | 46 | 0.5% |
| |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3 | 0.2% | 33 | 0.4% |
|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19 | 1.3% | 55 | 0.6% |
| | 63910. 뉴스 제공업 | 2 | 0.1% | 2 | 0.0% |
| |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24 | 1.6% | 111 | 1.3% |
| |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2 | 0.1% | 10 | 0.1%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23 | 1.6% | 85 | 1.0% |
| | 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 3 | 0.2% | 27 | 0.3% |
| |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105 | 7.2% | 320 | 3.8% |
| |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 25 | 1.7% | 91 | 1.1%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자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74 | 5.0% | 601 | 7.1%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511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112 | 7.6% | 172 | 2.0% |
| | 95120. 통신장비 수리업 | 36 | 2.5% | 111 | 1.3% |
| 총계 | | 1,467 | 100% | 8,490 | 100% |

출처 : 경기통계,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

(단위 : 개, 명, %)

제2절 서울 및 경기도 인접 지역 산업 분석

1. 서울

- 2020년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체 수는 1,211,053개 종사자 수는 5,868,926명임
 - 사업체 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2.0%), 운수 및 창고업(8.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1%), 건설업(8.8%),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체가 타 도시들에 비해 많이 입지하고 있음

2. 경기도

1) 경기도 전반

- 2019년 기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수는 934,349개이며 종사자 수는 5,302,740명임
 - 사업체 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22.7%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7.2%), 제조업(14.3%), 운수 및 창고업(10.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24.9%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14.0%), 숙박 및 음식점업(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3%), 교육 서비스업(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택, 용인, 파주 등 대규모 제조업 단지들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임

2) 고양특례시와 인근 지역 비교

- 인근 지역(파주시, 광명시, 안산시, 김포시, 부천시)과 비교할 때, 고양특례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파주시, 안산시, 부천시 등의 제조업 비중은 고양특례시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제조업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근 지역 중 고양특례시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이는 도시는 광명시임

[표 4-3] 고양특례시 인근 지역 상위 5개 업종(사업체 수 기준)

| | 합계 (단위개)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고양시 | 69,687 | 도매 및 소매업 (26.4%) | 숙박 및 음식점업 (15.3%) |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6%) | 운수 및 창고업 (10.1%) | 제조업 (8.5%) |
| 파주시 | 32,368 | 도매 및 소매업 (21.2%) | 제조업 (18.8%) | 숙박 및 음식점업 (17.4%) | 운수 및 창고업 (10.3%) |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6%) |
| 광명시 | 18,577 | 도매 및 소매업 (25.3%) | 숙박 및 음식점업 (15.7%) | 운수 및 창고업 (12.6%) |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5%) | 제조업 (9.0%) |
| 안산시 | 54,200 | 도매 및 소매업 (21.2%) | 숙박 및 음식점업 (17.4%) | 제조업 (16.8%) | 운수 및 창고업 (12.0%) |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3%) |
| 김포시 | 34,269 | 제조업 (28.2%) | 도매 및 소매업 (20.5%) | 숙박 및 음식점업 (13.7%) | 운수 및 창고업 (7.7%) |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3%) |
| 부천시 | 61,147 | 도매 및 소매업 (21.9%) | 제조업 (16.7%) | 숙박 및 음식점업 (16.5%) |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6%) | 운수 및 창고업 (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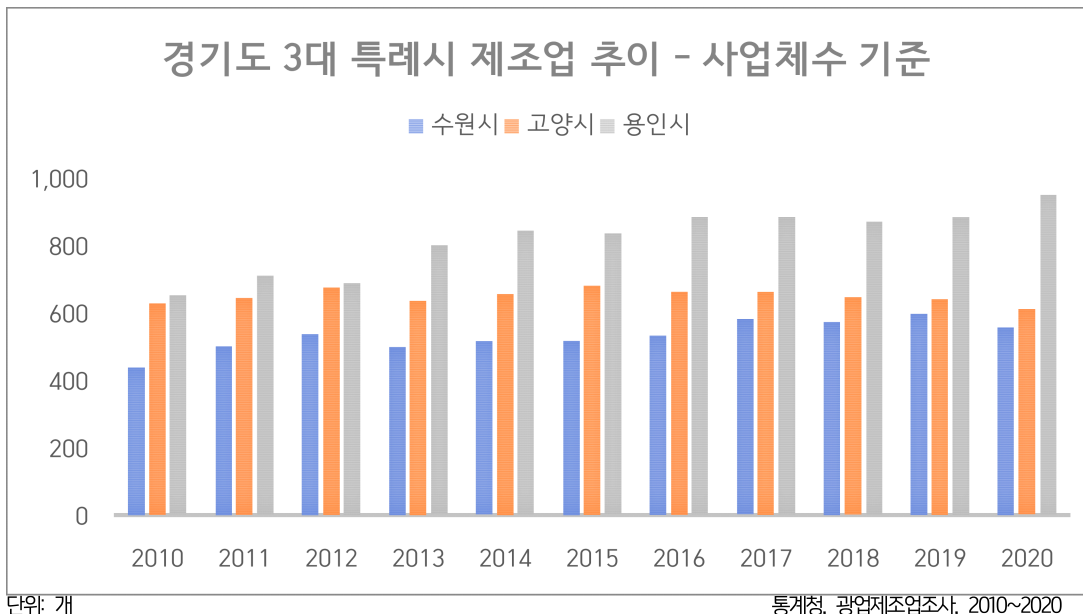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주: 파주시, 광명시,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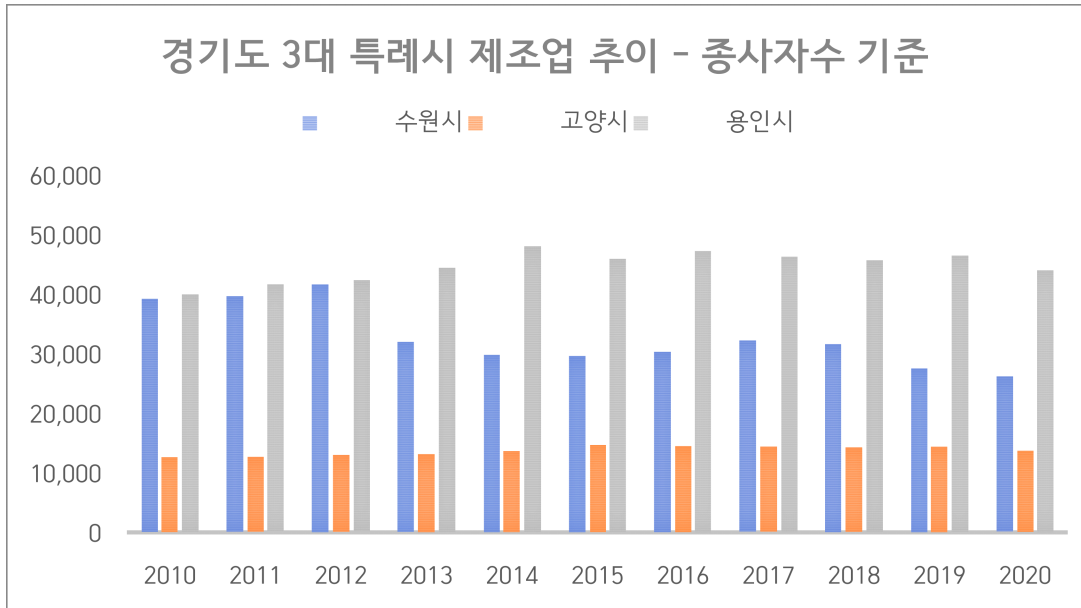
3) 경기도 3대 특례시와 비교

- 전국적으로 4개의 특례시가 존재하고, 경기도에 3개의 특례시가 있음
 -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창원특례시는 경남에 소재
 - 경기도 소재 3대 특례시의 제조업 비교 결과 고양특례시의 사업체 수는 수원특례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타 특례시보다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양특례시의 제조업은 사업체 수는 적지 않으나 부가가치는 매우 작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고양특례시의 주요 제조업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0.2%), 전기장비 제조업(9.1%) 등으로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임

[그림 4-1] 경기도 3대 특례시 제조업 추이 (사업체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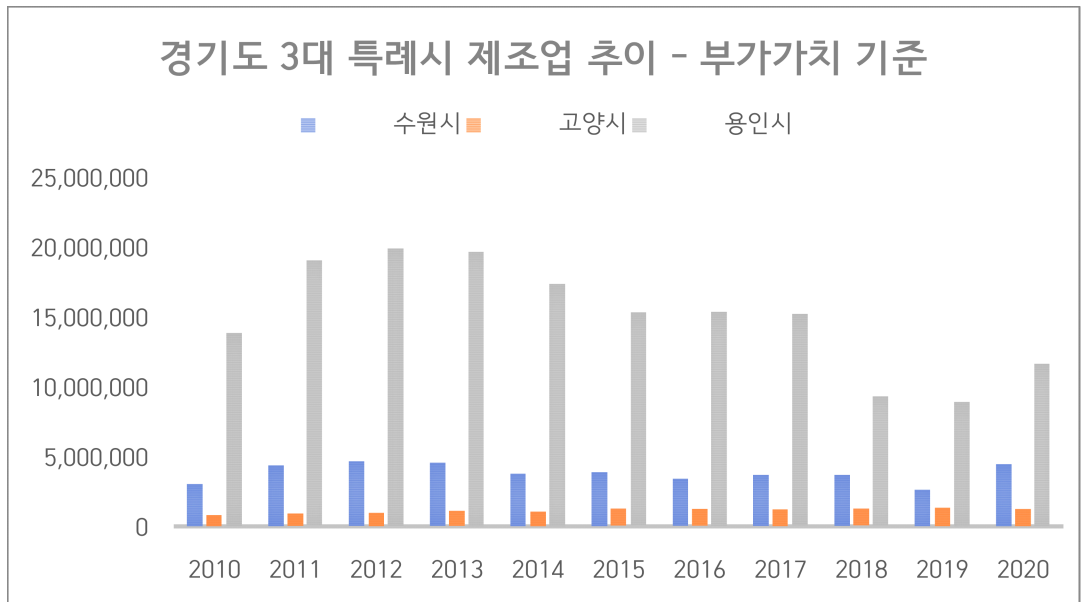
[그림 4-2] 경기도 3대 특례시 제조업 추이 (종사자 수 기준)



단위: 명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0~2020

[그림 4-3] 경기도 3대 특례시 제조업 추이 (부가가치 기준)



단위 : 백만 원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0~2020

4) 고양특례시 기업경영성과 비교

-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양특례시 소재 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수치와 비교 및 분석
 - 전국, 경기도의 수치는 한국은행 2016~2020년 자료를 사용함
 - 고양특례시의 수치는 고양특례시 기업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값임

(1) 생산성 - 부가가치율(단위: %)

[표 4-4]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부가가치율

| 단위% | 전산업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전국 | 30.7 | 25.3 | 43.2 | 34.6 | 39.4 | 51.9 |
| 경기도 | 34.8 | 33.5 | 45.9 | 34.1 | 38.8 | 54.5 |
| 고양특례시 | 26.2 | 18.2 | 43.5 | 18.8 | 12.2 | 36.1 |

주: 2016-2020년 값의 평균치

- 고양특례시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생산성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수준을 하회함
 - 정보통신업의 경우 전국 및 경기도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부가가치율을 보여 주고 있음

(2)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단위: %)

[표 4-5]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총자산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전산업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전국 | 6.75 | 5.17 | 7.77 | 6.25 | 10.22 | 15.38 |
| 경기도 | 8.95 | 7.09 | 9.46 | 10.54 | 10.27 | 15.50 |
| 고양특례시 | 19.09 | 11.61 | 14.87 | 30.84 | 7.86 | 9.32 |

주: 2016-2020년 값의 평균치

[표 4-6]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매출액증가율

| 매출액증가율 | 전산업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전국 | 3.03 | 1.68 | 4.99 | 3.32 | 5.47 | 8.63 |
| 경기도 | 5.09 | 4.14 | 5.12 | 7.69 | 6.05 | 12.39 |
| 고양특례시 | 12.54 | 8.22 | 13.69 | 14.81 | 8.77 | 10.78 |

주: 2016-2020년 값의 평균치

- 고양특례시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특례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어 높은 성장지표를 갖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성장성이 두드러진 편인데, 2016~2020년 수도권 주택 공급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택지개발 사업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임

(3)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단위: %)

[표 4-7]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매출액영업이익률

| 단위:% | 전산업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전국 | 5,12 | 5,98 | 2,56 | 4,70 | 7,12 | 5,39 |
| 경기도 | 7,16 | 9,03 | 2,65 | 4,87 | 7,99 | 6,15 |
| 고양특례시 | 5,38 | 5,69 | 3,46 | 7,72 | -0,32 | 2,65 |

주: 2016-2020년 값의 평균치

[표 4-8] 전국,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이자보상비율

| 단위:% | 전산업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전국 | 421.1 | 688,3 | 488,6 | 526,3 | 649,9 | 443,4 |
| 경기도 | 701,5 | 1322,5 | 515,7 | 530,4 | 678,9 | 486,6 |
| 고양특례시 | 544,9 | 580,8 | 688,5 | 806,4 | -98,4 | 525,1 |

주: 2016-2020년 값의 평균치

- 고양특례시 소재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경기도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침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은 전국과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임
 - 제조업의 수익성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기도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침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수익성은 전국과 경기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침
 - 건설업은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였는데, 높은 성장성과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을 위한 활발한 공사 수주가 배경으로 보임
 - 정보통신업은 적자로 나타났는데, 규모가 영세하고 재무적 리스크가 큰 업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양특례시 정보통신업의 경우 좀비기업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 보임

(4) 종합

- 고양특례시 기업의 성장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높은 성장성 지표도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원인으로 보임.
-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열악한 편임
 -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입지규제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제3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비전과 목표

1.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비전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비전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설정
 - 각종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에 의해 산업발전이 제한되어 온 고양특례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그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길 기대

2.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4대 전략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으로 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 ② 문화상품 수출기지 조성, ③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조성, ④ 지능형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제시
 - (첨단·정밀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
 - (디지털 영상·K-컬처 플랫폼·MICE 기반의 문화상품 수출기지 조성)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영상·K-컬처 플랫폼 기반과 MICE 인프라를 결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상품 수출기지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및 ICT 융복합 단지 조성) 상암DMC-마곡지구-고양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벨트 조성
 - (지능형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UAM²⁾, 드론, AI, 로봇산업

분야 등에서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지능형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3. 고양특례시 3개 지구별 목표 및 추진과제

[그림 4-4]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개요 **[보안주의]**

²⁾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도심항공교통이라고도 부름.

1) 각 지구별 목표

- A 지구의 목표로 미래혁신 핵심기술 기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설정
 - Future Innovation Core Technology Zone
- B 지구의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역 육성을 설정
 - Global Cooperation Lab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C 지구의 목표로 지능형 시스템 테스트베드 지역 조성을 설정
 - Test-Bed for Intelligent System

2) A 지구 추진과제

- A 지구의 세부 목표로 ①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② 신한류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③ 미래 IP 콘텐츠 집적지역 조성, ④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설정하고 다음 추진 과제 제시
 - 국가 암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정밀의료 서비스 제공
 - 고양특례시 내 조성 중인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등의 인프라와 연계해 K-컬처 산업 육성
 -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콘텐츠 IP 관련 집적지역 조성
 - 시스템 반도체 특화 분야 산업 육성

3) B 지구 추진과제

- B 지구의 세부 목표로 ①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 조성, ② ICT 융복합 단지 조성, ③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조성, ④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조성 등을 설정하고 다음의 추진 과제를 제시

- 고양 경제자유구역, 상암DMC, 마곡지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역으로 육성
- 고양특례시 전략산업인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등의 ICT 관련 실감 콘텐츠 산업 구축
-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조성하고 연계한 의료관광특구 지정
- 우수한 접근성과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와 연계한 글로벌 교류 협력 거점 조성

4) C 지구 추진과제

- C 지구의 세부 목표로 ① 경기북부 신성장 전략거점 조성, ② 선순환 산업 생태 환경 조성, ③ 혁신생태계 신모델 제시, ④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설정하고 다음의 추진 과제를 제시
 - 스마트 모빌리티, AI, UAM, 드론, 지능형 로봇 복합 플랫폼 산업 육성
 - 관내 대학·연구기관과 인재육성·지원·협업-기업성장의 선순환 산업 생태 환경 조성
 - 산·학·연 연계로 직주 근접성이 탁월한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 마곡-상암 DMC-C 지구-일산테크노밸리-파주 LCD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4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능배치 구상

1.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

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2019년 1월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각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필요성 제기
 - 제4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분권·포용·혁신 3대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 발전을 강조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각 지역별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경기 북부지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과 더불어 역내 불균형 해소를 추진과제로 제시
 - 고양특례시가 속한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4차 산업 혁명 거점 확대 및 강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확대 추진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

[표 4-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중 경기지역 추진과제

| 구분 | 목표 | 주요 추진과제 |
|-------|------------------------------------|---|
| 사람 | Work&Life Balance, 희망과 행복의 경기도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온라인 평생 학습 서비스 재편/내실화 •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역사문화 생태관광코스 개발,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경기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 • 도민 기본복지 증진 |
| 공간 | Vitality, 멋과 활력의 경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 청년 주거복지 확대, 저소득층 공공주택 공급 등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추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추진 등 편리한 교통체계 확보 |
| 산업 | Innovation, 공정과 혁신으로 신명나는 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거점 확대 및 강화 • 서해안 성장거점 마련 |
| 역내불균형 | Peace, 평화시대, 신경제지도 중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중심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미군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확대 추진, 통일경제특구 조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조성 • 공정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 |

출처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01

2)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2020-2040)

[표 4-1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경기지역 발전 방향(산업혁신/일자리 공급, 남북평화)

| 구분 | 목표 | 주요 추진과제 |
|--------------------|---|---|
| 산업혁신/ 일자리 공급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 산업벨트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게임·MICE·방송문화·패션·가구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와 서비스업과의 융복합 및 청년인력 접근성을 반영한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 안산 방아머리, 김포 아라 마리나항 건설, 평택호 내수면 마리나 조성 및 항만유류지 개발 추진 |
| | 테크노밸리 조성 확대 및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기 테크노밸리 조성 및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한 권역별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 |
| |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반월·성남·부천·군포·동두천 등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스마트산업단지 사업 추진 서해안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추진 |
| |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복합단지 조성 및 드론·AV 등 ICT 활용한 물류·유통시스템 혁신 |
| 남북평화 | DMZ 생태·역사문화 평화관광 벨트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한반도 신경계구상'과 연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추진 검토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한강하구·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및 개발 추진 |
| | 한반도 유라시아 연결 교통인프라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라시아 연결철도망 건설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기도 접경지역과 북한 접경지역 연결 검토 |

출처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대한민국 정부, 2019.12

-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 7월 실천계획을 통해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
 - 인구 감소,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혁신적 국토운영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
 - 경기도는 제5차 국토기본계획에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기본방향으로 토지이용, 생활서비스, 환경, 교통, 일자리 공급(경제), 남북평화 등의 분야별로 발전방향을 제시

3)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은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 전환하여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방향 제시
 - 제1차 기본계획('13~'22)이 투자, 고용 증가 등에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위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
- 특히,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 육성에 중점
- 이를 위해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② 혁신 생태계 조성, ③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④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중점분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서 3개 세부과제 제시
 - 경자유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 중심으로 조정

-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
- 비재정적(규제특례)·재정적(R&D, 기반시설 등) 지원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표 4-11]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혁신방안

| 한계 | 혁신방안 |
|----------|------------------------------|
| 개발, 외자유치 | 혁신성장 |
| 국내기업 역차별 | 국적불문 지원: 제4차산업 선도기업 유치 |
| 주력제조업 |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구역별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
| 부족한 규제완화 | 규제 샌드박스: 선도적 적용 후 확산 |
| 개발중심 | 산업 육성 중심: 투자유치, 기업혁신 지원 |

[표 4-12] 제2차 기본계획의 로드맵

| 기본 컨셉 | 개발 모습 | 발전 전략 |
|--|---|---|
| 국내외 혁신형기업 비즈니스 거점 +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복합도시] 산업, 물류 <첨단제조, R&D, 관광> +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법률, 회계> + 쾌적한 정주환경 <교육, 의료, 주거>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 혁신생태계 조성 +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

[표 4-13] 제2차 기본계획 4대 중점분야와 12개 세부과제

| 4대 중점분야 | 12개 세부과제 |
|------------------------|--|
| 1.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 ①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중점유치업종 재편 ② 규제특례 활성화 ③ 신산업 투자·지원 강화 |
| 2. 혁신 생태계 조성 | ④ 교육·연구기관 등 혁신 인프라 강화 ⑤ 산·학·연 협력 강화 ⑥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
| 3. 글로벌 특구로서 경쟁력 강화 | ⑦ 총량관리제 도입 ⑧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⑨ 해외특구 협력 강화 |
| 4. 추진체계 선진화 | ⑩ 거버넌스 강화 ⑪ 행정체계 기능 전환 ⑫ 성과평가 개선 |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수 국내외 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혁신인프라 강화, 기술·업종별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협업 촉진을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스마트 시티 조성 확대 등 제시
 -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및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 추진
 - 경자구역(인근 지역) 내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
 -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을 확충
-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량관리제 도입,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해외특구와의 협력 강화 등 제시
 - 경자구역 총면적 총량관리제 도입(360km²)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

-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특구 효율화를 추진하고, 차별화를 강화
- 해외 특구 기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M&A, 지분투자 등 투자유치 촉진
-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역할 확대, 행정체계 기능 전환, 성과평가 개선 등을 제시

4)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전략

-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 제조업의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임
 -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은 ① 4차산업 R&D 기반 조성
 - ② 첨단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설정
-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구축
 - ②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③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으로 제시
-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평택포승지구, 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 등 3개 지구로 구성되며, 지구별 사업현황은 [표 4-15]와 같음

[표 4-14] 경기경제자유구역 3대 목표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구축 |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
| -전기차 산업 첨단 부품 복합단지 조성 -반도체 부품 및 소재 복합단지 조성 -기타 미래 모빌리티 제조 및 부품 단지 조성 -부가가치 물류단지 조성 | -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 구축 -산·학·연 협력 연구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의료·바이오 융복합 연구단지 조성 -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교육환경 구축 | -수소경제 기반의 친환경 미래도시 구현 -자동차 전시, 판매·유통 복합단지 조성 -관광·유통 시설 확충 및 외국인 정주환경 |

자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표 4-15] 경기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현황

| 지구명 | 면적(천m ²) | 사업비(억원) | 사업기간 | 중점유치업종 | 사업시행자 |
|--------|----------------------|---------|-----------|----------------------------|------------------------|
| 평택포승지구 | 2,046 | 7,702 | 2008-2020 |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화학 등 | 경기주택도시 공사 평택도시공사 |
| 현덕지구 | 2,316 | 7,500 | 2008-2021 | 유통, 상업, 주거, 관광, 의료 등 | - |
| 시흥배곧지구 | 878 | 16,681 | 2020-2027 | 무인이동체 R&D, 교육, 의료 등 | 시흥시, 서울대학교 |

자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고양특례시 정책 방향

1)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2020.11)

- 고양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
 - 비전: 화합과 교류의 첨단미래도시, 고양
-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은 자족도시 발전, 공간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 중심지 조성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시
 - 저성장시대 인구구조 변화, 산업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 자족도시로 발전 방향 모색
 - 일산권역과 덕양권역의 도심 활력 제고 등 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간구조 개편
 - 방송영상, MICE, 문화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특화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
 - 남북평화시대 도래에 따른 경제협력의 광역경제권 중심지 조성

2) 민선 8기 고양특례시 공약 비전

- 민선8기 공약비전은 “도시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완전한 자족도시로 새로고침”이며 경제, 교육·문화 분야의 시정목표로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도시”를 설정
 - 고양특례시에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바이오 정밀의료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 글로벌 한류 문화의 콘텐츠 생산기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환경 등을 통해 매력적인 자족도시 기반 형성

[표 4-16]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부문별 세부 내용

| 분야 | 기본 방향 |
|----------------|---|
| 1. 토지이용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개발가능지(A 지구) 단계별 개발 · 국제 및 남북교류 기반 확충, 첨단산업기능 강화 및 자족기반 확충 등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 · 창릉신도시 등 정책적 개발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
| 2. 교통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산 고속도로(2020),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2021) ·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2024), 대곡-소사간 전철(2021), 고양선(2028) |
| 3.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재정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 · 노후화된 계획도시 정비 및 원도심 활성화 전략 · 주거지 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
| 4. 공원·녹지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에 대비한 공원·녹지 면적 확보 · 공원·녹지의 지역적 균등 배분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격의 공원 조성 |
| 5.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축 · 종합적인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현황자원에 대한 오염원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
| 6. 방재 및 안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 종합적인 도시방재체계 구축 |
| 7. 경제·산업 개발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양시 신성장동력 산업전략계획 수립 · 기존산업 고도화 및 IT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고양형 산업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킨텍스 확장 및 지원을 통한 MICE산업 확장 - IT, 방송, MICE 융합을 통한 거점 개발 형성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합기능으로 지식기반산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산신도시 재생 수요창출을 위한 바이오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 ·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벨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사업화 실시 - 방송·영상문화 등 한류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신항류 관광벨트 구축 |
| 8. 사회·문화 개발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마련 · 생활권별 수요를 고려한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 복지·교육·문화환경 조성 |

[표 4-17] 민선8기 경제, 교육문화 분야 비전과 공약

| | |
|------------------|---|
| <p>비전</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자유구역 지정 2. 활력있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 조성 3.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 <p>공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 마이스 산업 육성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 특목고 등 설립 추진 - 드림스쿨 캠퍼스 조성 - 예술인 지원체계 및 문화복지 확대 -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도시 조성 -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 생활 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 영어 전문 도서관 조성 - 동물교감 치유파크 및 펫 테마파크 조성 |

자료: 고양특례시, “민선8기 고양특례시 공약비전”, 2022

- 민선8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2년 10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시정 방향인 ‘10대 핵심과제’를 발표
 - 10대 핵심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경제성장 동력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도시 조성 등이 10대 핵심 과제에 포함
- 바이오·정밀의료 산업발전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전공학, 의료기기, AI, 빅데이터 등의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
 - 고양특례시 소재 6개 종합병원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바이오산업을 선점해 고부가가치의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

[표 4-18] 민선8기 시장의 10대 핵심과제

| 연번 | 과제명 |
|----|---------------------------------|
| 1 | 경제자유구역 지정 |
| 2 |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 |
| 3 | 주민 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
| 4 |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
| 5 |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
| 6 |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개설 추진 |
| 7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특례시 광역 철도망 반영 |
| 8 | 특목고 설립 추진(과학고·영재고 등) |
| 9 | 시민 복지재단 설립 |
| 10 | 세계적 관광자원 조성(행주산성 등) |

3) 고양특례시 기 추진 사업

(1)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

-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에 기반해 2011년부터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관광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보유
 - 고양특례시에는 외국인 유치 관련 병·의원 29개, 유치업체 31개가 등록
 -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주 타겟 국가 대상으로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의료관광 팸 투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고양특례시 방문 외국인 환자 수는 2011년 941명, 2015년 3,421명, 2019년 6,238명 등으로 8년간 6배 이상 증가

(2) K-컬처밸리 사업

- K-컬처밸리는 음악·영화·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류 콘텐츠 중심의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및 친환경 생태공간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성될 예정
 - 국내 최초 대규모 K-POP 공연장인 K-컬처밸리 아레나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
 - 2만 석 규모의 아레나, 4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외광장 조성
- CJ 그룹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위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한류월드 내)
 - 개발규모: 302,265 m^2 (약 9.2만평), 테마·상업·숙박용지
 - 사업기간/사업비: 2016~2024년/1조 8,000억 원
 - 시행자: (주)씨제이 라이브시티
 - 주요시설: 테마파크(최첨단 공연장·체험형 스튜디오), 호텔, 상업시설

(3) 고양 방송영상밸리

-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한강축을 따라 방송·영상·문화기능 집적을 위한 클러스터를 유치해 고양특례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사업부지 총면적은 70만 1,984 m^2 (약 21만평)으로 방송시설용지는 24.5%, 도시기반시설은 42.8%
 -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현재 대형 방송사 등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용역 진행 중
 - 2021년 5월 기공식 이후 부지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22년 2월 기반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

(4) 일산테크노밸리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용지 조성을 통한 통합단지 구성과,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 및 자족도시 구현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위치: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 면적: 871,840 m^2 (약 26만 평)
 - 사업기간: 2016~2024년
 - 사업비: 8,493억 원
 - 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경기도, 고양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동 시행
 - 주력산업: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클러스터의 장, 융합의 장, 복합공공지원의 장, 산·학·연의 장 등 4개의 기능을 배치할 예정
 - Business Park(산업클러스터의 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미디어·콘텐츠 클러스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을 생산-체험-판매하는 기업 유치
 - Techno Park(융합의 장):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4차산업 기술과 융합·연결 되는 방송·영상장비, 스마트디바이스 등 첨단제조기업 유치
 - Community Park(복합공공지원의 장): 창업지원센터, 인큐베이터센터, 국내외 글로벌 기업, 입주기업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적인 공공지원의 장 마련
 - Science Park(산·학·연의 장):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연구시설, 산학 공동연구 센터 등 유치
 - 공급 산업시설용지는 첨단, 지식 1, 지식 2, 지식 3, 연구 1, 연구 2 등으로 배 분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표 4-19]와 같음

(5)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조성사업³⁾

-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국내외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양특례시에 조성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
 - 총사업비 488억 원(국비 1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조성 완료 예정

³⁾ 콘텐츠 IP는 OSMU(One source Multi Use)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와 융복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원천 콘텐츠'를 지칭함.

[표 4-19] 일산테크노파크 산업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 구분 | 부지면적 | 건축물 용도 |
|------|---------|--|
| 첨단 | 70,288 | 첨단업종(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지식 1 | 44,553 |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자동차 및 무도 학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
| 지식 2 | 34,165 | |
| 지식 3 | 141,619 | |
| 연구 1 | 12,138 | |
| 연구 2 | 17,318 | |

자료: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

-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는 IP 발굴 및 성장 지원, 융복합 활성화, 슈퍼 IP 발굴 및 글로벌 확산 등 3대 전략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 예정
 -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IP)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간 매칭과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 콘텐츠 기업, 타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 기업에 네트워킹, 커뮤니티 구성 등 융복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 개최
 - 콘텐츠 기업의 제작지원 기반 제공

4) 경제자유구역 유치 산업군·기능 선정 및 배치

(1) A 지구

- 고양특례시가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육성시키려는 바이오·정밀의료, 미디어·콘텐츠, K-컬처 산업을 배치하고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추가로 유치
 - (바이오·정밀의료) 고양특례시 관내 대형병원들과 바이오·의료기업을 연계하여 바이오·정밀의료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K-컬처 플랫폼) 고양특례시 내 조성 중인 CJ 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K-컬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 (디지털영상, IP) CJ 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고양특례시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의 메카로 육성
 - (시스템반도체) 고양특례시에 시스템 반도체 연구 및 생산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에 기여(K-반도체 벨트의 확대)

(2) B 지구

-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대외적인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K-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등을 추진하고 상암 DMC, 마곡 지구와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R&D벨트와 ICT 융복합단지 조성
 -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국제 비즈니스 거점 및 첨단산업 글로벌 교류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집적하여 고양형 글로벌 협력 상생 플랫폼 구축
 - (K-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고양특례시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K-컬처를 연계한 K-웰니스·바이오헬스·메디컬 타운을 조성하여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R&D 허브) 일산테크노밸리, 상암DMC, 마곡지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역 육성
 - (ICT 융복합단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기업과 융복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시설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

(3) C 지구

- 지구 내 소재 대학들의 혁신역량과 드론앵커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UAM,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빅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기업 집적지, 지능형 로봇 생산기지 등 조성
 - (스마트 모빌리티) 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계획과 연계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테스트베드 및 인프라 조성
 - (UAM, 드론) 버티포트(드론 및 플라잉카 전용 공항)를 구축하여 UAM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공대 인근 지역에 조성 중인 드론앵커센터와 기 조성된 대덕 드론 비행장과 연계하여 드론산업 육성

- (빅데이터, AI)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센터 유치, 빅데이터 관련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AI 관련 기업의 집적 및 육성
- (지능형 로봇) 로봇기업 유치와 고양특례시 로봇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표 4-20] 지구별 배치 산업군 및 기능

| | 산업군기능 | 세부 내용 |
|------|-------------|---|
| A 지구 | 시스템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팹리스(설계) 특화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 시스템반도체 앵커 기업 유치 및 CPU, SoC, 마이크로컴포넌트, 아날로그 IC 등 국내외 부품 소자기업 유치 |
| | 바이오 정밀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병원(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백병원, 명지병원, 차병원 등), 관련 기업(루트로닉, 포스콤 등) 입지 • 국가암데이터센터, 암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정밀의료 서비스 제공 |
| | K-컬처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특례시 방송영상시설(MBC, SBS, EBS, JTBC, 빛마루 등)과 집적된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 연계 가능 • 고양특례시 내 조성 중인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등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K-컬처 산업 육성 |
| | 디지털 영상, 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영상 및 VR/AR/XR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에 집적하여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인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콘텐츠 IP 관련 집적지역으로 조성 |
| B 지구 |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KTX(행신역)와 자유로, 제2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우수한 접근성 • 국내 최대 전시장인 KINTEX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사업 허브 역할 가능 |

| | | |
|------|--------------------------|---|
| |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곡역 복합환승 타운 조성과 연계한 의료관광특구 지정 • 고양특례시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K-컬처 인프라를 활용한 K-웰니스 바이오 헬스메디컬타운 조성 |
| | 4차산업혁명 기반 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산테크노밸리, 상암DMC, 마곡지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역으로 육성 •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AI, 지능형로봇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기업 및 R&D 센터 집적 |
| | ICT융복합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기업과 융복합하여 성장할 수 있는 ICT 산업 및 전후방산업 집적 • 고양특례시 전략산업인 방송영상, 콘텐츠산업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등의 ICT 관련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
| C 자구 | 스마트 모빌리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테스트베드 및 인프라 조성 • 중부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제조 창업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 | 빅데이터와 A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센터 유치, 빅데이터 관련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AI 관련 기업집적 및 육성 •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 지능형로봇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봇 기업 유치, 고양특례시 로봇지원센터 구축 등 추진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에서 육성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의 특화분야에서 지능형로봇 기술 개발 기업 집적 |
| | UAM, 드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티포트(드론 및 플라잉카 전용 공항)를 구축하여 UAM 클러스터(산학연관 집적) 조성 • 한국항공대학교 인근 지역에 조성 중인 드론앵커센터와 기 조성된 대덕드론비행장과 연계하여 드론산업 육성 |

- 지구별 배치 산업과 기존 정책, 고양특례시 산업현황, 민선8기 공약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4-21]과 같음
 - 중앙정부 및 고양시 정책, 고양특례시 산업입지, 민선8기 공약 사항 등과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군은 바이오·정밀의료, 미디어·콘텐츠, K-컬처 등임
 - 스마트모빌리티 부문에서 고양특례시는 UAM, 드론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Tesla의 기가팩토리 후보지 신청을 한 바 있음(스마트 모빌리티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유치업종 중의 하나)
 - 의료관광 분야는 기존 고양시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특례시는 상당한 수준의 의료관광 실적을 보유
 - 시스템반도체는 민선8기의 정책적 육성 의지가 강한 분야임
 - ICT 융복합 분야는 현재 추진중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4개 배치 기능 중 하나인 ‘융합의 장’ 기능과 부합
 - 지능형 로봇 분야는 기존 정책 및 산업 현황과의 연계성은 낮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새롭게 육성시키려는 분야임
- 지구별 배치 기능과 기존 정책, 고양특례시 산업현황, 민선8기 공약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4-22]와 같음.
 -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기능은 KINTEX의 입지로 기존정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민선8기 공약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임
 - 4차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 기능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핵심 유치 기능 중의 하나임
 - 빅데이터·AI 기반 집적지 기능은 기존 정책 및 산업현황과의 연관성이 낮지만, 이 분야가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새롭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표 4-21] 육성 산업군과 정책과의 연계성

| | 중앙정부 정책 | GGFEZ 핵심유치 업종 | 고양특례시 기존정책 및 추진사업 | 고양특례시 산업현황 | 민선8기 공약 | 최근 전개상황 | 비고 |
|--------------|------------|---------------------|-------------------------|---------------|------------|------------|----|
| 바이오· 정밀의료 | ○ | ○ | ○ | ○ | ○ | | |
| 미디어· 콘텐츠 | ○ | | ○ | ○ | ○ | | |
| K-컬처 | ○ | | ○ | ○ | ○ | | |
| 시스템 반도체 | | | | | ○ | | * |
| 스마트 모빌리티 | ○ | ○ | ○ | | | ○ | ** |
| 지능형로봇 | | | | | | | |
| 의료관광 | | | ○ | ○ | | | |
| ICT 융복합 | | | ○ | | | | |

* 시스템 반도체: 기존의 K-반도체 전략은 판교 이남 지역 대상임

** 스마트 모빌리티: 고양특례시 Tesla 기가팩토리 입지 후보지 신청

[표 4-22] 추가적인 기능과 정책과의 연계성

| | 중앙정부 정책 | GGFEZ 핵심유치 업종 | 고양특례시 기존정책 및 추진사업 | 고양특례시 산업현황 | 민선8기 공약 | 최근 전개상황 | 비고 |
|-----------------------------|------------|---------------------|-------------------------|---------------|------------|------------|--------------|
| 빅데이터 AI 기반 기업 집적지 | | | | | | | |
|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 | | ○ | | | | | |
|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 ○ | | ○ | ○ | ○ | | KINTEX 입지 |

제5절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단계별 전략

[표 4-23]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실현 3단계

| 1단계 : 활성화단계 | 2단계 : 성숙단계 | 3단계 : 안정화단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고속도로, 철도교통 연계 (TOD) 개발 기반 조성 · 핵심지역(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기개발지 및 역세권)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의 정착 -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안정화 · 선도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개발파급효과로 개발 잠재 수요 유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단계 사업량을 감안하고 향후 사업의 여건변화에 대비 · 경제자유구역 Vision 달성 - 고양지역 자족기능 강화 및 수도권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가운데 여건이 가장 우수한 A지구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B, C 지구는 A지구 개발상황과 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과 개발 추진
 - 경기도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에서 결과 A 지구만 선정된 상태
- 각 지구내 산업 및 기능 배치도 기존 정책, 산업현황, 민선8기 공약 등과의 연관성이 높아 기업유치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추진
 - A 지구의 경우 바이오·정밀의료, 미디어·콘텐츠, K-컬처 부분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
 - B 지구의 경우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기능과 의료관광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
 - C 지구의 경우 UAM과 드론 분야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전략 추진

- 외투기업의 유치도 해당 업종의 앵커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전후방 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 입지를 유도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
 - 현재 경기도에 유치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의 수요 충족 목적
- 주택 및 상업용 시설의 개발도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과거 '선 개발-후 기업유치' 방식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실패로 귀결된 점을 감안하여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 주택 및 상업용 시설의 단계적 개발 추진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은 계획된 사업기간을 활성화단계, 성숙단계, 안정화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을 추진할 필요
- A 지구의 경우 1단계에 기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 CJ 라이브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사업 추진 등 배후 지원 단지와 연계 고려하여 개발사업 추진
 -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핵심지역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
- 2단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의 정착 단계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안정화에 중점
 - 선도 프로젝트의 완료에 따른 개발파급효과로 개발 잠재 수요 유발
- 3단계는 경자구역 Vision의 실현단계로 고양특례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고양 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단계
 -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Vision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절 추진체계와 사업방식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민관 융합형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 개발단계 및 투자유치 비즈니스 활동 지원
 -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 고양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등에 의해 조달
 -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
 -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설치 및 확충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최대한 유도
- 자원조달유형은 자체재원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 등 의존재원
 - 각종 연·기금,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개발사업 등의 선수금 및 분양대금
 - 지방채 또는 공사채 발행
 - 민간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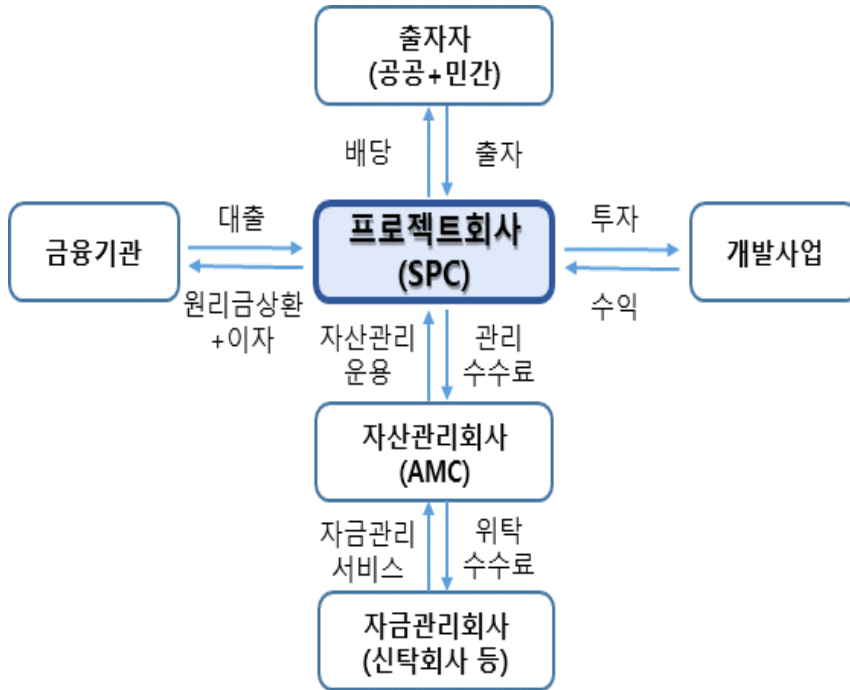
- 민간자본 공모를 통해 SPC를 구성하여 사업참여자 확보 및 자금조달 도모
 - 고양특례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주관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대규모 투자자금의 원활한 자금 확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투자 계획
 -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를 위한 지원
 - 인프라시설 또는 공공시설 설치 또는 확충 비용 지원

1) 추진체계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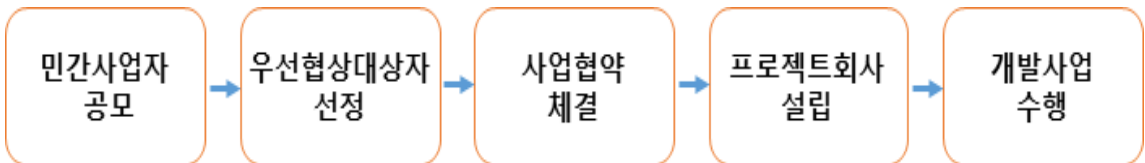
- 출자자, 금융기관 등의 참여자별 역할 및 관계는 다음과 같음
 - 출자자 : SPC에 자본금 출자를 하며, 향후 사업수익에 대한 배당 획득
 - 금융기관 : SPC에 사업 운영 자금을 대출해주며, 원리금 및 이자수익 획득
 -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회사: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며, 관리·위탁 수수료 획득
- PF사업이 완료되면 청산절차를 취하며, 청산단계에서 관련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SPC가 관리회사로 전환되거나, 지분으로 참여한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별도의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등이 사업을 운영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건에 적합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수행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 제거
- 프로젝트와 사업단계에 부합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 인허가, 자금조달, 시공, 관리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SPC 지분 출자사에서 차출 배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그림 4-5] 프로젝트회사(SPC) 개략도



[그림 4-6] SPC 설립 절차



[그림 4-7] 단계별 조직운영계획



[표 4-24] 사업 주체별 역할

| 구 분 | 역 할 | |
|--------------|--|--|
| 공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관리 · 보상업무 총괄 · 부지조성 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C 직원파견 및 업무지원 · 공정관리 · 인허가업무 협조지원 |
| 민간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업무 · 보상계획수립 및 보상업무 · 용지사용 및 매각 · 사업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조달 및 자금관리 · 단지조성공사 · 주주사 소통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지원 |

2. 사업방식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 사업 지구별 개발여건과 도입기능,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선정
 -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대개조에 이해관계자의 협력 유도
- 동일 생활권이 둘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구분될 경우 각각의 생활권에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공공시설(초등학교, 생활SOC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
- 개발이익은 지역주민 공공시설, 생활SOC, 교육·문화·복지시설 조성에 1순위로 활용

제 5 장 지구별 기본구상 (A 지구)

제1절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 계획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제철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1. 기본구상

1) 비전

- A 지구의 비전으로 미래혁신 핵심기술의 선도 지구를 설정
 - Future Innovation Core Technology Zone

2) 목표

-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목표로 ①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② 신한류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③ 미래 IP 콘텐츠 집적지역 조성, ④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제시

□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 고양특례시 내 대형병원과 바이오·의료 기업을 연계 육성하여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 고양특례시 내 대형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등
 - 바이오·의료 기업: 루트로닉, (주)포스콤 등
 - 바이오·의료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

□ 신한류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 고양특례시 내 조성 중인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와 같은 인프라와 연계하여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 기존 고양특례시 방송영상시설(MBC, SBS, EBS, JTBC,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등)과 현재 집적되어있는 다양한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 간 연계 추진

□ 미래 IP 콘텐츠 집적지역 조성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치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2025년 조성 예정)를 중심으로 고양특례시를 콘텐츠 IP 분야의 중심지로 육성
 - CJ 라이브시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고양특례시를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메카로 육성

□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산업 육성

-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스템 반도체 연구 및 생산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에 기여(K-반도체 벨트의 확대)
 - 팹리스(Fabless)¹⁾ 기업의 집적, 반도체 R&D센터 및 파운드리(Foundry)²⁾ 유치

¹⁾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

²⁾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2. 사업개요

[그림 5-1] A 지구 개요 [비공개]

1) 입지여건과 인프라

□ 입지여건

- 사업대상지는 한강과 접하고 있으며 넓은 평야 지대로 구성되어 개발이 용이한 편
 - 북한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 고양특례시는 경동지형으로 북동부가 높고 남서부가 완경사인 형태를 보임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평탄한 지형이며, 대부분 지역이 생태자연도 3등급(97.8%) 지역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

- 사업대상지는 전·답·임야 등 미개발지가 53.99%를 차지하고 있고, 미개발지 대부분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루어져 개발이 용이한 편

□ 인프라 여건

- 지구 내 기 개발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핵심 업종의 기업 유치에 유리
 - 지구 내 다양한 방송시설(빛마루 방송지원센터, EBS 디지털 통합 사옥, JTBC 스튜디오 일산 등), KINTEX를 비롯한 MICE 인프라 등 활용 가능
- 현재 A 지구 내에 K-컬처, 디지털 미디어, IP 콘텐츠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임.
 -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
 - 국내 최초 대규모 K-POP 공연장인 K-컬처밸리 아레나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

2) 사업구상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A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사업시행자: 고양특례시, 고양도시관리공사, 민간사업자
 -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바이오·정밀의료,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1. 도입기능 설정

1)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전무하고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 추진
 - 현재 지정된 9개 경제자유구역 중 K-컬처, 디지털 미디어, IP를 중점 육성 산업 분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없음
 - A 지구 내 CJ 라이브시티와 고양특례시 내 SBS, MBC, EBS, JTBC 등 방송국 및 스튜디오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관련 외투기업 유치 가능함
- 고양특례시는 콘텐츠 기업 집적지역으로 관련 분야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
 - 고양특례시의 콘텐츠 기업은 2,374개(2020년 기준)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콘텐츠산업은 고양특례시 전략산업의 하나임
 - 디지털 영상 및 IP 산업 육성을 위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이 조성 예정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내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취약한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팹리스 분야 기업집적을 위한 시제품 제작, R&D 비용 부담 등의 체계적 지원 및 창업 지원,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취약 분야 보강
 -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정주 여건으로 반도체 분야 고급인력 유치가 가능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고양특례시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 중앙정부³⁾ 정책

- 정부는 인력, 병원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핵심·유망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중
 - 바이오헬스 핵심·유망분야: 신약, 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 화장품 등
- OTT 서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및 콘텐츠 제작 혁신, 인력양성 및 기술 개발 추진
- 정부는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과 더불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할 계획
 -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달성(2020년 128조 원), 수출액 230조 원 달성(2020년 119조 원), 한류팬 2억 명 달성(2020년 1억 명)
- 정부는 2022년 7월 기업투자 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
 -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의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제고한다는 목표 제시

³⁾ 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022. 6.

□ 경기도4) 정책

- 경기북부 신산업 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고양특례시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 밸리 등을 조성하여 미디어, 콘텐츠 등의 산업 육성
 - 고양특례시와 파주시의 컨벤션 기능과 한강축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영상기능을 연계한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
-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지로 경기도는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 개발 허브로 도약 추진
 -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기술혁신 기반구축, 기술개발,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갖춘 개방형 공공 플랫폼인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수원과 용인에 단계적으로 구축

□ 고양특례시 정책

- 일산테크노밸리에 미디어·콘텐츠산업과 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밸류체인을 확장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국제 교류 활성화
- 서울(상암DMC, 마곡R&D), 파주(LCD, 출판문화), 부천(영상문화), 여의도(방송, 금융) 등과 연계된 방송영상미디어산업벨트의 허브를 구축해 고양특례시 도시역량 강화5)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산업으로 유지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를 2024년까지 조성하여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의 IP 융복합 생태계 구축

4) 경기도, “경기비전 2040”, 2015. 12.

5) 고양특례시,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 2022. 1.

3)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

- 인접한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등의 개발방향과 연계
 - 경기경제자유구역의 3대 목표는 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구축, ②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③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향은 송도지구는 바이오·헬스케어, MICE산업, 영종지구는 물류, 관광, 청라지구는 국제업무, 관광, 첨단산업 등으로 설정
- 인접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세부 목표 가운데 반도체 부품 및 소재 복합단지 조성, 의료·바이오 융복합 연구단지 조성 등은 A 지구의 산업 유치 방향과 부합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는 이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우수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어 A 지구가 연구개발 등 바이오 가치사슬의 상류단계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인천 송도지구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 수행 가능
 -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 기능을 수행하는 앵커 기업들이 입지
- A 지구를 경기도를 대표하는 '디지털 방송문화 허브'로 조성하여 인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 디지털영상, IP 분야에서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가능

2. 공간계획

1) 토지이용계획[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1] 복합개발 정도 및 용지별 비중 [비공개]

○ 기본방향

- 글로벌 경쟁 시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용도 배치
-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및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
-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 여건 변화와 중심지 체계 및 생활권을 고려해 토지 이용계획 수립
- 구역 내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한 교통계획 수립 및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정주 여건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

2) 기반시설 조성계획

○ 도로시설 조성계획

- 사업대상지 주변 광역도로인 자유로, 제2자유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역 내 체계적인 간선도로 계획 수립
- 인천국제공항, 항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 운양용화사 IC를 연결하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신설 대교(연장 1,400m, 폭원 35m)와 수도권 남측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유로 장항 IC에서 김포한강로, 태장로와 연결해 한강을 가로지르는 신설대교(연장 1,700m, 폭원 35m) 건설 계획
- 단지 내 도로와 주변 주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구 내 주간선-보조간선-집산-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로) 등 위계에 따른 내부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 역세권, 주요산업시설, 주거지역을 연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동체계 구축

○ 철도시설 조성계획

- 지구 내 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에 역사 2개소를 신설하여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강화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대상지 내 주요 기능과 지하철 신설역에서 GTX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트램 도입

○ 용수시설 조성계획

- 산업별 필요 용수는 지구 내 신설되는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활용
- 생활용수 공급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아 거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각 지역으로 공급

○ 전력시설 조성계획

- 전력수요량은 해당 토지이용 계획상 용지별로 구분하여 산정

- 전력수요량 원단위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2015)」상 건축물의 용도별 단위전력 부하율 및 수용률을 적용
- A 지구 개발에 따른 최대 전력수요는 1,950,271 KVA
-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변전소 설치 및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 통신시설 조성계획

- 지구 내 정보통신을 위한 광케이블을 공급하여 글로벌 정보화 시대 기업, 연구 기관, 공공, 학교, 주택 등 분야별 요구(Needs)에 맞는 스마트정보통신망 구축
- 최근 트렌드인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등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 단지 내 공동구 설치를 통해 통신선로는 지중화하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그림 5-2] A 지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 [비공개]

3) 용도별 규모 산정 기준

- 주거, 주거복합, 상업, 도시기반시설은 A 지구 주변 지역(일산신도시 등) 용도별 배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
- 산업(복합)시설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등의 국내 수요 및 유치 목표치를 분석하여 종사자 및 산업별 필요면적을 근거로 규모 산정

4) 용도별 세부 도입기능

[표 5-2] 용도별 세부 도입기능

| 구 분 | 세부 기능 |
|----------|--|
| 산업용지 | · 지구 내 주력산업 집중 배치 -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플랫폼, 디지털 영상, 시스템 반도체, |
| 산업복합용지 | · 주력산업과 산·학·연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 연구시설용지 | ·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지 확보로 핵심 산업의 확장을 지원 |
| 물류시설용지 | · 주력산업의 원자재, 생산품 등의 원활한 유통, 공급 |
| 도시지원시설용지 | · 주력산업, 주거, 업무, 상업 등 주 기능의 확장성 대비 및 지원 기능을 주 기능 주변에 배치 -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행정·금융·전시 교류 서비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1. 산업 입주 수요

1) 바이오·정밀의료 수요

- 국내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 식품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바이오자원산업, 바이오서비스산업 등으로 구분
 - 국내 바이오산업 기업 수는 1,027개(2020년 기준)이며, 매출액은 7조 4천억 원(2019년 기준) 수준
- 고양특례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입주 목표는 2030년 기준 국내 전체 시장의 1% 수준인 34개임
- 국내 의료산업은 크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으로 구분
 - 국내 의료산업 기업 수는 69,271개(2019년 기준)이며, 매출액은 155조 3천억 원(2019년 기준) 수준
- 차병원, 한미제약(한미사이언스) 등 병원과 제약사의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 등을 포함하여 고양특례시 의료산업 관련 기업입주 목표는 2030년 기준 국내 전체 시장의 1% 수준인 1,211개임

2) K-컬처, 디지털 미디어, IP

-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 원 달성(2020년 128조 원), 수출액 230조 원 달성(2020년 119조 원), 한류 팬 2억 명 달성(2020년 1억 명) 등을 목표로 제시

- 국내 콘텐츠 기업 수는 104,136개(2019년 기준)로 이중 고양특례시가 집중 육성하고있는 방송·영화·광고 분야의 기업 수는 9,608개이며, 지식정보·콘텐츠 솔루션 관련 기업 수는 11,935개임⁶⁾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국내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중 방송·영화·광고, 지식 정보·콘텐츠 솔루션 기업(21,543개)의 약 3%에 해당하는 650개의 기업집적을 목표로 설정(650개)

3) 시스템 반도체 수요

-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한 5,559억 달러, 이 가운데 시스템반도체의 비중은 55.6%이며, 시장 규모는 3,091억 달러임
 - 세계반도체무역통계(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WSTS)는 2022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21.2% 증가한 3,745억 달러로 전망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PC·모바일에서 자동차·로봇·에너지·바이오 등 전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시스템반도체(데이터 연산·제어기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추세
- McKinsey사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규모가 2021년 5,9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650억 달러 규모로 8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6~8%로 전망
 - 전망의 가정: 평균 물가상승률 2%, 현재의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안정화
-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 전망(2030년 반도체 시장 규모 1조 달러 돌파), 반도체 고급인력의 서울 인접 지역 거주 선호 경향, 향후 파운드리 공장의 추가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반도체 앵커기업 유치 활동 전개

⁶⁾ 문화체육관광부, “2020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2021. 9.

- 고양특례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력이 한국 전체 반도체 인력의 10% 점유 목표

[표 5-3] 맥킨지사의 반도체 시장 전망

| | 2021 | 2030 | 연증가율(%) | 성장기여율(%) |
|-------------|------|-------|---------|----------|
| 유선통신 | 35 | 60 | 6 | 5 |
| 가전 | 50 | 95 | 7 | 10 |
| 산업용전자 | 60 | 130 | 9 | 15 |
| 자동차전자 | 50 | 150 | 13 | 20 |
| 무선통신 | 170 | 280 | 6 | 25 |
| 컴퓨팅 및 데이터저장 | 225 | 350 | 5 | 25 |
| 합계 | 590 | 1,065 | 7 | 100 |

자료: McKinsey & Company, "The semiconductor decade: A trillion-dollar industry," April 2022

4) 입주의향 확보 현황

- A 지구 내 일산테크노밸리 투자 및 입주의향 기업 현황 (입주의향 및 수요 접수, 대면상담 등)

[표 5-4] 산업별 입주의향 확보 현황

| 산업분야 | 관내 | | 관외 | | 합계 | |
|---------|-------------|-------------|-------------|-------------|-------------|-------------|
| | 기업 수 (개) | 수요면적 (평) | 기업 수 (개) | 수요면적 (평) | 기업 수 (개) | 수요면적 (평) |
| 메디컬·바이오 | 12 | 18,082 | 56 | 81,491 | 68 | 99,573 |
| 미디어·콘텐츠 | 13 | 10,715 | 39 | 38,362 | 52 | 49,077 |
| IT 산업 | 12 | 8,696 | 48 | 28,116 | 60 | 36,812 |
| 기타(제조) | 51 | 52,010 | 35 | 34,082 | 86 | 86,092 |
| 기타(도소매) | 15 | 12,100 | 7 | 3,500 | 22 | 15,600 |
| 건설건축 | 3 | 803 | 5 | 2,300 | 8 | 3,103 |
| 금융보험 | 1 | 1,000 | 2 | 4,000 | 3 | 5,000 |
| 부동산 | 1 | 500 | 2 | 10,500 | 3 | 11,000 |
| 기타 | 18 | 11,000 | 18 | 15,150 | 36 | 26,150 |
| 합계 | 126 | 114,906 | 212 | 217,501 | 338 | 332,407 |

출처: 더비엔아이(2021),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수립"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계획

1.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유치 계획

- 고양특례시 내 대형병원과 바이오·의료 기업 연계한 바이오·정밀의료 생태계 조성
 -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백병원, 명지병원 등 대형병원과 루트로닉, 포스콤 등의 바이오·의료 기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바이오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병원(예: 국립암센터, 암 빅데이터센터) 육성
- 지구 내 병원 인프라를 혁신적인 기술 기업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육성
 - 병원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의과학센터 및 병원 내 창업·벤처기업 입주센터를 조성
- 고양특례시 내 조성 중인 CJ 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인프라와 연계한 K-컬처 산업 육성
 - 수요자 중심의 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용지를 공급
 - 기존 고양특례시 방송영상시설(MBC, SBS, EBS, JTBC, 빛마루 등)과 현재 집적되어 있는 다양한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 간 연계 추진
 - 집적화되어 있는 방송영상 분야 후반작업 기업과 웹툰 등 OSMU(One Source Multi-Use)가 가능한 산업과 연계하여 고양특례시를 K-콘텐츠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 반도체 앵커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팹리스, 패키징, 테스트 기업을 집적화
 - 팹리스의 핵심 역량은 설계 인력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창업 지원, 수요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성장 지원
 -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테스트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 반도체 기초 기반 연구와 전공정 및 후공정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 R&D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취약한 국내 R&D 인프라 보강
 -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책 반도체 전문연구소가 부재하여 국책 반도체종합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⁷⁾
 -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R&D센터 유치

[표 5-5]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조성 계획(안) [비공개]

2. 인근 대학·연구소·지원기관 등과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연계

- 경제자유구역과 고양특례시 산·학·연 연계 사업 추진
 - 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중부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 한국항공대학교 : 반도체, 드론, UAM, 인력양성 분야 협력 사업 진행
 - 중부대학교 : 기술창업, 문화콘텐츠(웹툰) 분야 협력 사업 진행

⁷⁾ 정형곤 외,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12.

- 동국대학교 : 기술창업,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협력 사업 진행
- 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술창업,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사업 진행
 - 국립암센터 :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실감형 콘텐츠 기반 협력 사업 진행
- 경제자유구역과 고양특례시 산학연 협의체의 연계 사업 추진
 - 기술창업 지원 : 고양특례시 창업지원협의체 구성
 -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 지역본부, 동국대학교 창업원,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 고양특례시 창업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관련 산업 분야 창업 지원,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제조역량 강화 : 고양 메이커스페이스 협의체 구성
 - 참여기관: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도서관센터, 고양어린이박물관, 국립암센터, 한국항공대학교(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일반랩 운영 기관)
 - 2023년부터는 중부대학교도 참여 예정(2022년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유치)
 - 고양 메이커스페이스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관련 산업의 융복합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3. 기존 단위사업지구와의 연계 및 클러스터 구축

- 경기도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K-컬처, 디지털 미디어, IP 산업을 육성 중
 - 고양특례시를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로 조성⁸⁾

⁸⁾ 경기도,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고양특례시, 김포시, 파주시 일대에 방송영상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고, 인접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 조성
 - 고양특례시를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조성⁹⁾
 - 상암DMC, 일산테크노밸리 등 한강축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영상기능을 연계한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조성
 - 현재 관련 산업 인프라를 2025년 전후로 조성 예정
 - 경기북부 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고양특례시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IP융합콘텐츠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미디어, 콘텐츠 등 산업 육성
- 고양특례시 관련 인프라 확장 및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과 활용¹⁰⁾
- 고양특례시는 방송영상 제작 인프라의 다양성, 확장 가능성이라는 강점과 K-컬처 및 MICE 산업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K-콘텐츠 육성에 유리한 여건
 -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산학연관 협력생태계 구축
 - 클러스터가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어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산·학·연·관이 중심이 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자원 간 연계, 공유 추진
 -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추진
 - 고양특례시의 방송영상 중심의 K-콘텐츠가 갖는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차원에서 고양특례시를 거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체계적 지원
 - 일산테크노밸리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구축
 - 기존에 구축된 경기 남부 K-반도체 벨트 7개 시(미래형 스마트벨트협회체)와 연계하여 팹리스, 패키징, 테스트 기업 집적

⁹⁾ 경기도, “경기비전 2040”, 2015. 12.

¹⁰⁾ 경기연구원, “경기도 K-콘텐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고양특례시를 중심으로”, 2022. 8.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1. 용도별 배치계획

○ 산업(복합)시설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별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주변 산, 학, 연 기능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유도
- 주력산업(반도체 등)의 특성에 따라 연구시설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과 상호연계 또는 완충되도록 배치하고 광역교통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외국인 전용 산업(복합)용지는 핵심 산업, 쾌적한 정주 환경,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유치목표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필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
-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용지별 특성에 따라 주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조성

○ 연구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

-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지 확보로 핵심 산업의 확장을 지원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연구시설용지는 연구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산업용지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토록 배치하여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융복합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
- 물류시설용지는 인천국제공항·항만 및 서울,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거지를 통과하는 교통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 업무·상업용지

- 업무(국제)용지, 일반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로 구분하고, 업무(국제)용지는 글로벌 금융 및 지원기능을 포함
-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전시교류 및 지원시설기능을 연계한 활성화를 위해 유보지로 탄력적으로 계획
- 일반상업용지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 일반, 근린상업으로 구분하여 도시의 중심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고 도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정 규모로 배치

○ 주택건설용지

- 주택건설용지는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단독, 공동, 주상복합 등)을 적정 밀도로 배분
- 통근·통학 거리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역세권 및 주변 주거지와 연계하여 배치
- 단독(저층)주택용지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밀도로 배치하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 주택건설용지 조성 시 수변·녹지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 수립

○ 도시기반용지

- 원활한 도시기능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과 상주·상근인구를 위한 다양한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를 적정 배치
- 특히, 생활SOC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이용객 편의성 극대화 유도

2. 기본 구상

1)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6]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 [비공개]

2) 토지이용계획 및 구상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7] 토지이용계획(안) **[보안주의]**

[그림 5-3] A 지구 종합구상도 [보안주의]

[그림 5-4] A 지구 외투기업, 복귀기업 전용용지 **[보안주의]**

[그림 5-5] A 지구 토지이용계획(안) **[보안주의]**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1. 토지 조성원가[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8] 총사업비 산정[비공개]

[표 5-9] 추진 사업별 조성원가[비공개]

2. 경제성 분석[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10] 편익 산정 기준[비공개]

[표 5-11] A 지구 편익 산정 결과[비공개]

[표 5-12] A 지구 경제성 분석 결과[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13] A 지구 조성 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 5 장

지구별 기본구상 (B 지구)

제1절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 계획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제철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1. 기본구상

1) 비전

- B 지구의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조성’을 설정
 - Global Cooperation Lab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목표

-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목표로 ① 글로벌 교류 협력 거점 도시 조성, ②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조성, ③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벨트 조성, ④ ICT 융복합 단지 조성 등을 제시

□ 글로벌 교류 협력 거점 도시 조성

- 우수한 동북아 주요 도시 접근성과 접경 지역 상징성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도시 조성
 - 반경 40km 이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경인 아라뱃길 등 광역 교통수단과 인접
 - 접경 지역 상징성을 이용해 경기 서·북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해 UN 관련 기구 유치

□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조성

- 한류월드,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방송국(JTBC, MBC, EBS) 등 K-콘텐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체류형 의료관광도시로 조성

- 6개 종합병원과 19개 일반병원과의 협약으로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보유
- 의료관광 분야 연구개발은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벨트 조성

- 고양 경제자유구역(B 지구, C 지구), 마곡지구, 상암 DMC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벨트 구축
 - 빅데이터, AI, 지능형 로봇 등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고양 특례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양산업진흥원과 한국항공대학교, 중부대학교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단지를 조성하고 운영
 -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첨단산업 중점 연구·개발

□ ICT 융복합 단지 조성

- 우수한 ICT 융복합 산업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ICT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ICT 융복합 혁신생태계 조성
 - ICT 융복합 산업과 전후방산업 및 기관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구

2. 사업개요

[그림 5-6] B 지구 개요 [비공개]

1) 입지여건과 인프라

□ 입지여건

- 사업대상지는 한강과 접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넓은 평지이고 북쪽 일부는 구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평탄한 지형이며,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임
 - 사업대상지는 전·답·임야 등 미개발지가 66.31%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 용이

- 사업대상지의 75.6%가 자연녹지지역이며 74.8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루어짐

□ 인프라 여건

- 뛰어난 교통망 및 광역적 입지
 - B 지구 인근의 대곡역은 향후 GTX 등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
 - 한반도~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수도권 북부의 출발지이며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의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이 우수
- 고양특례시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시설인 한국국제전시장과 다양한 방송영상시설 (MBC, JTBC, EBS, 빗마루방송지원센터 및 각종 스튜디오)이 구성되어 있어 ICT 융복합산업 육성의 최적지

[표 5-14] B 지구 산업별 주요 인프라 현황

| 구분 | 인프라 현황 |
|---------|---|
| 의료관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차병원 등 • 중국,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대규모 전시장(KINTEX) 보유 • 호수공원과 연계한 꽃박람회 전시장 보유 • 국내 최고의 공연시설 보유(아람누리, 어울림누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서오릉, 서삼릉) • 6개 종합병원, 19개 일반병원 |
| ICT 융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 방송융합 콘텐츠 기업 집적도 1위 • MBC 드림센터, SBS 제작센터, EBS, JTBC • 동양 최대 아쿠아스튜디오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및 K-컬처밸리 조성(CJ) • IP융복합컨텐츠클러스터 |

2) 사업구상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B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사업시행자: 고양특례시, 고양도시관리공사, 민간사업자
 - 글로벌 교류 협력 거점도시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및 ICT 융복합 단지 조성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1. 도입기능 설정

1)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 특화 산업의 희소성

- 현행 9개 경제자유구역 중 R&D 센터 및 ICT 융복합산업(실감형 콘텐츠 중심)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없음
 - 고양특례시와 인접한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R&D 센터 및 전후방 ICT 융복합 산업 관련 외투기업 유치 가능

□ 우수한 정주 여건

- 타 경제자유구역 대비 우수한 정주 여건으로 ICT 융복합 산업과 4차 산업 관련 고급인력 유치 용이
 -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타 경제자유구역 대비 고급 연구 인력 수급에 유리
 - 관내 대학 이외에도 서울 전역 대학의 인력 수급 가능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수도권 3호선 등이 구축
 - GTX-A 노선 조성 완료 시 서울로의 접근성 20분 이내로 단축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고양특례시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 중앙정부정책

- 정부의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의료관광 + K-한류 문화 콘텐츠 거점 + 킨텍스 전시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육성 전략과 연계
 -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에 ICT를 적용하고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민관 합동 투자를 통해 기술 융합으로 ICT 기반의 제작 생태계 혁신
-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과 연계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문화산업 분야 R&D 인력양성
- 실감콘텐츠사업 활성화 전략과 연계해 홀로그램, A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등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고도화 추구
-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과 연계해 차세대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은 고양특례시가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음

□ 경기도정책

- 경기비전 2040과 연계해 ICT 산업에 기반한 미래 융복합산업 집중 육성
 - ICT 융복합 매체 산업(디지털 영상기술, 네트워크, 방송통신 등)의 빠른 발전과 OSMU(One Source Multi-Use)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 부분과의 동반 성장 추진
 - 경기도는 ICT 산업을 활용한 미래 융복합 신성장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안정적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경기지역 발전 방향과 연계해 국제교류협력도시로 성장
 - 대륙연계 내륙물류시설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항만 및 공항지역의 배후 물류 기능 개발 및 활성화
 - 접경 지역의 상징성과 우수한 교통접근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및 혁신생태계 구축
 - UN 등의 국제기구 유치 및 킨텍스를 활용한 국내외 회의 개최, 스마트시티 실증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 고양특례시 정책

-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 킨텍스를 활용한 의료관광 관련 지식,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
 -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 제공, 통역 서비스 분야 인력양성 및 지원
 - 고양특례시 내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고양관광특구 등을 활용하여 체류형 의료 관광도시로의 육성 추진
-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 중 경제·산업 개발계획과 연계해 기존산업인 콘텐츠 산업과 ICT 기반 신기술을 활용해 클러스터 조성
 - ICT, 방송을 융복합하고, 실감콘텐츠 등의 신산업 창출
 - 해외 우수한 교육 및 연구기관을 유치해 관내 산학연 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3) 인근 지역 및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R&D, ICT 융복합산업 관련 경기도 허브 역할 수행
 - B 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DMC, 마곡지구), 고양특례시(일산테크노밸리 등)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R&D, ICT 융복합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고양 브로멕스 타워, 김포한강시네폴리스를 방송, 영상,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 서비스, 소비의 복합거점으로 육성하고 김포 신도시와 연계¹⁾
- 인접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업 육성
 - B 지구를 경기도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R&D 허브’로 조성하여 인접 경제자유구역과 다양한 ICT 융복합 분야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인접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기업과 융복합 밸류 체인을 구축하여 ICT 융복합산업의 해외 수출입 전진기지 역할 수행

¹⁾ 경기도,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2. 공간계획

1) 토지이용계획[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15] 용지별 면적 및 비중[비공개]

○ 기본방향

- 고양 B 지구의 성장 핵심 원동력은 경기서북부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Hub & Spoke’의 기능적 흐름을 고려한 도입 기능 설정
- 중심지 체계 및 생활권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기능의 합리적 배분
- 원활한 도시기능 수행을 위해 적정 주거, 상업, 산업, 공공기능을 배분하고 생활권별로 필요한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을 계획
- 체계적인 연계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용도별 적정기능을 배분

2) 기반시설 조성계획

○ 도로시설 조성계획

- 사업대상지 주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간선도로 계획 수립
-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 지향 개발) 개념의 대중교통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 단지 내 도로와 주변 주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구 내 주간선-보조 간선-집산-국지도로 등 위계에 따른 내부 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 체제 구축
- 역세권, 주요 산업시설, 주거지역을 연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동체계 구축

○ 철도시설 조성계획

- 지구 내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교외선 재운행(역 2개소), 고양선(신설역 1개소)을 반영한 기능 배치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대상지 내 주요 기능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용수시설 조성계획

- 산업별 필요 용수는 원능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재이용수를 활용
- 생활용수 공급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아 거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각 지역으로 공급

○ 전력시설 조성계획

- 전력수요량은 해당 토지이용 계획상 용지별로 구분하여 산정
- 전력수요량 원단위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2015)」상 건축물의

용도별 단위전력 부하율 및 수용률을 적용

- B 지구 개발에 따른 최대 전력수요는 1,533,512 KVA
-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변전소 설치 및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 통신시설 조성계획

- 지구 내 정보통신을 위한 광케이블을 공급하여 글로벌 정보화 시대 기업, 연구 기관, 공공, 학교, 주택 등 분야별 요구(Needs)에 맞는 스마트정보통신망 구축
- 최근 트렌드인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등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 단지 내 공동구 설치를 통해 통신선로는 지중화하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그림 5-7] B 지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 **[보안주의]**

3) 용도별 규모 산정 및 도입가능

- 주거, 주거복합, 상업, 도시기반시설은 B 지구 인근의 용도별 배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
- 산업(복합)시설은 핵심 전략산업인 ICT, 4차산업 기반 R&D 분야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 등 국내 수요 및 유치 목표치를 분석하여 종사자 및 산업별 필요면적을 근거로 규모 산정

[표 5-16] 용도별 세부 도입가능

| 구 분 | 세부 기능 |
|--------------|--|
| 산업용지 | · 지구 내 주력산업 집중 배치 - ICT 융복합산업, 4차 산업혁명 R&D, 글로벌 교류거점, UN 기구 |
| 산업복합용지 | · 주력산업과 산·학·연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 연구시설용지 | ·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지 확보로 핵심 산업의 확장을 지원 |
| 물류시설용지 | · 주력산업의 원자재, 생산품 등의 원활한 유통, 공급 |
| 도시지원 시설용지 | · 주력산업, 주거, 업무, 상업 등 주 기능의 확장성 대비 및 지원 기능을 주 기능 주변에 배치 -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행정·금융·전시 교류 서비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1. 의료관광

- 전략 컨설팅 업체인 Glasgow Research & Consulting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 관광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최대 9.7% 성장하며, 연간 약 4,400만 명이 의료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은 부족한 의료 시스템 자원으로 의료관광 수요가 높음
 -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유방/지방흡입), 심장·심장외과(심장우회술/스텐트 삽입), 정형외과(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술), 비만수술, 난임치료, 장기이식, 치과 등 자국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²⁾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49.7만 명인 것으로 집계, 환자와 보호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3조 331억 원으로 추정
 -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합법화
 - 2009년 이후 의료관광 지출액은 연평균 23.5% 증가
 - 의료관광은 선진 의료수준과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후 관광 성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높은 사업영역으로 기대되고 있음.³⁾
-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에 기반해 2011년부터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관광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보유
 - 고양특례시에는 외국인 유치 관련 병·의원 29개, 유치업체 31개가 등록

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거시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 2021

³⁾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kto.visitkorea.or.kr/kor/biz/marketing/medical/intro.kto>)

-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주 타겟 국가 대상으로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의료관광 팸 투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고양특례시 방문 외국인 환자 수는 2011년 941명, 2015년 3,421명, 2019년 6,238명 등으로 8년간 6배 이상 증가

2. ICT 융복합

- B 지구 ICT 융복합 산업의 주요 추진분야는 실감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분야로 실감컨텐츠는 코로나 이후 메타버스 서비스 가입자 확산, 오쿨러스 퀘스트2의 흥행 등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1)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실감컨텐츠 시장은 전년 대비 73.1%로 고성장해 273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5년까지 연평균 35.2% 성장한 1,237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
- KT 그룹이 고양특례시에 미디어 센터 구축을 위해 5년간 27조를 투자할 계획이며 미디어 센터 및 관련 산업 분야에 2.8만 명을 채용할 예정
 - 벤처·스타트업 등에도 3조 원 투자 예정으로 관련 기업입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MBC C&I, 텍스터 스튜디오, 웨스트월드, 인터버드, 쿠진 등은 고양특례시에 100억 원 이상의 투자의향이 있다고 ‘고양테크노밸리 기업 수요조사(2021)’에서 밝힌 바 있음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 계획

1.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유치 계획

- CJ 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고양 특례시를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의 메카로 육성
 - 디지털영상 앵커시설 및 앵커기업 유치
 - 디지털 영상 및 VR/AR/XR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에 집적하여 육성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치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2025년 조성 예정)를 중심으로 고양특례시를 콘텐츠 IP 분야 중심지로 육성(국내·외 다양한 IP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가 이루어지는 콘텐츠 IP 융복합 생태계를 조성)
-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국내 의료관광 전략 보고서에서 고양특례시에 ‘웰니스&의료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제안한 바 있음.
 - 관내 우수한 의료 인프라 외에도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MICE 산업 연계 가능
 - 킨텍스를 활용한 의료관광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가능
- 한국관광공사의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 및 분석 보고서(2018)’에 따르면 고양 특례시는 5개 지수⁴⁾ 모두에서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내 관광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음

4)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관광 정책, 관광자원집적, 관광수요촉진, 포용적 성장, 관광성으로 구분해 상대적인 비교를 가능케하는 지수

- 특히, 지자체의 가시적 관광성과를 의미하는 관광성과지수의 경우 125.34점으로 경기도 평균인 102.43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

2. 산·학·연·관 연계로 미래 지향적 혁신생태계 제시

- 의료관광 분야의 연구개발은 고양특례시 내 소재한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병원 등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
 - 특히, 국립암센터는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 사업본부와 대학교, 대학원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암 전문기관이며 암 관련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융복합 암 연구 선도기관⁵⁾
 - 세계보건기구(WHO)와 17년 연속 협력 센터로 지정⁶⁾
 - 국제암연맹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 기관으로 4년째 협력 중임⁷⁾
 - 의료관광과 ICT 융복합산업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 고양특례시는 CJ 라이브시티, AEG⁸⁾와 K-컬처 클러스터 조성 및 외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 고양특례시는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 및 콤플렉스 구축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
 - CJ 라이브시티와 AEG는 글로벌 공연유치, MICE 관광 홍보, K-컬처 도시 브랜드 강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

5)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s://www.ncc.re.kr/main.ncc?uri=info_about)

6) 의학신문, “국립암센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17년 연속 지정 쾌거”, 2022.2.16

7) 서울경제, “국립암센터, 내년에 국제암연맹 국내 유일 파트너기관 활동…4년째 협력”, 2022.10.28

8) 미국의 대형 공연 기획사, 특히 BTS의 글로벌 파트너로 전 세계 300여 개의 아레나, 컨벤션 센터를 운영 중임

- 관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혁신 인프라 강화
 - 고양특례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관련 분야 대학을 지구 내 유치하기 위해 서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명문대학교의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계획
 - 고양특례시 전략산업 육성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과 고양특례시 내 대학 및 지역 인근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융복합 연구기술단지를 조성
 - 고양특례시는 산학연 협의체별 다양한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도출된 과제 가운데 현장에서 사업화가 필요한 분야는 다양한 국도비 유치를 통해 지원
 - 고양특례시 전략산업은 관내 및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시장의 전망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3. 기존 단위사업지구와의 연계 및 클러스터 구축

- 경제자유구역 산업별 생태계를 활용한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복합리조트 중심 관광 생태계 조성
 - 복합리조트 중심의 관광 서비스 산업을 통해 MICE 등 연관 산업 육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북미에서 아시아로 복합리조트 산업의 중심지가 이동
 -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영상관광, 의료관광, 거리공연 축제, 전시·컨벤션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하여 한류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도시 구축
-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ICT융복합산업 인프라(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를 조성 중임
 -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는 ICT 융복합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양특례시에 조성될 예정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1. 용도별 배치계획

- 산업(복합)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
 -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별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역세권 복합기능, 업무, 연구기능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유도
 - 주력산업(ICT융복합산업)의 특성에 따라 4차 산업기반 연구시설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과 상호연계 또는 완충되도록 배치하고 광역교통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결정
 - 외국인 전용 산업(복합)용지는 핵심 산업, 쾌적한 정주 환경,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유치목표 업종의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함
 -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용지별 특성에 따라 주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조성함
- 연구시설용지
 -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지 확보를 통해 핵심 산업의 확장을 지원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연구시설용지는 연구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산업용지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융복합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

○ 업무·상업용지

- 업무(국제)용지, 일반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로 구분하고, 업무(국제)용지는 글로벌 금융기능, 국제 전시 교류, 지원시설기능을 포함하여 활성화 극대화 유도
- 일반상업용지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 일반, 근린상업으로 구분하여 도시의 중심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고 도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정 규모로 배치

○ 주택건설용지

- 주택건설용지는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단독, 공동, 주상복합 등)을 적정 밀도로 배분
- 통근·통학 거리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역세권 및 주변 주거지와 연계하여 배치
- 단독(저층)주택용지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밀도로 배치하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 주택건설용지와 연계된 수변·녹지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 수립

○ 공공시설용지

- 원활한 도시기능을 위한 주요공공시설과 상주·상근인구를 위한 다양한 생활 SOC를 적정 배치
- 특히, 생활SOC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 거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이용객 편의성 극대화 유도

2. 기본 구상

- 1) 외투/유턴 기업, 첨단기술/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용지 공급계획 **[보안주의]**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17]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비공개]**

2) 토지이용계획 및 구상 **[비공개]**

[표 5-18] 토지이용계획(안) **[비공개]**

[그림 5-8] B 지구 종합구상도 **[비공개]**

[그림 5-9] B 지구 외투기업, 복귀기업 전용단지 **[비공개]**

[그림 5-10] B 지구 토지이용계획(안) **[비공개]**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1. 토지 조성원가[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19] 추정 총사업비 [비공개]

1) 조성원가 수준 적정성 [비공개]

[표 5-20] 추진 사업별 조성원가 수준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경제성 분석 [비공개]

1) 사업비 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 [비공개]

[표 5-21] 편익 산정 기준 [비공개]

[표 5-22] B 지구 편익 산출 결과[비공개]

[표 5-23] B 지구 경제성 분석 결과[비공개]

2) 비용 산출 방법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편익 산출 방법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경제자유구역 조성 완료 시 생산 및 고용 창출 규모 **[비공개]**

[표 5-24] B 지구 조성 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 5 장 지구별 기본구상 (C 지구)

제1절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 계획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제철 기본구상 및 사업개요

1. 기본구상

1) 비전

- C지구의 비전으로 지능형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을 설정
 - Test-bed for Intelligence Systems

2) 목표

□ 경기북부의 新성장 전략 거점

- 스마트 모빌리티, AI, UAM, 드론 복합 플랫폼 산업 육성
 - 파주, 김포, 양주, 의정부 등 인근 지역과 동반 성장의 시너지를 위한 성장 거점

□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 관내 대학·연구기관과 인재육성·지원·협업-기업성장의 선순환 산업 생태 환경 조성
 -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산업과 관내 대학(한국항공대·중부대) 연계
 - 항공대-보잉-에어버스-록히드마틴과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항공 산업 거점으로 도약

□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생태계 新 모델 제시**

- 플랫폼 기반의 첨단 AI·모빌리티·빅데이터 산업의 지구 내 집적화
 - 한국항공대학교 인근 지역에 조성 중인 드론앵커센터와 기 조성된 대덕드론 비행장과 연계하여 드론산업 및 UAM 분야를 육성

□ **인근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 마곡-상암DMC-일산테크노밸리-파주LCD를 잇는 新 클러스터 조성
 - 마곡 바이오 R&D·덕은미디어밸리·창릉신도시·상암DMC 첨단 미디어산업 등 연계 가능한 풍부한 배후 생태환경 기반 강화
 - 상암·마곡지구, 일산테크노밸리, 파주와 동반 성장하는 성장형 생태계 및 클러스터 조성

[그림 5-11] C 지구 비전과 목표



2. 사업개요

[그림 5-12] C 지구 개요 [비공개]

1) 입지 여건과 인프라

□ 입지여건

- 사업대상지는 한강과 접하고 있으며 대부분 넓은 평지이고 북쪽의 일부는 구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평탄한 지형이며,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임
- 사업대상지는 전·답·임야 등 미개발지가 64.67%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함
- 사업대상지의 92.77%가 자연녹지지역이며 92.3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인프라 여건

- 뛰어난 교통망 및 광역적 입지
 - 대곡역은 향후 GTX 등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
 - 한반도~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수도권 북부의 출발지이며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의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이 우수
- 경기북부 글로벌 혁신 허브로 C지구 인근 및 고양시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의 거점 역할 가능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고양시는 글로벌혁신 허브로 경기북부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계획
 - 인근 마곡지구의 첨단기술(IT, BT, GT, NT)과 글로벌 R&D센터,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연계한 국제적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
 - 마곡-창릉-C 지구-일산테크노벨리-B 지구의 클러스터 구축

2) 사업구상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C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사업시행자: 고양특례시, 고양도시관리공사, 민간사업자
 - 지능형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팀 고양

제2절 도입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

1. 도입기능

1)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 특화 산업의 희소성

- UAM과 드론은 타 경제자유구역에는 전략 산업으로 추구하지 않는 산업으로 희소성과 차별성이 있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정한 경제자유구역은 존재하지 않음

□ 우수한 관내 인프라

- 한국항공대, 중부대는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중점 추구 중임.
- 한국항공대 인근 지역에 조성 중인 드론앵커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대덕드론비행장과 연계해 드론산업 및 UAM 분야를 육성
- 한국항공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운영의 일환으로 드론, 전기차, 로봇 등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우수한 인프라와 경제자유구역의 제도를 이용해 드론 및 UAM 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이 가능함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고양특례시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 중앙정부정책

- 정부는 빅데이터를 국가 사회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지목
 - 데이터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
 - 소비자 시장 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최적화와 의사결정에 빅데이터가 주로 활용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2022년 핵심 추진 과제(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드론,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
 - 도심에는 배송로봇, 도서·산간지역에는 드론을 통해 신속한 배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다중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 실증 범위 확대 예정

□ 경기도 정책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고양시는 글로벌혁신 허브로 경기북부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계획

- 경기연구원(2022)¹⁾은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의 혁신역량 기반이 미흡하며, 경기북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C 지구 인근 및 고양시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의 거점 역할 가능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경기지역 발전방향과 연계해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 물류복합단지 조성 과 드론·UAM 등을 ICT 기술과 융복합해 물류 및 유통시스템 혁신

□ 고양특례시 정책

-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0. 1. 7.)
 - 고양시-항공대-건설기술연구원 UAM 산업 관련 업무 협약
-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고양특례시와 중부대는 국내 최초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랩인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 및 운영 중이며 혁신 생태계를 조성
 - 고양특례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NIPA²⁾, NIA³⁾ 등과 다양한 빅데이터와 AI 관련 사업을 수행 중
 - 고양특례시 내 한국항공대학교, 건설기술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드론 및 UAM 생태계 구축

1) 조성택(2022),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한국정보화진흥원

2. 공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25]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비공개]

○ 기본방향

- 글로벌 경쟁 시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한국항공대학교와 연계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및 산업 생태계 환경 구축
- 창릉신도시, 덕은지구, 상암DMC 등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대상지 내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을 고려한 도입 기능 및 높이 계획 수립
- 중심지 체계 및 생활권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기능의 합리적 배분
- 원활한 도시기능 수행을 위해 적정 주거, 상업, 산업, 공공기능을 배분하고 생활권별로 필요한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계획
- 자연 및 인문 환경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한 기능 적정 배분 및 상위 계획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 기반시설 조성계획

○ 도로 조성계획

-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제2자유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간선도로 계획 수립
- 행주동 ~ 상암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와 창릉신도시(화랑로)~덕은지구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계획
- 단지 내 도로와 주변 주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구 내 ‘주간선-보조간선-집산-국지도로’ 등 위계에 따른 내부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 철도 조성계획

- 공항철도 역사 1개소 신설 및 경의·중앙선 접근성 제고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대상지 내 주요 기능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신규 도입

○ 용수 조성계획

- 산업별 필요 용수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재이용수를 활용
- 생활용수 공급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아 거점 배수시설을 설치해 각 지역으로 공급

○ 전력 조성계획

- 전력수요량은 해당 토지이용 계획상 용지별로 구분해 산정
- 전력수요량 원단위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2015)’ 상 건축물의 용도별 단위전력 부하율 및 수용률을 적용
- C 지구 개발에 따른 최대 전력수요는 478,749 KVA

-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변전소 설치 및 한전과 연계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 통신 조성계획

- 지구 내 정보통신을 위한 광케이블을 공급해 글로벌 정보화시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교, 주택 등 분야별 요구에 맞는 스마트정보통신망 구축
- 최근 주요 화두인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등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 단지 내 공동구 설치를 통해 통신선로는 지중화하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그림 5-13] C 지구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조성 계획 [비공개]

3) 용도별 규모 산정 및 도입가능

- 주거, 주거복합, 상업, 도시기반시설은 C 지구 주변 지역의 용도별 배분 특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계획
- 산업(복합)시설은 핵심 전략산업인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AI, UAM·드론 산업 등의 국내 수요 및 유치 목표치를 분석해 종사자 및 산업별 필요면적을 근거로 규모 산정

[표 5-26] 용도별 세부 도입가능

| 구 분 | 세부 기능 |
|--------------|--|
| 산업용지 | · 지구 내에 주력산업 집중 배치 -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AI, 지능형로봇, UAM·드론 산업 |
| 산업복합용지 | · 주력산업과 산·학·연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 연구시설용지 | ·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지 확보로 핵심 산업의 확장을 지원 |
| 물류시설용지 | · 주력산업의 원자재, 생산품 등의 원활한 유통 및 공급 |
| 도시지원 시설용지 | · 주력산업, 주거, 업무, 상업 등 주 기능의 확장성에 대한 대비 및 지원 기능을 주 기능 주변에 배치 -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행정·금융·전시 교류 서비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

제3절 산업 수요 검토

1. 스마트 모빌리티

□ 세계 모빌리티 시장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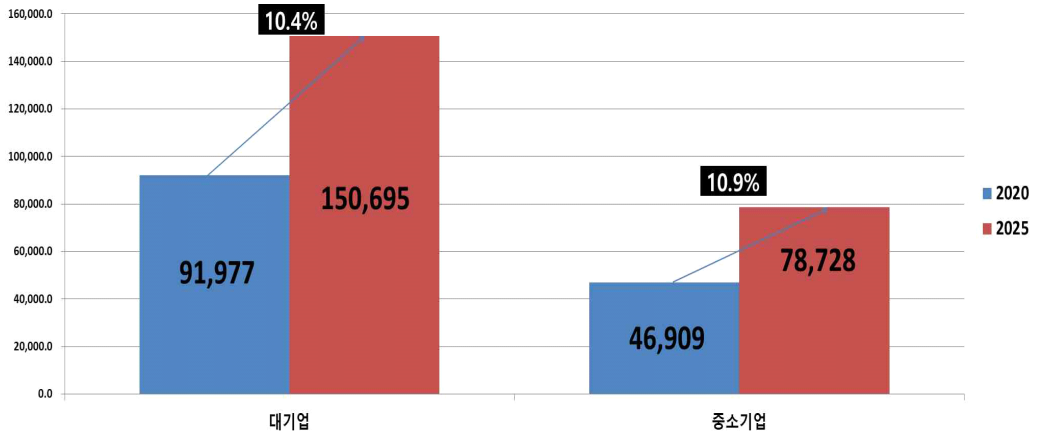
- 맥킨지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5년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서 2030년 1조 5000억 달러(약 2,000조 원)로 커질 전망
 -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3개 지역(유럽, 아시아·태평양, 북미)이 독점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시장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국토교통부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고양 C 지구는 타 지역 대비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우수한 인프라(메이커 스페이스 등)를 보유해 경쟁력이 있음

2. AI, 빅데이터

□ 조직 규모별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

- 시장 조사 업체인 Marketsandmarkets Research에 따르면 빅데이터 산업의 대기업 시장규모는 2020년 919억 7,7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506억 9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연평균 10.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동일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시장규모는 2020년 469억 900만 달러에서 2025년 787억 2,8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연평균 10.9%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5-14] 빅데이터 시장 규모



출처: Marketsandmarkets, "Big Data Market(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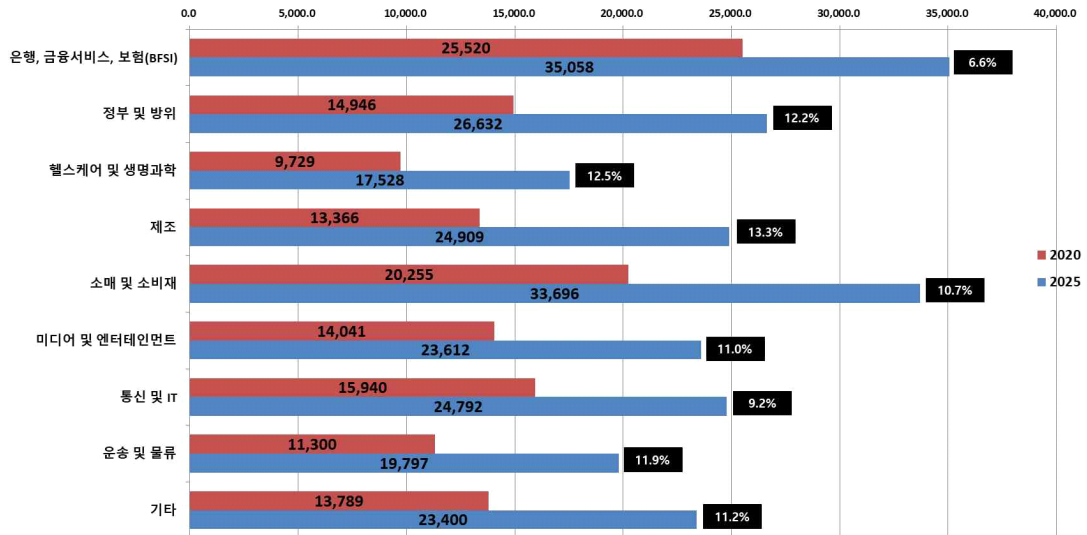
○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산업 규모

- 산업 분야에 따라 은행·금융서비스·보험(BFSI), 정부 및 국방, 헬스케어, 생명과학, 제조, 소매 및 소비재,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통신 및 IT, 운송 및 물류, 기타로 분류됨

○ 저출산, 저성장 시대 도래, 생산성 혁신 요구, 삶의 질 향상 추구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은 성장 중임

- 산업부는 2022년 로봇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그림 5-15]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업종별 시장 규모와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 "Big Data Market(2020)"

○ 고양특례시 관내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 국립암센터는 국가암데이터센터·암빅데이터센터 등을 운영 중이며 정밀의료 시행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 고양산업진흥원과 경기도 빅데이터센터 등의 연계를 통한 사업 확장이 가능함

3. 드론, UAM

1) 드론

- 고양특례시는 SK텔레콤과 ‘고양시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고양 드론앵커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기술지원 협력
 - 드론 관련 신사업모델 공동 발굴 및 협력 활성화
 - 드론 통신 관련 소부장 개발에서의 상호 협력
- 시장 조사기관인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2021)에 따르면 전 세계 군용드론 시장은 2021년 130억 달러에서 2026년 180억 달러로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약 1,000여 개의 드론을 사용 중임
 - 우리 정부도 2022년 군용드론 구매에 375억 원을 투입함. (2021년 대비 6배)

[표 5-27] 드론 활용 현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드론

국내업체가 개발한 수소드론

- ‘고양특례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월에 제정해 드론 산업을 전략산업화
 - 관련 기업 유치 및 관리에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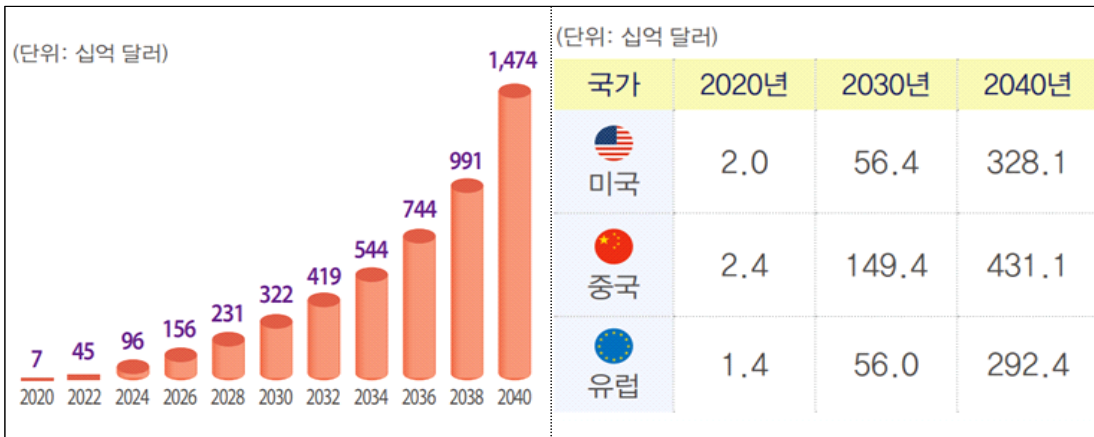
2. UAM

-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UAM 산업 관련 대기업과 협업 및 유치 협의 중

[표 5-28] 전 세계 UAM 시장 규모 전망과 주요 지역별 UAM 시장 전망

< 전 세계 UAM 시장 규모 전망 >

< 주요 지역별 UAM 시장 전망 >



* 출처 : Morgan Stanley(2019), 전경련(2022)

- Morgan Stanley(2019)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22년 45억 달러에서 2040년 1,47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UAM 분야 주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유럽이 꼽히며 중국이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두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함
- C 지구 내 버티포트(드론 및 플라잉카 전용 공항)를 구축하고 UAM 클러스터를 조성해 드론과 UAM 분야를 중점 육성
 - 고양 드론앵커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무인이동체산업 분포를 고려해 드론 산업과 혁신클러스터 간 연계를 추진하고 UAM 분야 새로운 산업 창출

제4절 지구별 특화산업 발전 계획

1.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유치 계획

□ 스마트 모빌리티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스마트 모빌리티를 확대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지능형 무인 이동체 테스트 베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구축
-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하드웨어·센서·소부장 기업과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지구 내 집적화

□ AI, 빅데이터 혁신생태계 구축

- 고양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AI 분야 기업집적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한국항공대학교, 중부대학교와 연계해 인력양성 국비사업을 유치
-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암빅데이터센터와 고양산업진흥원, 경기도 빅데이터 센터 등의 시설과 연계해 사업을 확장
-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센터 유치, 빅데이터 관련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AI 관련 기업을 집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 R&D 센터와 연계

- 마곡·C 지구·B 지구·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R&D 센터와 연계해 AI 기술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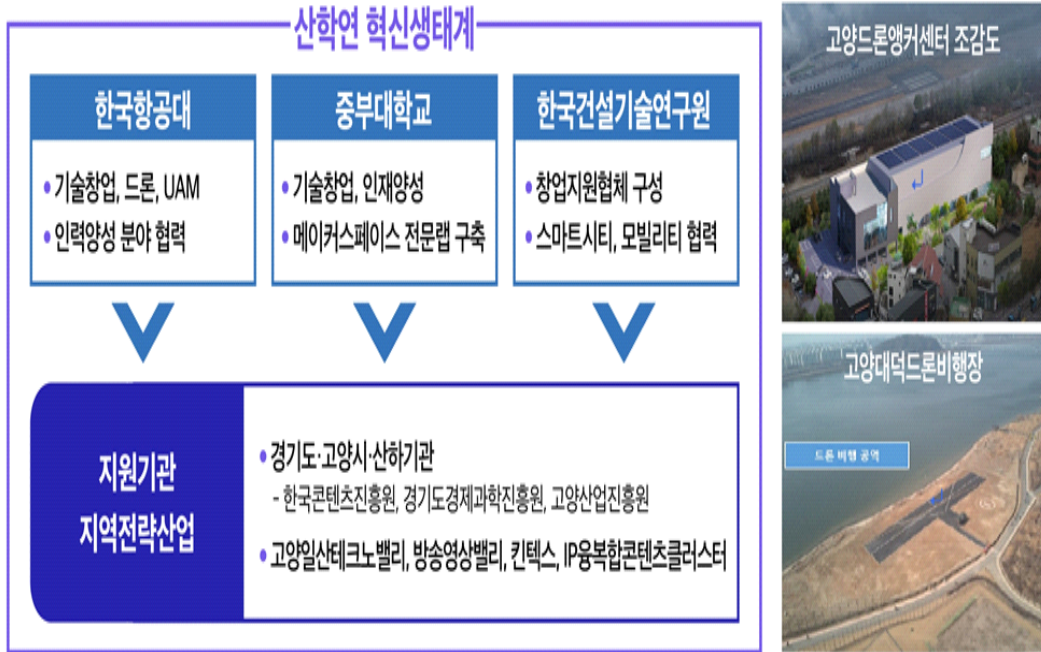
- AI 기술과 로봇 기술력의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사업 추진

□ 드론, UAM 산업

- 드론 제작업체 입주공간, 드론 R&D센터, 공동작업실 등을 조성해 입주기업을 지원
- 2021년 1월 18일 고양특례시 드론산업팀 구성, 드론산업 육성 지원, 드론 관련 유망 기업 발굴 및 기업유치, 드론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드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UAM 산업 생태계 조성

2. 산·학·연·관 연계로 미래 지향적 혁신 생태계 제시

[그림 5-16] C 지구 산·학·연·관 연계 혁신생태계



□ 한국항공대

- 에어버스, 보잉, 록히드마틴 등 관련 분야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한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운영해 모빌리티 관련 SW(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부대학교 퍼스널 스마트모빌리티 전문랩(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 제품설계실, 양산룸, 시제작품실, 시험실, 측정실 등을 운영하고, 기업지원 공간을 구축
 - 기술 기반 창업 메이커 양성 및 아이디어 기반 제조 창업 저변 확대

□ 경기도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계획과 연계

- 고양산업진흥원과 경기도 기업지원기관을 연계해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입주공간과 자금 등 지원

□ 드론 생태계 구축

- 국내 최대 드론앵커센터 보유, 한국항공대학교와 관내 관련기관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고양 드론비행장 운영, 경기 북부 최초의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 유치, 드론산업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운영, 입주기업과 드론앵커센터 연계 추진,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R&D, 멘토링 지원역량 강화
 - 고양산업진흥원과 연계해 드론 관련 기업체 지원

3. 기존 단위사업지구와의 연계 및 클러스터 구축

□ 경기북부 최고의 입지 여건 보유

- 대표적 1기 신도시로 기존 인프라와 창릉지구 및 덕은지구 등 공공주택 사업으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40분), 김포국제공항(20분) 접근 가능한 교통 요충지이며, 지하철 경의중앙선, 광역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광역교통이 탁월
- 항공대, 건설기술연구원, 서울 주요 대학 등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

□ 상암 DMC, 마곡 R&D센터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육성

- 상암DMC, 마곡R&D센터를 비롯 인근 파주시, 김포시 등과 연계해서 경기도는 고양시를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조성
- 고양시 대학[한국항공대{반도체학과(대학원),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중부대(스마트모빌리티전공, 문화콘텐츠학부), 동국대학교(바이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바이오)]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IoT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하기 위한 리빙랩과 관련 분야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 중
- 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국가암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하여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신규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 사업 추진

제5절 산업용지 공급 및 배치 구상

1. 용도별 배치계획

- 산업(복합)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
 -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별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역세권 복합기능, 업무, 연구기능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유도
 - 주력산업(ICT융복합산업)의 특성에 따라 4차 산업기반 연구시설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과 상호연계 또는 완충되도록 배치하고 광역교통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결정
 - 외국인 전용 산업(복합)용지는 핵심산업, 쾌적한 정주 환경,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유치목표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필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함
 -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용지별 특성에 따라 주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조성함
- 연구시설용지
 -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지 확보로 핵심 산업의 확장을 지원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연구시설용지는 연구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산업용지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융복합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

○ 물류시설용지

- 철도 및 서울,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거지를 통과하는 교통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 업무·상업용지

- 업무(국제)용지, 일반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로 구분하고, 업무(국제)용지는 글로벌 금융기능, 국제 전시 교류, 지원시설기능을 포함하여 활성화 극대화 유도
- 일반상업용지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 일반, 근린상업으로 구분하여 도시의 중심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고 도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정 규모로 배치

○ 주택건설용지

- 주택건설용지는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단독, 공동, 주상복합 등)을 적정 밀도로 배분
- 통근·통학 거리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고려해 배치하고 역세권 및 주변 주거지와 연계하여 배치
- 단독(저층)주택용지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밀도로 배치하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 주택건설용지와 연계하는 수변·녹지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 수립

○ 공공시설용지

- 원활한 도시기능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과 상주·상근인구를 위한 다양한 생활 SOC를 적정 배치
- 특히, 생활SOC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 거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도록 유도

2. 기본 구상

1)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 [비공개]

[표 5-29]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 [비공개]

2) 토지이용계획 및 구상 **[비공개]**

[표 5-30] C 지구 토지이용계획 **[비공개]**

[그림 5-17] C 지구 종합구상도 **[비공개]**

[그림 5-18] C 지구 외투기업, 복귀기업 전용용지 [비공개]

[그림 5-19] C 지구 토지이용계획(안) **[비공개]**

제6절 지정요건의 적합성

[표 5-31] 토지 조성원가 적정성 **[비공개]**

1) 조성원가 수준 **[비공개]**

[표 5-32] 추진 사업별 조성원가 **[비공개]**

2. 경제성 분석**[비공개]**

1) 사업비 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 **[비공개]**

[표 5-33] 편익 산정 기준 **[비공개]**

[표 5-34] C 지구 편익 산출 결과 [비공개]

[표 5-35] C 지구 경제성 분석 결과 [비공개]

2) 비용 산출 방법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편익 산출 방법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경제자유구역 조성 완료 시 생산 및 고용 창출 규모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36] C 지구 조성 시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비공개]**

(비공개) 미확정 개발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 6 장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제2장 대내외 여건 검토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으로 인해 지속 가능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산형/비대면 속성의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환경 및 산업 가치사슬 구조의 새로운 여건 변화 속에서 혁신생태계의 중심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증대
- 한국은 FDI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순유출 국가이며 유입되는 FDI의 극히 일부만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고 있는 실정
 - 2022년 상반기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의 5%가 경제자유구역에 유치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대 추세에 제동이 걸린 국제가치사슬(GVC)은 COVID-19, 디지털전환 가속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강조, 미·중 경제패권 경쟁,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의 요인으로 큰 변화가 예상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개입에 의한 GVC 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저조한 FDI 유치실적, 정부 개입에 의한 GVC 이동 가능성 증대 등은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보다 정교한 전략과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
- UNCTAD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화와 국제생산의 감속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경제특구, 새로운 유형의 경제 특구를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

-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중국, UAE 등의 경제특구 사례는 첨단산업 유치, 혁신능력 제고, 서비스경제로의 이행 촉진 등의 정책방향이 효과적임을 시사
 - 싱가포르: 혁신주도특구를 통하여 지식집약 클러스터 형성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하여 투자자유화, 서비스업 및 금융업 개방 추진
 - UAE: 테크놀로지, 전자상거래, 미디어, 헬스케어 등에 특화된 Free Zone 설치
- 정부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화 도모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별 특성화 및 차별화 방안 등을 모색
- 제2차 기본계획(2018)에서는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운영 방향 전환
 - 국내기업 역차별 시정,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산업 육성 중심 등
- 제3차 기본계획(2023년 발표 예정)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글로벌 경제환경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갖는 플랫폼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비전과 전략을 검토
 - 비전: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사례 검토

- 국내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K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의미함(경제자유구역법 제2조 제1호)
 -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형식을 취하며, 15년~20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2년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개 지역에 조성되어 운영 중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경영활동 지원, 각종 규제 완화,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외투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에 지급되는 현금지원의 일정 비율 부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3차 개발계획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현재 중점 유치 업종은 관광·레저, 의료, 유통물류, 첨단 산업, 금융 분야 등임
 - 특히, 인천 송도 지구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을 유치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2008년 지정된 경기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평택(포승, 현덕)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실시되었고 2020년부터 시흥(배곧) 지구 개발계획이 시행 중

- 2021년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사업체수는 3개로 인천 206개, 부산·진해 168개 등에 비해 매우 저조(2021년도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표)
- 경제자유구역 사례 검토 결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향과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국가 단위의 산업·지역 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명확한 컨셉의 개발방향 설정, 집중된 형태의 구역 설정,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한 사업추진체계 정립, 개발계획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에 대한 사전 대비 등

□ 제4장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

- 고양특례시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유사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이 낮아(31.01%) 자족기능이 미흡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소비 도시 패턴
- 경기도 소재 3대 특례시의 제조업 비교 결과 고양특례시의 사업체 수는 수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수원과 용인보다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데이터 분석 결과 고양특례시 기업의 성장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열악한 편임
-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의 새로운 거점’을 설정
 - 4대 전략으로 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 ② 문화상품 수출기지 조성, ③ 4차 산업혁명 기반 R&D 집적지 조성, ④ 지능형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제시
- 경제자유구역 각 지구별 산업 및 기능 배치는 중앙정부·경기도·고양특례시 정책, 고양특례시 산업입지 현황, 고양특례시 민선8기 공약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상
 - A 지구: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시스템 반도체
 - B 지구: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K-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4차산업혁명 기반 R&D 허브, ICT 융복합단지
 - C 지구: 스마트 모빌리티(UAM, 드론 포함), 빅데이터·AI, 지능형로봇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3개 지구 가운데 여건이 가장 우수한 A 지구부터 추진하고 B, C 지구는 A 지구 개발상황과 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과 개발 추진
 - 각 지구 내 산업 및 기능 배치도 기존 정책, 산업현황, 민선8기 공약 등과의 연관성이 높아 기업유치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추진
- 추진체계는 민관 융합형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 제거
-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등에 의해 조달
 - 민간자본 공모를 통해 SPC를 구성하여 사업참여자 확보 및 자금조달 도모

□ 제5장 지구별 기본구상(A 지구)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A 지구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A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개발컨셉: Future Innovation Core Technology Zone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K-컬처,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
- 입지 여건: 사업대상지의 53.99%가 미개발지이며, 미개발지 대부분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개발이 용이

○ A 지구의 비전으로 '미래혁신 핵심기술의 선도 지구'를 설정하고 4대 목표로 ①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② 신한류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③ 미래 IP 콘텐츠 집적지역 조성, ④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제시

- 고양특례시 내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과 바이오·의료 기업을 연계 육성하여 바이오·정밀의료 혁신생태계 조성
- 지구 내에 조성 중인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와 같은 인프라와 연계하여 신한류 K-플랫폼 미래산업 육성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치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2025년 조성예정)를 중심으로 고양특례시를 IP 콘텐츠 분야의 중심지로 육성
-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스템 반도체 연구 및 생산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에 기여(K-반도체 벨트의 확대)

□ 제5장 지구별 기본구상 (B 지구)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B 지구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B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개발컨셉: Global Cooperation Lab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K-컬처 인프라를 활용한 K-웰니스 바이오 헬스메디컬타운 조성
- 입지 여건: 사업대상지의 75.6%가 자연녹지지역이며 74.81%가 개발제한구역

○ B 지구의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을 설정하고 4대 목표로 ①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조성, ②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조성, ③ 4차 산업혁명 기반 R&D 벨트 조성, ④ ICT 융복합 단지 조성 등을 제시

- 우수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내 최대 전시장인 KINTEX와 연계하여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조성
- 고양특례시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K-컬처 인프라를 활용한 K-웰니스 바이오 헬스메디컬타운을 조성
- 일산테크노밸리, 상암DMC, 마곡지구로 연결되는 4차산업혁명 기반 R&D 집적 지역 육성
-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기업과 융복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시설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

□ 제5장 지구별 기본구상 (C 지구)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C 지구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고양특례시 C 지구, **면적 비공개**
- 기간 및 사업비: 2023~2032년, **사업비 비공개**
- 개발컨셉: Test-Bed for Intelligent System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UAM, 드론 등의 모빌리티 산업분야
- 입지 여건: 사업대상지의 92.77%가 자연녹지지역이며 92.33%가 개발제한구역

○ C 지구의 비전으로 '지능형 시스템 테스트베드'를 설정하고 3대 목표로 ① 경기 북부 신성장 전략거점, ② 산업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③ 혁신생태계 신모델 정립 등을 제시

- 파주, 김포, 양주, 의정부 등 인근 지역과 동반성장의 시너지를 위한 지역 전략 거점 조성
- 관내 대학·연구기관과 인재 육성·지원·협업-기업성장의 선순환 산업 생태환경 조성
- 플랫폼 기반의 첨단 AI·모빌리티·빅데이터·로봇 산업의 지구 내 집적 환경 조성

2. 후속연구 방향

-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연구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계획 수립이 필요
 - 경기도의 추가지정 신청 후보지로 선정된 A 지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필요
 - 2023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후속 연구에 반영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성공여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달려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 원칙이 ‘선 개발 - 후 기업유치’에서 ‘선 기업수요 - 후 개발’로 변경된 만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전략과 방안에 대해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비하여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의향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양특례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과 대학 신증설이 제한되어 타 지역 대비 혁신역량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양특례시 산·학·연 생태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고양특례시의 혁신생태계 수준은 바이오·의료 분야에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취약한 편이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고양특례시 인접 지역에 형성된 혁신거점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예컨대, 마곡지구,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연계 방안 등

-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국제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은 복합도시 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023년에 진행될 ‘고양특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2040’ 연구에서 도출될 고양특례시 미래상을 후속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특화산업 및 공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할 필요
- 2023년에 발표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주요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미래형 스마트그린 도시 조성’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후속연구는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

참고문헌

[국내문헌] - 법률, 지자체 등

경기도(2012),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경기도(2015), 「경기비전 20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개정문.(2022.6.15.개정)」

「고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0)」

「고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0)」

고양특례시(2022),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1),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관계부처 합동(2018.11).「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2018~2027.」

광명시 민선8기 시정혁신기획단(2022), 「민선8기 자치 8.0 광명시 지방정부 시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2021.9), 「2020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2022.8),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보건복지부(2019),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산업통상자원부(2013).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2018).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2020).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

산업통상자원부(2021.11.),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산업부 고시, 2021-186.

산업통상자원부(202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및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2022),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국내문헌] - 논문, 보고서 등

경기연구원(2021),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원인 진단 및 보완 방향 연구」, 2021-89.

경기연구원(2022), “경기도 K-콘텐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고양특례시를 중심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2021), 「2020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김민창(2019.12),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김선배(2017),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 산업연구원 ISSUE PAPER

김선배, 하정석, 이상호, 김창모, 이동규(2021),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방안」,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용역과제

김선배, 김창모, 이영선, 하정석(2022), 「경제자유구역 미래 발전전략과 과제」, 산업통상

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용역과제

김양평(2022), “반도체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김용덕, 김은지(2021), 「고양시 드론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연구」,

고양시정연구원

김인철 외(2020), 「넥스트 노멀(Next Normal)과 새로운 산업정책 모색」, 산업연구원

더비엔아이(2021.10),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수립」

대전·세종연구원(2022.2),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문미성, 김은경, 박소영(2021), 「수도권 ICT 산업의 네트워크 특성과 경기도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송영관(2014),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KDI FOCUS

이유진, 배영임, 김유나(2022), 「경기도 K-콘텐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고양시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이현정, 하현정(2020), 「ICT·SW 산업 육성·발전 방안 연구 -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이현정, 정광진(2021), 「고양시 창릉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 고양시정연구원

정인석, 윤정란, 윤은혜(2015.3),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

정형곤 외(2021.12),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채원호, 조강주(2017), 「경제자유구역 성과와 전략」
- 한국관광공사(2016), 「한국 의료관광 산업 생태계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중장기 전략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18),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 및 분석 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0.12), “뉴딜산업 분석보고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2020 ISSUE REPORT
- 한국에너지공단(2015),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운영규정」
- 한지아, 김은정(2020), “스마트 헬스케어”,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20-13호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2022년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2022),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fez.go.kr/>
-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www.ifez.go.kr/index>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bjfez.go.kr/main.web>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gfez.go.kr/kor/index.do>
- 대구경북경기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dgfez.go.kr/>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efez.go.kr/hb/kor>
- 충북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eco/index.do>
- 광주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gjfez.go.kr/>
- 울산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s/ufez/main.ulsan>
- 킨텍스 공식홈페이지. <https://www.kintex.com/>
- 고양신문(2022.9.23). “개발지역 모두 경자구역 지정하겠다는 고양시, 산자부 의도와 반대로”
- 경남데일리(2022.7.27). “‘부산진해경자청’, 21년 경자구역평가 전국 최우수”
- 산업통상자원부(2021.11.5),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10.28), “지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보도자료

중도일보(2022.1.4.),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연기 왜?”

충청투데이(2021.9).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보도자료

[해외문헌]

Glasgow Research & Consulting(2022), “Medical tourism market could boom to \$180 billion by 2025”

Kumar, Neelam and Dhanju, Kiran (2017), “Export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Special Economic Zone in Haryana”,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Commerce Arts and Science』, 8(5), 200–209.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8),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McKinsey&Company(2022.4), “The semiconductor decade: A trillion-dollar industry”

UNCTAD(2019), 『World Investment Report, Special Economic Zones』

Zeng, Douglas Z.(2019), 『Special Economic Zones: Lessons from the Global Experience』, PEDL Synthesis paper Series no.1

Zeng, Douglas Z.(2021),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ir Impac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17.

Zhan, J. et al.(2020.8), 『Global value chain transformation to 2030: Overall dir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VOX, CEPR Policy

Abstract

The Concept and Model of the Free Economic Zone in Goyang Special City

Jin Keun Yu¹⁾, Lee Young Kim²⁾, Yong-Deok Kim³⁾, Sun Bae Kim⁴⁾,
Hyoung-Jun Ju⁵⁾, Sun haeng Lee⁶⁾, Eun-ji Kim⁷⁾, Myung Jun Kim⁸⁾

Currently, Goyang Special City(GSC) has tried utmost effort to be designated as a Free Economic Zone(FEZ). As the first measure, ‘Free Economic Zone(FEZ) TF’ was set up by the mayor since his elec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pport GSC’s policy initiative to be chosen as a Free Economic Zone. This research mainly covers the concept and model of Free Economic Zone(FEZ) in Goyang Special City(GSC).

Goyang-si had had more than one million of population since 2014. In 2022, GSC was designated as a Special City in Korea. GSC is the only Special City in the north part of Gyeong-gi province. Unlike its huge population, its economy is very bad. GRDP of the GSC is nearly half, compared to southern

¹⁾ Invited Senior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²⁾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³⁾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⁴⁾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orea

⁵⁾ Team Leader, Goyang Industry Promotion Agency, Korea

⁶⁾ Team Leader, Goy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Korea

⁷⁾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⁸⁾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cities of Gyeong-gi province (Hwaseong, Seongnam, Suwon, Pyeongtaek, Yongin). These cities have similar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their GRDP numbers are double of GSC's. What makes matters worse is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GSC is 32.8%, which is significantly low, compared to 53.4% of the 5 southern cities.

Multiple restriction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biggest reason for bad economic situations. These figures clearly represent the extent of restrictions: whole area of GSC is $266.41km^2$, however, sum of restricted area is $478.48km^2$. Due to the Metropolitan area location regulations, construction for manufacturing factories and universities are strictly prohibited. Consequently, business competitiveness has become worse. In short, GSC is a typical 'Bed town'. To boost economic development of GSC, a special policy initiative, which aims to circumvent location regulations, is crucial. That's why GSC desperately pursues a Free Economic Zone.

Blueprint for GSC's FEZ is as follows. GSC's FEZ consists of three districts: 'District A', 'District B' and 'District C'. Target industries of district A are bioindustry · precision medical care, IP convergence, contents, semiconductor. Catchphrase of district A is 'Future Innovation Core Technology Zone'. For district B, target industries are health touris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D clu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zone and ICT convergence industry. Main goal of district B is 'Global Cooperation Lab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arget industries of District C are Smart mobility, AI · UAM and drone. Main objective of district C is 'Test Bed for Intelligent Systems'.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GSC in pursuing FEZ. First, GSC has a lot of large hospitals and well-equipped medical infrastructure. Especially, National Cancer Center is located in GSC, which is an exclusive national institution taking charge of the cancer treatment and research in Korea. Second, GSC has the biggest broadcasting infrastructure all over the Gyeong-gi province. Mainstream broadcasting systems like MBC, EBS, JTBC, SBS are located in GSC. Moreover, current 9 FEZs don't target broadcasting and contents industry. This means it can work as differentiation. Third, KINTEX which is the largest Convention Center in Korea, is located within GSC. Considering the boom of K-culture and location of nearby DMZ, GSC has benefit from MICE industry. Also, GSC can reac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Harbor, Seoul station within 40km. Lastly, accessibility to Seoul is superior. Mostly, researchers strongly prefer staying nearby capital. This entails strong message than it looks like.

To sum up, GSC is the largest city of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On the contrary, economic situations are worse compared to southern cities of Gyeong-gi province. This is owing to multiple restrictions over GSC. To overcome this obstacle, strong policy initiative is needed. It turns out Free Economic Zone can be the best solution. GSC's FEZ consists of three districts and each has its own target industries and visions. GSC has many advantages in pursuing FEZ. There are well-equipped infrastructures of medical, broadcasting, MICE industry. In addition, accessibility to Seoul makes this more attractive.